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4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71 호

人蔘의 약효!
원비-디®

큰스님들 잇달아 법문 힘겨운 세상에 감로수

비룡 · 청화 · 성수 · 보성스님 등 20여 고승 산문밖 사자후

산사의 큰 스님들이 시정으로 내려온 뜻은 무엇일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잇달아 큰 스님초청법회를 열고 있다. '큰 스님초청법회' 붐이 일고 있는 것은 경제난이 가중되어 실직자가 늘어나고 사회범죄가 증폭되는 가운데 큰 스님들의 신선한 법어 한 귀절이 절실한 시대상과 무관치 않다. 큰 스님 초청법회에는 해당 사찰의 신도뿐 아니라 타 지역 불자들도 상당수 참석하고 있다. 특히 40대 이후의 남자신도들도 적잖게 찾아온다는 것이 법회를 주최하는 사찰측의 전언이다.

12일부터 19일까지 20여명의 큰스님들이 산문을 나와 법문했다. 특히 미국 LA 금강선원에서 1천일 묵언정진을 회향하고 11일 귀국한 청화스님(前 태안사 조실)이 광주 성륜사 등 3곳에서 법문을 해 불자들의 마음을 씻어주었다. 스님은 이달말까지 2~3곳에서 법문을 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화스님 법문중계 12 · 13면)

인천 보각선원(주지 송산)은 12일부터 18일까지 큰스님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초청된 스님은 서암(前 조계종 종정), 비룡(월정사 조실), 탄성(前 조계종 총무원장), 정일(선학원 이사장) 대정(범어사 선덕) 대행(한마음선원)스님 등이었으며 참석 인원만해도 1일 평균 5백여명이 넘었다.

성수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17일 울산 정토사와 18일 진주불교회관에서, 보성스님(송광사 방장)은 14일 동국대 정각원과 30일 천안 천불암에서, 청하스님(동도사 부방장)은 대구 영남불교대학에서,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 회주)는 19일 길상사서, 월운스님(동국역경원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에서, 벽봉스님(송림사 조실)은 18일 칠곡 연흥사에서, 정무스님(영월암 주지)은 25일 대구 법왕사에서 각각 법문을 했거나 계획중이다.

14일 동국대 정각원 법회에서 법문한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은 "요즘 사찰에 찾아오는 사람중 99%가 삼독심에 빠져 눈을 뜨고 있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며 법회장에 자주 나설 뜻을 비쳤다.

〈김중근 기자〉

애기봉 OP점등… "통일염원의 등 밝힐 터"



◇해병 청룡부대 애기봉 OP에 부처님 오신뜻을 알리는 연등탑이 밝았다. 봉축위원회는 14일 애기봉 OP에 연등탑을 밝히고 통일기원 발원문과 북한동포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북녘하늘에 띄웠다. 올 봉축기간에는 155마일 휴전선에 모두 12개의 등탑연등이 통일의 희망을 밝혔다 〈고영배 기자〉

군행사시 종교의식 국방부, 폐지검토

'예수부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도봉 해병사령관 이취임식 행사에서의 기도와 관련, 군 행사시 종교의식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군목이 등단해 축하기도를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군종실은 "군공식 행사에서의 종교의식은 부작용이 우려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고종 선암사 성역화 기구 추진

종단중흥위 구성키로… 조계종, 강력대응 방침

조계종과 태고종이 선암사를 둘러싸고 분규의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태고종은 8일 종무회의에서 선암사 성역화 불사를 이끌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종단적 입장을 정리하고, (가칭)종단중흥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키로 했다.

종단중흥추진위원회는 선암사 부주지 종연스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교구종무원장 및 기관장 중심의 부위원장과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법적으로 조계종 재산인 선암사를 태고종이 함부로 성역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부처님 오신날 직후 총무원장과 전남북 본사주지 공동으로 강도 높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태고종은 조계종의 입장표명을 지켜본후 '정화'에 대한 역사적 검증과 한법소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람료사찰 3곳 추가 엄공원이사장 '반대'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조계종 관람료 위원회(의장 설조)는 15일 임시회의를 열고 강화 보문사, 소백산 비로사, 영천 수도사를 문화재 관람료 사찰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해당사찰은 관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해 매표소를 설치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된다.

또 관람료위원회는 "엄대우씨가 이사장에 임명되면 산문폐쇄를 불사해서라도 거부의사를 밝히자"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불교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가 관리공단 이사장이 되면 불교계와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에 이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소쩍새마을 '인터넷 홈페이지' 20일 개설

현대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제작



복지시설 소쩍새마을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소쩍새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이 현대불교신문 부다피아 정보센터에 제작을의뢰 선보인 홈페이지는 장애인 고아 무의탁노인의 삶과 재활모습을 보여준다.

소쩍새마을의 연혁, 마을사람들의 사는 얘기, 뉴스를 사진과 함께 볼수 있으며 후원인이 되는 방법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http://www.sojjuk.or.kr

불교문화 체험기행

신록의 계절 5월, 경상과 전라를 잇는 지리산 자락 하동땅에 싱그럽게 펼쳐진 차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우리나라 차의 시배지 쌍계사 '茶 축제와 제다현장'을 찾아 갑니다.

쌍계사에 들어서면 신라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한 차 시배비와 이 절의 창건주인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대웅전(보물 제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그윽하고 은은한 차향기를 즐길 수 있는 이번 체험기행에서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다선일미의 세계를 찾아서'

'쌍계사 茶 축제, 제다현장'

◇출 발: 5월16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4만원(점심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구두닦이 내동생



장애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서도,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다. 20여년전 한스님의 보시행이 계기가 됐다. 지금은 그 스님의 법명은 잊었지만 터미널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돈이 없어 차표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표를 사주는 자비스러운 스님의 모습만큼은 남아있다. 10년전 무심코 터미널을 지나가다 장애인을 보고 그 스님의 모습이 되살아 난 것이다. 그때부터 김씨는 장애인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그는 다른 날보다 한차례 더 터미널을 둘러보았다. 김씨는 친척집에 간다는 영진씨(30 · 하반신불구)를 만났다. 영진씨도 다른 사람처럼 업어서 차를 태웠다. 이마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리고 뒤돌아 서는 순간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고마워요"라며 영진씨가 손을 흔드는 것이었다. 순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굉돌았다. 하루 이틀 해 온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참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흐르는 눈물만은 막을 수 없었다. 〈김중근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광주 우성병원 교계에 희사 23면
여천 흥국사 환경훼손 심각 22면
금강경 배우는 연예인 불자들 5면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맹란자 저〉 신국판/304쪽 값 7,000원

IMF가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실감하는
오늘의 보통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심덩어리로 다가옵니다.

"여기 그 죽음이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죽음이 또하나의 삶인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고은 시인 추천사에서〉

역사속의 빛나는 인물 100인의 죽음

- 죽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세네카와 네로, 광해군과 부의 외 6인
- 사라진 사람들/ 빛속으로 사라진 황제의 유해 카이사르의 9인
- 죽음과의 악수/ 사약을 독촉한 소크라테스와 송시열, 깨달음과 죽음이 남달랐던 체논과 백송선사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죽음보다는 철저한 삶을/ 니체와 파스칼, 토마스 카알라일과 소동파
- 예술, 그 광기와 죽음/ 정신병을 앓던 모파상, 슈만, 횔덜린, 몽크, 에드가 알란 포우와 보들레르, 까미유 끌로델과 니체석
- 화려한 명성, 처참한 최후/ 클레오파트라와 민비, 우미인과 양귀비, 사도세자와 소현세자
-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불교의 죽음관 목련존자와 혜가, 공초 오상순과 양관선사, 마더 테레사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 3462-2277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승복 · 유치원 · 사원복 · 음식점 유니폼 · 도복)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사 설

승가다운 선거

조계종은 올 한 해 여러 선거를 치르게 된다. 중앙에서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장 선거를 치러야 하고 지방에서는 9개 교구본사의 후임 주지를 선출해야 한다.

그동안 세속의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판에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권모술수가 판을 치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보아 왔던터라 장차 종단에서 치러질 선거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교계는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일 동화사에서 치른 교계 최초의 본사주지 선거도 본사주지를 경선을 통해 뽑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한 시사주간지는 최근호에서 종단 안에서 치르는 선거 역시 세속의 여느 선거판과 다를바 없이 인신공격과 심지어 금품매수설까지 난무했다고 서슴없이 인용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 기사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고 해당 주간지의 사장과 기자가 사과를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그 기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흥미거리가 된 뒤가 아닌가. 그런 소문이 왜 밖에서 나돌게 되었을까. 사실이든 아니든 안타깝기 그지없다.

장차 중앙에서 치러질 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을 띤 지방에서의 선거를 두고 불교계 안팎의 분위기가 이렇게 과열된다면 앞으로 총무원장 선거나 종회의장 선거는 과연 어떨 것인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단개혁의 한 축으로 본사주지를 임명제가 아닌 본사단위의 선출로 전환할 때부터 행여 전국의 본사가 선거 홍역을 치르지나 않을지 염려했었다. 아직은 일부 본사만이 직선을 택할 분위기이고 대부분의 본사는 산중총회에서 문중차원의 합의로 조용히 후임자를 추대할 분위기다.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본사가 있는 한 세속의 이목은 끈질기게 따라 다니게 되고 그에 따른 불교의 위상 실추가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일부 교구본사 주지의 뒷이야기가 괴문서로 나도는 것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세상의 어떤 제도도 그 좋고 나쁨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지 제도 그 자체만으로 완벽성을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종단도 내부적 반성과 철저한 개혁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지 못하는 한 선거를 둘러싼 잡음을 해소할 길이 없을 것이다. 선거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불교계의 사회적 신임도를 올리느냐 낮추느냐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승가에는 대중의 뜻을 모아 주지를 추대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현재 종단의 실정으로 보아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를 쓰는 승가의 지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다시 전통적 대중의견 수렴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므로 예정된 선거를 치르더라도 불썽 사나운 모습을 더이상 밖으로 드러내지 말자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한가지만은 꼭 지켜주길 주문하고 싶다. 그것은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수행자의 사회에서 수행자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곧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를 제도하고 남을 구하기 위한 출가였고 지금도 그 수행의 길에 서 있는 사문이라면 선거라는 현실 역시 수행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우리는 올 한해동안 치러질 종단의 많은 선거를 앞두고 감히 기대를 걸어 본다. 수행하는 자세와 계율을 지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는 '배울 점이 많은' 선거를 말이다.

"종교벽 넘어 화합으로"

◇16일 월주스님이 평화방송 TV에서 '평화응접실' 녹화를 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밝히는 이 방송은 28일과 5월3일 4회에 걸쳐 방송된다.



월주스님 평화TV 출연 '부처님 오신 뜻' 법문
광주대각사 목사·신부 초청 부활절 강연

종교간의 벽을 초월하는 각종 행사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12일 광주 대각사(주지 도산)는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인근 주월성결교회 방철호 목사 초청 강연회를 가졌다. 부활절인 이날 열린 초청법회에는 5백여 불자가 참석 방목사의 '자비와 사랑을 통한 남북통일'이란 주제 강연을 경청했다. 이자리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현지스님등 지역 불교지도자와 이영일 국민회의 의원, 광주가톨릭대 사회교육원장 조비오신부가 참석했다. 조비오신부는 방목사의 강연에 앞서 "부처님 탄신을 축하한다"는 경축사를 해 박수를 받았다. 대각사는 이날 대각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호산마을과 기독교가 운영하는 서울 상계동의 양지동산 결연식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6일 오후 평화방송 TV의 인기프로그램인 '평화 응접실' 코너에 출연,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와 종교화합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녹화된 50분 분량의 '평화응접실'은 28일 오후 1시40분, 6시10분 부처님오신날인 5월3일 오후 2시40분에 방영된다. 월주스님은 또 23일 개신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들꽃 피는 마을'을 방문해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종교화합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불교 자비원(원장 정각)은 이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종교로 가는 길'을 주제로한 초청강연을 갖는다. 26일에는 부산종교연구소 소장 송기인 신부가 27일에는 원불교 대신교당 김혜선교무가 28일에는 시온중앙교회 정영문 원로목사가 잇달아 강연한다.

26일 연등축제 회향마당에서는 비구니 스님과 원불교 정녀, 수녀님들의 합창이 울려퍼진다.

영천 거조암(주지 혜해)은 매월 나한재일법회에 들어 온 시주금으로 영천시 소재 나자렛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등 6개 종교 언론인들도 '종교언론인협의회'를 구성, 25일 경기도 일영 샬롬유스호스텔에서 창립대회와 심포지엄을 갖는다.

종교간의 화합과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움직임은 그간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의 '종교 벽 허물기' 노력이 돋보인다. 종교를 초월한 성직자들의 교류는 다양화된 사회에서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란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임연태 기자〉

'총무원에 바란다' 인터넷게시판 신설
조계종 홈페이지 재구성

조계종 종단에 대한 건의사항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달할 수 있게됐다.

조계종은 그간 운용해 오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재구성해 15일부터 각종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조계종 홈페이지는 해커의 침입을 방지하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초기화면의 도안도 대폭 수정했다. 봉축행사를 알리는 봉축관련 홈페이지에는 각종 행사 일정과 캐릭터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홈페이지를 재구성하며 '조계종에 바란다'는 방을 게시판에 신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총무원장에 바란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방에 수록되는 내용은 총무원만 열람할 수 있다.

주소는 www.buddhism.or.kr

BBS에 9천만원 지원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방송 지원금 9천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1일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어려움에 처한 불교방송을 살리기 위해 구조조정등 뼈아픈 자구 노력을 보이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고학력일수록 불자비율 감소

대졸이상 불교 10.8-개신교 23.1-천주교 9.8%

한국갤럽 97년 자료

학력이 높을수록 기독교(개신교+천주교)신자의 비율이 불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고학력 불교신자 포교에 대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갤럽연구소)가 1997년 1613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오차 ±2.4%)에 따르면, 고학력 종교인(대학 재학이상)은 불교 10.8% 개신교 23.1% 천주교 9.8%로 조사됐다. 고학력시대로 접어드는 사회변화 속에서 고학력자에 적합한 불교 이론과 의식의 개발 등 적절한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자료는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봉축세미나 '고학력 시대의 불교의 진로'에서 동국대 김용표 교수(불교학부)가 '고학력자의 종교성향과 특징' 발표를 위해 갤럽연구소에 의뢰, 입수한 자료이다. 〈관련기사 9면〉

조사자료에서 교육정도에 따른 종교성향과 특징(갤럽연구소 1990년/대상 1990명/오차 ±2.4%)으로는 학력과 종교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라고 답하고 있어 한국종교의 전반적 신앙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기위해'라는 구도형 신앙의 비율이 초등졸 이하 4.3% 중졸 9.8% 고졸 9.9% 대졸 17.6%로, 고학력자일수록 기복형 신앙보다는 구도형 신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고학력자의 종교적 성향과 특징은 △치병의 경험을 제외하고 종교경험이 높다 △종교공동체 참여의식이 높다 △ 종교의 사회의식 및 정치참여가 높다 △타종교에 대해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극복-통일논의 28일 종교인 좌담회
실천승가회 초청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는 28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IMF 국가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좌담회에는 청화·지선(백양사 주지)스님을 비롯 함세웅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김상근목사(한국기독교서회 사장), 원불교(미정) 등 각 종교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의 참회와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또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과 종교화합의 당위와 역할을 진단한다.

조계종 본사 7직 모임
일문회 5월 창립

조계종 교구본사 7직스님들의 모임인 (가칭)일문회가 창립된다.

5월16일 부산에서 창립법회를 갖는 일문회는 최근 열린 조계종 7직국장 연수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 2차례 회의를 갖고 정관작성, 회원가입등 창립준비작업을 해왔다. 현재 일문회는 법주사 쌍계사 등 22개 교구본사 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깨·사운동' 가속화 해야"

불교시민단체 워크숍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가속화되어야 한다. 또 기도나 좌선, 간경 등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개인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운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월주)이 15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개최한 불교시민사회단체 정책워크숍에서 손혁재 열린사회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사회참여나 사회활동에 소극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고 평가하고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필수적이고,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은 "조직화된 운동만이 '운동'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불교운동은 깨달음을 위한 것인만큼 기도나 염불, 좌선, 간경 등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개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행위도 운동의 범주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치운동중심에서 문화운동으로의 전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방향 설정 △투쟁의 연대보다는 확장에 노력 △목표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과정을 강조하는 운동 △비폭력운동 △사회변화와 자기수행의 통일 등 마음과 일상의 운동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도시인의 정신을 맑게…

道峯山 국난극복 기원 念佛道場 一萬佛 造成佛事

募緣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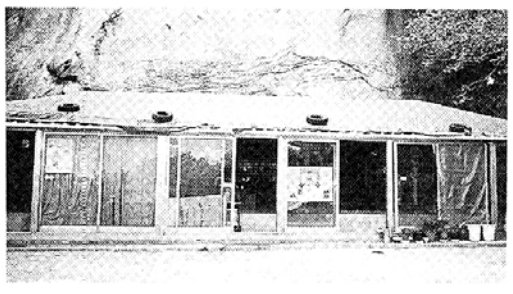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도봉산에 위치한 호암사 범바위는 예로부터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곳에 모여 부처님 전에 기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6.25 동란에도 이곳을 피난처로 삼고 부처님 전에 기도한 공덕으로 재난을 무사히 극복하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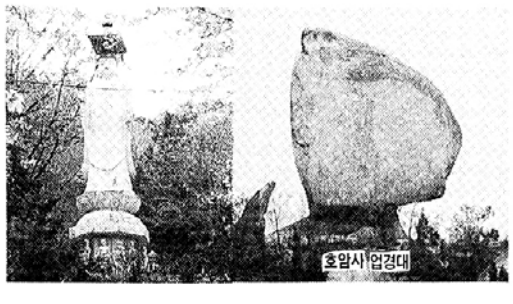
이렇듯이 부처님의 감응이 역력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근대 선지식의 한 분인 眞空堂 呑星 大宗師께서도 이 곳을 직접 방문하시어 조계종 최고의 환난극복기원염불기도도량이 됨직하다고 증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은 뜻에 부응하는 환난 극복기원 기도도량이 건립되기를 염원하면서 3월 27일 의정부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 1,000일 기도 정진중입니다.

이제 여러 신도님들의 원력과 신심을 담아 일인일불 조성불사 동참인연으로 과거 지은 죄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과 인연을 더욱 돈독하게 맺으며, 가정과 사회가 평안하며, 평화적 조국통일이 성취되고, 모든 소원을 이루는 염불기도도량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발원합니다.

불기 2542년 무인년 4월





● 불사안내 ●

- 일만불 조성불사
- 1일 1불 30만원
- 법당 및 요사채 불사
- 온라인 126-02-008353 (농협 예금주-호암사) 분할 입금 가능

● 법회안내 ●

- 매일 천일기도중 (오전 5시·11시 오후 3시·6시)
- 음력 매월 1~3일 : 신중특별기도
- 음력 매월 15일 : 미타기도
- 부처님 오신날 (장엄등 1년 5만원, 일일등 (당일) 성의껏 공양하십시오)
- 기 타 : 1호선 회룡역에서 차량운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도봉산 호암사** 祖室 眞空堂 呑星·주지 **혜 우** 합장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 27 · TEL : 0351)873-1386 · FAX : 0351)829-2323

조-태 갈등 '다시 수면위로'

태고종 선암사 성역화 추진 파장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상황이 상당한 갈등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태고종은 3월25일 승려대회에서 선암사 수호의 의지를 다진데 이어 선암사에 총무원 현판을 걸었다. 이어 8일 종무회의에서는 선암사의 중장기적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종단중흥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태고종이 선암사를 성역화해 발전시키겠다는 이면에는 조계종과의 분규사찰인 선암사를 '확실한 태고종 사찰'로 굳히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선암사 부주지 종연스님을 위원장으로 해 선암사를 종도들의 정신적 귀의도량으로 하는 성역화 불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설치할 종정원불사는 성역화 작업의 단초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명실공히 태고총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량정비 및 강원과 선원, 염불원 기능강화 불사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선암사 경내에 학교설립 가능지역을 선정,



◇태고종은 3월26일 선암사에서 승려대회를 갖고 총무원 현판을 달았다.

조계종 **소유권 등 초파일후 입장표명**

태고종 **종단중흥추진위 곧 구성키로**

순천시는 "상호타협 불상사 없길" 관망

동방불교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태고종의 '굳히기' 작업과 관련 조계종측은 '법적소유권'을 환기시키면서 강력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봉축행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총무원장과 전남북 소재 교구본사 주지 공동명의로 태고종에 대한 강도높은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서는 선암사의 재산이 법적으로 조계종 소유라는 점과 현재 태고종이 추진하는 선암사 관련 사업들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고종은 조계종의 성명을 지켜 본 후 1954년 이승만대통령의 유시이후 벌어진 '정화'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거론,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규사찰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태고종간의 갈등양상이 상당히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도 태고종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6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은 "분규사찰에 태고종이 총무원을 이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가 태고종 총무원 철수 요구 등의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선암사 분규 문제와 선암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무원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3월24일 목포불교대학 개원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전남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선암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부처님 오신날 이후에 종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암사 조계종측 주지 세민스님은 "선암사는 조계종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태고종이 총무원을 선암사로 이전한 것과 기존의 선암사 재적승들을 퇴방시키고 새롭게 상주할 스님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분명하므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산관리권을 갖고 있는 순천시는 이같은 조계-태고종간의 움직임에 대해 "상호 이해와 원만한 타협으로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는 관망자적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선암사문제는 양 종단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태고종의 '굳히기' 작전에 조계종이 어떤 강도의 대응책을 내 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필선 기자

목어 앎과 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서울 낙원동에 노숙자들의 숙소 '보현의 집' 준공식을 하려다 못했다. 주민들의 무·무가내식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낙원동 주민들은 걱정했다.

"보현의 집 부근은 전국 호모들의 집합소입니다. 실직자들이 골목안에 몰려들 경우 동네가 슬럼화되고 부녀자·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조계종은 염려 말라고 설득했다.

"걱정마십시오. 보현의 집에 입소하는 실직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선발되므로 건전한 사람들입니다. 오후7시부터 오전7시까지만 사용하고 밤7시이후에는 외출을 금하며 입소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합니다."

조계종은 보현의 집 근처에 방범초소 설치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시 실직자들을 부랑자로 오해하고 있는 낙원동 주민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일선 기자들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못한 조계종에 아쉬움을 표했다.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갖는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

종로구청이나 서울시 등 행정당국에도 일침을 놓았다. 14일 회의 참석을 약속해 놓고 얼굴도 내밀지 않아 '낙원동 님비사건'을 남의 일 보듯 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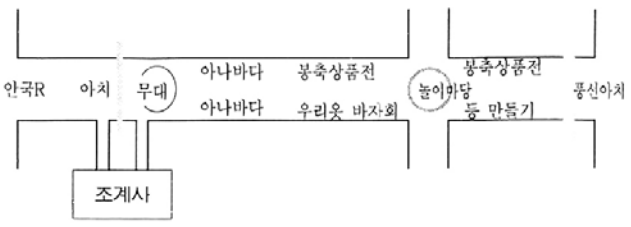
결국 조계종은 낙원동 주민대표와 구의원, 종로경찰서 정보계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현의 집'을 큰길가 사무실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사람들은 IMF의 고통을 나누자고 말한다. 노숙자들을 우리집 가장, 바로 나자신, 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하자는 말에 대부분 공감한다.

그리운 아내와 아이들, 어머니에게 쓴 '서울역 광장발' 편지를 보면서 콧마루 시큰함을 느끼고, 신문지 몇장을 덮고 거리잠을 자는 노숙자들을 TV화면에서 보며 한숨을 내쉬는 우리들. 그러나 막상 그들이 곁으로 다가오면 피하려 든다. 고통나눔이란 이처럼 앎과 함, 언행일치가 쉽지않다.

어느 교수는 세포가 체험하지 않은말은 '죽은 말'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누누히 강조하신 동체대비와 보시가 우리사회에서 살아있는 말로 확산될때 사랑이 넘치고 IMF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6일 연등축제 조계사 거리



26일 연등축제

아나바다장터·바자회 등 조계사거리 '볼거리 풍성'

3만개 촛불로 장엄 회향

26일 오후 2시부터막이 오르는 올 연등축제는 어느해 보다 볼거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혜창)는 조계사 앞에서 종각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아나바다 장터, 먹거리 장터, 봉축상품전, 우리옷 바자회, 등만들기코너등을 설치하고 공평사거리에 놀이마당을 열어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다.

또 바람춤, 사물놀이, 북청 사자놀이, 여군의장대, 원심회 수화노래 등 공연도 조계사 앞 거리 곳곳에서 펼쳐져 봉축의 흥을 돋우게 된다. 국제 포교사들과 외국어대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전담해 외국인들도 봉축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리는 연등법회에서도 지난해와는 달리 30여 대표단체의 입장식 순서를 마련, 법회 분위기를 한층 띄운다는 계획이다. 법회 순서 사이사이에 '만생명의 합창' 순서를 배치 찬탄의 화음을 끊이지 않게 한다는 계획도 주목할만하다.

또 제등행진에 앞서 전법의 의지를 결집하자는 내용의 선언문도 발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순서는 제등행진이 끝나는 조계사 앞길에서 펼쳐지는 회향한마당. 회향마당에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성직자로 구성된 삼소회의 합창속에 '촛불기원'이 펼쳐진다. 촛불기원은 참가 불자들이 밝히는 3만여개의 촛불로 '함께 이겨냅시다 다시 일어 섭시다'라는 글자를 수놓는 순서. 글씨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120m에 이른다.

특히 봉축위는 공중파 방송과 협의해 연등축제를 중계하거나 녹화 방송하도록 방송사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법요식 중계만 하던 관례를 깨고 역동적이고 장엄한 연등축제를 방송하게 함으로 불교 최대의 축제가 전국민과 함께 하도록 한다는게 봉축위의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문화재 보존체계 확립 노력"

수요 인터뷰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유전 소장



우리나라 문화재 발굴·보존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제4대 소장에 고고학자 조유전(55) 前국립민속박물관장이 8일 취임했다. 69년 문화재연구소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의 창립멤버인 조 소장은 94년 7월부터 3년9개월간의 민속박물관장 경력을 빼고는 줄곧 문화재연구소를 지켜왔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비, 어떻게 문화재연구소를 꾸려나갈지 들어본다.

- 최근 문화재 발굴이 폭증하고 있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명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를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이신지.

▲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계기로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있는 이때에 문화재연구소장직을 맡아 다소 부담스럽지만 그보다는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앞섭니다. 문화유산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부단히 새로운 발굴과 보존기법을 개발, 전국의 문화재관련기관에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한편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국민들과 세계속에 알려나가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 최고의 문화재연구기관이 문화재관리국의 한 부서에 머물고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 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관리국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리국은 문화재를 관리하고 연구소는 올바른 관리가 이뤄지도록 보완차원에서 연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속돼 있으면서도 독립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문화재연구소는 역량있는 내실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도록 각 분야를 차별화하고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소 직원 스스로가 국내 최고의 문화재 연구·보존의 권위자로 자부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 외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경주 황룡사지와 감은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 그동안 수많은 문화재 발굴·복원에 직접 참여해 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 누가 그러더군요. 조유전은 황룡사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수 밖에요. 6~7년을 황룡사지에서 살면서 땅을 팠고 황룡사로 박사학위도 받았으니 황룡사를 사랑하지 않고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지금도 간혹 경주에 가면 날로 변해가는 천년고도의 모습에 실망도 하지만 과거 몸담으며 생활했던 경주의 모습, 특히 황룡사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살겠노라 다짐을 하곤 합니다.

- 국민들이나 불교계에 바랄이 있다면.

▲ 문화재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 가치를 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유산의 해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다면 올해는 이를 구체화시켜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국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교문화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교종단이나 스님, 불자들이 더 앞장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윤기석 기자

조계종 태고종 소의경전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킨 생활지침서



내용이 쉬운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심오한 진리를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으니,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싶은 마음이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보성 태고종 종정스님, 전 동국대 총장 -



80을 넘어섰지만, 기력이 왕성하신 것이 바로 금강경 공부때문이 아닐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이항녕 세계 평화교수 협의회 고문, 전 홍익대 총장 -



기독교의 환경속에서 일생을 살아왔기에 불경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머리속에 완연히 그릴 수 있었습니다.

- 윤세원 선문대 총장 -



금강경 독송을 통해 툭 터지는(깨치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 줍니다.

- 김지견 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제목을 통해서 윤 교수님이 참으로 금강경의 깊은 뜻을 터득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 이영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



독서대상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놓았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처럼 아주 구수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 박상희 서울 신문사 관리부장 -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율순 엮음

출·간·즉·시

화제폭발!!

초파일 법보시용 주문쇄도

◉ 20권이상 주문시 특별할인 가격으로 보급
◉ 200권이상 주문시 "사찰명과 법보시 발원문"을 인쇄해 드림



이 책을 통해 도를 깨쳐서 조선 천지를 개혁하는 일을 기대해 봅니다.

- 이영무 (운제스님) 태고종 승정, 원효 연구원 이사장 -



여러 일화를 통해 오늘날의 시점에서 배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 류중민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중앙대 미대교수 -



현대를 사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마음의 병에 대해, 참된 치료방법이 이 책속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최정운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



여러가지 비유와 실화 이야기 등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시켰고, 결국은 32분 340쪽인 이 책을 다 읽어 버렸습니다.

- 김모란 홍익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6학년 -



내용이 딱딱할 것 같은 내 생각과는 달리 재미있는 예문도 많고 설명도 자세해서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잠은 본래 없고 분별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그후 놀랄만큼 잠이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 김호연 백운 중학교 3학년 -

바른법연구원 내용 및 단체구입 문의 ☎ 02-337-1636, 0344-63-2872

♣ 초등학생도 읽는 초유의 금강경 해설서 ♣



월주스님-朱복지장관 · 이협의원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4일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예방(사진 위)을 받고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숙자 보호대책등 불교계 복지사업에 관해 환담했다.

월주스님은 "종단이 복지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나 불교의 복지시설 위탁율은 전국 시설의 6%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주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종교계의 복지 사업을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며 불교계의 복지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월주스님은 국민회의 이협의원(전북익산)의 예방을 받고 익산미륵사지 복원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월주스님은 "불교계는 황룡사지와 미륵사지의 복원을 장기적인 숙원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협 의원은 "익산 지역민들은 종교를 초월해 미륵사지의 복원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김대통령의 지역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학계의 고증문제가 복원의 걸림돌이 된다면 인근지역에라도 미륵사를 복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금강국수공장 후원회 발족

선곡 · 정련스님 · 김도현씨 공동의장

금강국수공장 후원회가 17일 서울호텔에서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됐다.

조국평화통일협회(회장 법타)가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사리원에 설립한 국수공장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돕기위해 철웅(쌍계사 주지) 정련(내원정사 주지) 스님, 김도현씨(전 문체부 차관)를 공동회장으로 한 금강국수공장후원회를 발족시켰다.

부회장에는 법일(기림사 주지) 원행(삼화사 주지) 보선(대흥사 부주지)스님, 김재일(동산반야회 회장), 지현정사(진각복지회 사무국장)를 각각 선임했다. 또 30여명의 중앙위원을 위촉했다.



◇선곡스님



◇정련스님



◇김도현씨

선곡스님은 "금강국수공장 후원은 우리 불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창구이다"면서 "한번의 성과보다 북한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도현씨는 "불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인사를 후원회원으로 영입해 금강국수공장 후원회가 공식력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중화합 · 도제양성에 최선"

동화사 새 주지 당선 성덕스님

"투명한 사찰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교구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일 산중총회의 경선을 통해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후임주지로 선출된 성덕스님(송림사주지)은 "큰 소임이 맡겨진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간의 화제를 모으며 실시된 후임주지 경선에서 투표인 109명중 49표를 얻은 스님은 "큰 스님들이 양보해 주신 덕분"이라며 문중의 화합과 도제양성, 포교에 매진해 영남불교를 선도하는 동화사가 되도록 면모를 일신시키겠다는 포부를 비쳤다.

성덕스님은 66년 벽봉스님을 은사로 동화사에서 득도, 통도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마쳤다. 90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94년부터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님은 총무원의 임명절차를 거쳐 현 주지 무공스님의 임기가 끝나는 5월 23일을 전후해 주지직에 취임하게 된다.

대구=이윤호 기자

"불교관련 편향 · 왜곡내용 시정"

조계종 교과서 연구위장 원혜스님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국민정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같은 교과서에 불교 관련 내용이 자칫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편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이 나라 미래에 커다란 위험이 초래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18일 발족한 조계종 교과서연구위원회 위원장 원혜스님(포교원 포교부장)은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편향 · 왜곡된 불교 관련 부분을 바르게 고쳐가겠다고 밝혔다.

"교과서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해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을 연구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은 공청회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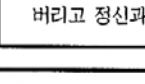
교과서위원회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와 학습참고서도 모니터한다는 계획이다.

원혜스님은 "현재의 교과서에는 불교관련 내용의 편향 · 왜곡보다는 편하하거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기술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2천년부터 시행하는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불교관련 자료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교차로

화재민에 성금 · 백미 전달



현해 월정사주지는 9일 '사천지구 산불피해 주민돕기 자비의 탁발'에서 모금된 5백50여만원과 백미 5가마를 강릉 시청에 전달했다.

서울청장 취임 축하법회



동광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스님(도선사 주지)은 17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청장 취임기념 대법회를 개최했다.

무료 합동결혼식 개최

설산 불교사회복지회장 스님은 5월6일 오후1시 서울 중구민회관에서 '무료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 (02)303-0024

이학송 수석교법사 임명



일면 광동학원이사장 스님은 광동학원 산하 3개학교(광동종고 · 여고 · 중) 수석 교법사제를 도입, 15일 이학송 법사를 수석교법사로 임명했다.

경찰병원 봉축법회에 법문



각현 연꽃마을이사장 스님은 30일 오후6시30분 국립경찰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병원내 직원불자법우회 봉축법회에 참석해 법문한다.

국태민안 기원법회



도해 인천광역시불교연합회장 스님은 23일 오후5시 오림포스호텔 대연회장에서 '국태민안과 인천시민을 위한 불교지도자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독거노인 초청 효도관광



수봉 경북 상주시 냉림사회복지관장 스님(남장사 주지)은 10일 상주역 독거노인 130명을 초청해 노인효도관광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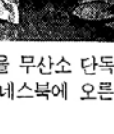
호국영령 위령재 봉행

성관 6사단 호국칭원사 주지 법사는 24일 오후1시 전몰장병을 위한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한다.

홍법대상 상금 기증

박영동 동대부고 교법사는 11일 전국 교법사단 창립 2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홍법대상 상금 1백만원을 교법사단에 기증했다.

고려사 서울분원 개원



태연 일본 고려사 관장은 26일 서울 반포동에 고려사 서울분원 부처님 점안식 및 개원식을 봉행한다.

태연스님은 "일본 땅에 버려진 대평양전쟁 30만명의 한인희생자 유골 수습과 '평화의 종' 조성불사를 범국민적으로 추진키 위해 개원한다"고 밝혔다. 원장은 시몽스님이 선임됐다. (02)3476-7301

부처님오신날 연등 점등식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은 28일 오후 6시30분 동국대 불상 앞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연등점등식을 가진 후 탑돌이 행사를 연다.

■ 중앙승가대 새 동문회장 효종스님

"재학생 지원모색…해외대학 결연도"

14일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3백27명의 투표인 중 152표를 얻어 제4대총동문회장에 당선된 효종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은 "동문들의 화합을 통해 장단기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10여가지 사업 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우선 학교의 위상강화를 위해 졸업생들의 진로를 확대하고 해외 대학과의 자매결연, 외국인을 위한 한글불교교육 체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동문들이 포교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매년 1개씩의 포교당을 건립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라는 스님은 승려노후 복지를 위한 사업과 학교와 재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스님은 동문회의 조직을 강화시켜 동문회가 수행과 포교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부 개설을 늘리고 동문 중심의 사찰과 포교당이 참여하는 연합회를 구성해 포교와 수행의 효율을 높힌다는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참선하니 고3 긴장 '싹'

Focus

4월9일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교장 김창오) 강당에서 고3 수험생 620명이 결가부좌를 하고 참선삼매에 들어갔다. 이 학생들은 결가부좌로 가다듬은 자세에서 길게 내쉬고 짧게 들이쉬는 호흡으로 고3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단숨에 녹여버리고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룬 세계를 향했다.

이날 강의는 95년 히말리야 메라봉을 무산소 단독 등정해 최고령자 최고봉 등정기록을 세워 기네스북에 오른 박희선(前 서울대 교수)박사가 맡았다.

부산=천미희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개인 모금 총액 724,510원(27명) △한 주 한끼굶기 625,000원(23명)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2,782,000원(76명) △정년정보문화 315,000원 △청년네트워크 200,000원 △진보사회를 향한 사회 140,000원 △정토포교원 아니룻다회 410,000원

〈4월15일 현재 총 981,369,722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알솜 Alsom은 수맥·전자파 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

수 맥 파

수맥이란 지층을 따라 맥상으로 흐르는 지하수를 말합니다. 수맥은 마치 인간의 혈관과 같아서 지하 깊숙한 곳의 미세한 물줄기 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쉼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수맥에서 발산되는 자력의 자체 운동의 결과, 수맥이 흐르는 곳의 수직 상방으로 파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지표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수맥파가 위로 발산되어 가공할 피해를 주게됩니다. 건물은 균열이 가고 지반은 무너집니다.
당연히 신체도 그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됩니다. 수맥파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때는 우리가 잠을 잘때와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루 1/3이 수면시간이고 일하는 시간까지 수맥파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그 피해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자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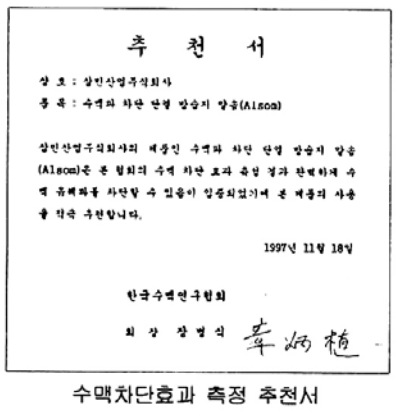
전자파도 우리가 알고있는 것 외에 인체의 아래로 수맥이나 보일러 파이프, 건축물의 철근, 전기장판등 주변 전도체 ⊖가 위치하고 인체의 위쪽으로는 주변을 지나는 고압전선과 천정의 가정용 전선, 전등, 철근 등 위쪽 전도체판 ⊕이 위치하여 하나의 축전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 전기장 안에 우리 인체가 장시간 노출된다면 신체상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단열방습

바람직한 난방 형태는 바닥은 따끈하고 상층 공기의 온도는 다소 낮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등의 공동 주택 내에서는 위층의 난방열이 아래층의 천정으로 내려오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손실은 물론 아래층에는 바닥과 천정쪽의 온도가 갈아져 머리가 맑지 못할 뿐더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알솜(Alsom)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드림은 물론 시공도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알솜 Alsom** 은 고순도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개발한 혁신적인 **신개발 제품**입니다.
- **알솜 Alsom** 은 **수맥·전자파**를 차단하고 **단열**과 **방습**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 **알솜 Alsom** 은 뛰어난 열반사율로 **냉.온열**과 **습기**를 효과적으로 차단시켜 **연료비**가 현저히 **절감**됩니다.

알루미늄, 동판을 사용한다고 모두 수맥파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도와 두께가 일정이상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알솜Alsom 은 수맥, 전자파 차단에 완벽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신축시 사용하면 완벽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추 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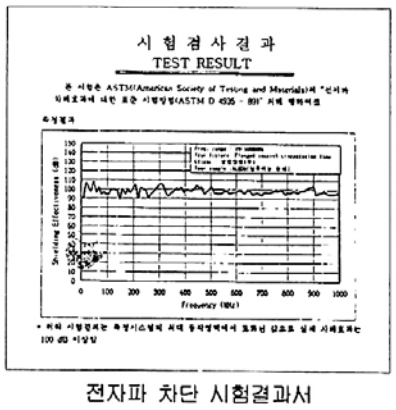
상 호 : 삼민산업주식회사
품 목 : 수맥파 차단 단열 방습시 알솜(Alsom)

삼민산업주식회사의 제품인 수맥파 차단 단열 방습시 알솜(Alsom)은 본 협회의 수맥 차단 효과 측정 결과 완벽하게 수맥 유해파를 차단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기에 본 제품의 사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1997년 11월 18일

한국수맥연구협회
회 장 장 병 식

수맥차단효과 측정 추천서


시 험 결 과
TEST RESULT

전자파 차단 시험결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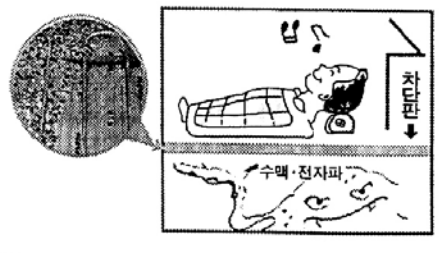
알솜의 종류 및 용도

알솜1000 ▸ 수맥, 전자파 차단과 단열·방습!
용도 모든주택, 아파트등의 2종 신축 건축물의 난방 파이프 바닥과 벽체, 천정, 기존 건축물의 장판 밑이나 걱정 침대

알솜500 ▸ 수맥, 전자파, 단열, 방습차단!(질기고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다트형 제품으로 이동이 간편함)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트를 명기한대로) 규격 : 1.2×1.9m 1.4×2.0m
용도 보일러 전기 장판, 담요 위, 머드리스(병원 침상 등), 텐트 깔개

알솜300 ▸ 단열, 방음, 방음, 충격력화(재질 사이에 에어캡 층 삽입으로 가볍고 사용폭이 다용함)
용도 냉 온열 차단과 방습, 방음이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단열, 방습이 필요로하는 제품에 간편하게 사용 할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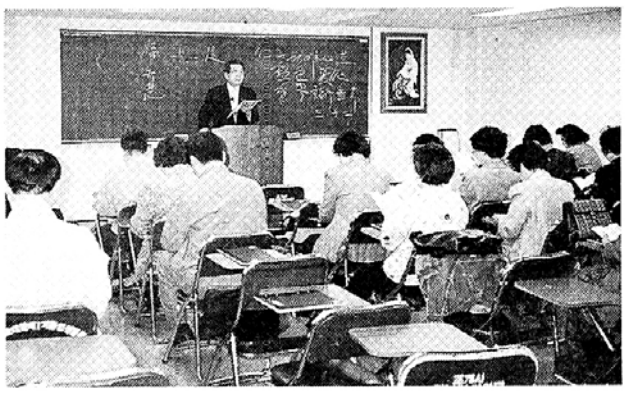
알솜100 ▸ 단열과 방습(가격이 저렴한 제품)
용도 모든 주택, 축사 창고등 건축물의 상·하 벽체 천정에 사용



제조원
SAMMIN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 (0345)498-5533(代)
FAX : (0345)498-8998

불자연예인 금강경 공부 '삼매'

송춘희씨 등 30여명 '맑고 밝은 마음' 닦아



◇연예인 불자들이 금강경 공부에 열심이다.

연예인 불자들이 불교공부에 열심이어서 화제다. 강의실에는 코미디언 송해, 송춘희 김흥국 머루와 다래 남광수 김활선씨등 가수들과 연극배우 김동래, 김봉선씨 등 낯익은 얼굴들이 가득하다.

조계사 문화교육관 201호에서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2시부터 이건호법사로부터 〈금강경〉공부를 하고 있는 불자연예인들은 연예인불자회(회장 송해)와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 회원 30여명.

"금강경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터득하는데 있습니다. 맑고 청정한 마음을 밝게 했을때 자성이 밝아져 지혜와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호법사가 〈금강경〉 한귀절 한귀절을 설명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말씀이 나올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강의에 열중이다.

가수 송춘희씨는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연예인들에게 공부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연예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불심을 돈독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군법당 비룡호국사 낙성

심우회 불사비 지원으로…50평 규모

군불자들의 군법당 건립원력과 심우회(회장 김명원)의 불사금지원으로 완공한 비룡호국사가 11일 개원식〈사진〉을 가졌다. 40여 심우회원과 군불자 1백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진 비룡호국사는 군장병들이 법당 건립을 부대에 건의하면서 대대장인 류창모 중령이 어렵게 불사를 해왔다. 이 소식을 들은 심우회 이지성심보살(72세)이 건축불사금 전액을 회사하여 50여평 법당 상량식을 갖기에 이른 것. 심우회는 이날 방석 50개, 냉장고 선풍기등을 법당에 보시하고, 군장병들에게 단주 2백여개와 떡, 과일, 음료수를 준비하여 위문잔치를 열었다.

"불법따라 바르게 살면 경제회복"

국민회의 연등회 부산서 국민화합 기원법회



◇국민회의 연등회는 10일 부산에서 국민화합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부총재)는 10일 국제신문 4층 대강당에서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혜암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은 법어를 통해 "지금 불어닥친 경제난국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개심(開心)하여 우리를 일깨우는 선물로 생각하자"고 법문했다.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등회 창립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교계지도자와 연등회 소속의원간 정기간담회를 통해 종교편향정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교환됐다.

사상호 초대회장(부산불교신협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붓다의 수승한 법이 민족화합과 정토구현의 길임을 깨달아 계층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불교 혁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오(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월파(통도사 주지)스님, 국민회의 추미애 정한용 조한천의원,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탐방 전국금융단불교연합

"IMF 고통 수행기회 삼아요"

16개 금융기관 가입…올 창립 10돌 맞아
자연보호·군부대·복지시설 위문 활발



◇금융단불교연합회는 11일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금융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고통이 심할수록 수행하기에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장생활과 신행에 보다 더 정진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외환위기 극복과 금융인의 자세'를 주제로 11일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용이·한국은행)가 19회 합동법회를 연 한국은행 본점 8층강당. 금융단 불자 2백여명이 월운스님(봉선사 회주)의 법문을 들으며 IMF체제속에 강한 한파를 겪고있는 금융계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번 법회로 89년 석주스님(칠보사 조실)을 모시고 8개 은행불자회가 동참하여 시작한 금융단 합동법회가 벌써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미창립 금융기관의 불자들도 법회에 참가시키며 불자회도 16곳으로 늘어났다.

금융단불교연합회는 이날 법회에서 모은 기금으로 초파일맞이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달내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는 이정애할머니(서울 구로본동)에게 치료비를 전달 할 계획이다.

85년 12월 한국은행불교회를 시발로 16개 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단불교연합회는 연 2회 정기합동법회를 비롯하여 성지순례 행사와 수련대회, 야외법회, 기초교리강좌를 열어 신행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또 금융단불교연합회는 대사회적인 활동도 열심이다. 연 2회 연꽃마을 자광원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불우이웃을 돕고, 자연보호 캠페인과 군부대 위문활동도 펼치고 있다.

화합에 기반한 연합회 조직을 만들기 위해 16개 은행 불자회의 회장단이 참여하는 간사모임인 금융단불교연합회 운영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해 의견수렴과 행사결정, 그리고 불자회 미창립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용이 운영위원장은 "20년을 맞는 40회 법회에는 모든 금융기관에 불자회가 창립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김천시청 법명회 창립

김천시청 법명회(회장 류진수 총무과장)가 10일 창립했다. 김천시청 불자모임인 법명회는 직지사 설법전에서 회원 62명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신행활동을 돈독히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키로 했다. 법명회는 2개월에 1회씩 직지사에서 정기법회를 갖기로 했다. (0547)436-6174

백록회 한라산 정화활동

제주 불다릅럽 백록회(회장 이길형)는 19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관음사등 한라산 일대에서 자연보호 운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1백여명의 회원가족이 참석하여 신심과 친목을 다졌다.

부산BBS통신원 하루찻집

부산불교방송 교통통신원불자회(회장 조흥인)는 5월7일 부산 중앙동 다전에서 하루찻집을 연다. 이번 행사는 부산불교방송 발전기금을 마련키 위해 준비됐다. (051)644-5114

KBS불자 여의도 연등 장엄

KBS불자회(회장 김학선)는 초파일을 맞아 봉축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KBS불자회는 30일부터 여의도 사옥에 연등 4백여개를 장엄키로 했다.

하불동 고달사지 답사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12일 5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신륵사, 고달사지 등에서 이동 야외법회 불교유적지 순례〈사진〉를 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하불동(인천/부천)모임 권세종지역장은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자주 갖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공무원불자 6월 창립

서초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차정욱)는 9일 제2차 창립준비회의를 갖고 5월 초순 개최키로 한 창립법회를 지방선거(6월4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보현가족 9사단서 봉축식

고양시 보현가족(지도법사 황연수)은 5월3일 9사단 장병들과 함께 호국천마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과 위문법회를 갖는다. (0344)64-9006



조계종 강북장애인복지관 개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17일 직영시설인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혜창) 개관식을 가졌다. 또한 장애인의 날을 기념, 장애인 큰잔치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월주, 종회의장 설정, 포교원장 성타, 사회복지원장 혜창스님과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장정식 성북구청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화엄장학금 4천6백여만원 전달

화엄장학회(이사장 정회수)는 12일 인천 약사사에서 '불기 2542년 장학금 수여법회'를 갖고 대학생 8명 고등학생 64명 등 총 72명에게 4천6백80십여만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회수 이사장은 올해부터 장학회 내실을 다지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 서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히고 "사회발전과 불교발전을 위한 일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 무각사 개원·국난극복법회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는 11일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기원하는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주지 광민스님은 "전법도량으로서 실업대책과 문화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성(조계총림 방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법흥(무각사회주) 천운(대둔사 주지) 현고(송광사주지) 지선(백양사주지) 종열(화엄사주지)스님, 박상규 국민회의 연등회장,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 허경만 전남도지사 송언종 광주시장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법희선사 전기 '법의 기쁨…' 출판회

법희선사의 생애와 선(禪)을 그린 〈법의 기쁨 사바세계에 가득〉 출판기념회가 삼현문중과 서울 법륭사주최로 15일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석주(칠보사 조실)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조계종 종회의장) 법장(수덕사 주지) 혜거(금강선원 원장) 광우(전국비구니회 회장) 진관(진관사 주지)스님과 성낙승(불교방송 사장) 명호근(전국신도회 부회장) 김지견(전통불교연구원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양택생활풍수에 적용하면,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법과 그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 팔상탑주(八相塔呪)책자내용의 요점설명

1) 음택풍수측면 :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후손에게 발복이 일어나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해주는 방법수록

2) 양택풍수측면:
① 사업이 잘 안될때 이를 개선시키는 방법
② 대학입시나 고시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할 때
③ 노처녀나 노총각이 결혼을 빨리하고자 원할때
④ 부부간에 불화가 심할경우 부부금실을 좋게 해 주는 방법
⑤ 자녀가 없어 아이갖기를 간절히 원할 때
⑥ 불치병등을 완치시키고자할 때 풍수적인 조치방법
⑦ 부동산등을 빨리 처분하기를 원할때
⑧ 식당, 레스토랑, 다방, 술집, 가게, 상점, 슈퍼마켓, 약국, 여관, 호텔, 사우나, 목욕탕, 학원등 영업장소에 고객들이 증가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12품팔상탑주를 적용시켜 풍수적으로 그 개선방법과 해결책 제시!!

"스님들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팔상탑주 처방비법"

◎본 책자는 현재 전국에서 사암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 연락주시는대로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의 신도들에게 풍수적으로 불가사의한 효험력을 나타내는 팔상탑주를 적용하여 신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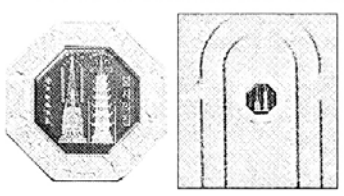
◎ 불자님들께는
본 책지를 요약한 카다로그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앙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팔상탑주(八相塔呪)는 12품의 종류와 방위를 판독하는 나침반으로 구성

이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불자님들께서는 다음의설명드리는 2종류의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상탑주는 이 두품을 먼저 적용하고나서 시간을 두고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하시어 단계적으로 적용방법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품만 먼저 적용하셔도 자신의 약한 운세가 변화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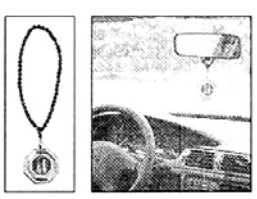
1) 대문용 팔상탑주를 대문앞에 부착해 주십시오.



·소재 : 금속위에 순도99.9% 순금도금
·규격 : 8cm×8cm ·가격 : 60,000원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풍수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입니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주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앞집대문과 미주보고 있는 대문은 풍수상으로 적살방이라 하여 어느시점이든 기가 약해졌을때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갑자기 한 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점점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며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의 상서러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출입자에게 강한 운(運)을 제공해 줍니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맞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차량 및 목걸이용 팔상탑주를 차안에 걸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소재 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도금
·규격 5cm×5cm ·가격 60,000원

각 집마다 차량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의 현실에서 차량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번창도 좋고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지만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차량은 필수품이 되어 떼어 놓으려해도 놓을 수 없는 실정에서 차량의 안전운행은 무엇보다 우선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용 팔상탑주는 차안에 필히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도록 조성된 차량용 팔상탑주는 앞면에 총괄팔상탑주, 뒷면에는 팔괘만다라를 새겨넣어 차안에 걸게 되면 차량 내부 전체에 강력한 우주에너지를 취합시키고 발생시켜 차안에 생기가 충만케 해주고 그로인해 운전자나 탑승자의 운기를 강하게 향상시켜 주므로써, 외부로부터의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여주고 예견해주는 작용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차량자체도 생기가 빠져나와 돌발적인 사고가 저절로 피해가도록 조절해 줍니다.

● 차량이 없는 분이나 혼자서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분은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등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몸전체에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체결이나 시험보러갈때, 관재가 있거나 삼재가 온 사람은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특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은 필히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팔상탑주란?

"사람에게는 인상(人相), 관상(觀相)이 있고 집에는 가상(家相)이 있다. 이 가상(家相)안의 여덟방위에는 주역의 괘체에서 말하는 길상(吉相)인 팔상(八相)이 존재하고 있으며 팔상(八相)은 여덟가지의 인생사(人生事) (1)결혼 (2)명성 (3)부 (4)가정 (5)지식 (6)진로 (7)조력자 (8)자식을 뜻한다. 이 8방위의 발전을 각방위별로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수단으로서 괘체의 팔각형안에 음양의 불탑다라니 신주(神呪)와 오행상의 길(吉)한 색상과 상징물, 숫자, 주술(呪術)등을 도입하여 조성한것과 이곳에서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름하여 팔상탑주(八相塔呪)라" 하였다.

3) 거실·사무실·상점 등의 중앙에 걸어두는 총괄 팔상탑주



(1)적용방법 및 효능 등 자세한 설명은 책자 참조
(2)소재 : 특수 주물금속위에 순도 99.9% 순금으로 도금
(3)규격 : : 30cm×30cm
(4)수려하고 아름다운 외관은 풍수적으로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불자님들 집안의 고급스러운 장식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의장특허등록 : 제211260호

4) 8방위 영역발전을 성취시켜주는 방위별 팔상탑주



동 서 남 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 팔상탑주(八相塔呪)의 효험력

강한 기(氣)의 생성과 균형, 팔괘와 음양의 조화, 십이지·오행상의 상생을 조화시킨 양택 생활풍수원리와 불탑신주(佛塔神呪)의 위력이 합일(合一)되어 조성된 12품의 팔상탑주(八相塔呪)는 가옥이나 사무실, 가게 등에 적용하는 순간부터 그 곳의 운기(運氣)를 최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운세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강한 운(運)의 소유자로 변화시킨다.
즉, 12품 팔상탑주(八相塔呪)의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효험력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거주인들에게 닥치는 악운(惡運)을 예방시키고, 행운(幸運)을 가져오기 시작하며 결혼·재정·학업성취·대인관계 등에서 유익하게 작용토록하고 직업면에서도 운(運)이 열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명성을 얻게 하며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부(富)를 쌓게 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 화 : (0335)34-9490, 34-9491 야 간 : (0342)706-3060

법회안내



현호스님(법련사 회주)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30분 연등기원법회. 26일~5월 2일 오전10시 7일간 봉축기도법회. 28일 오후2시 불명 및 삼귀오계 수계법회. (02)733-5378



밀운스님(봉선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군인법회. (0346)555-5974



성광스님(화계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일요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3시 청년회법회. (02)902-2663



범추스님(청주 풍주사 주지) 5월2일 공군제13579부대 전투비행단 군법당 초파일 전야제 법회. 22일 오전9시30분 청주교도소 직원재소자 합동법회. 27일 오후6시30분 거사림법회.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10시 청주파라미타 학생법회. (0431)56-5585



심산스님(통도사 부산포교원 원장) 21일 오후7시 '올바른 신행생활에 대하여' 주제 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 지장재일 법회. (051)816-2241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분단극복하는 길 제시

정토포교원 통일 강좌

청년정토회(회장 박남규)가 우리의 분단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청년의 통일운동을 바르게 모색하는 장으로 법륜스님의 통일강좌를 준비했다.

'분단민족의 현실과 통일운동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제로 인류문명의 현실·분단민족의 과제·북녘동포의 실태·북한동포돕기의 현황·통일운동의 현실·민족통일의 과제·청년운동의 대안 등 체계적인 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2일~6월 3일까지 홍제동 정토포교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이 시대 청년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통일운동에 대한 혜안과 삶의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02)379-1650

사바세계 무명 밝히자

봉은사 가족등 만들어달기

번뇌와 무지로 가득찬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며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는 발원의 한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밝혀온 등불.

온가족이 모여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어 한지를 바른 등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지를 오려 붙이는 멋스러운 우리의 등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봉은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족등 만들어 달기 행사를 28일~5월1일까지 법왕루에서 연다.

전통등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전통 등을 만들어 달면서 등공양의 참의미와 가족의 화합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02)511-6070

영어로 말하는 불교

화계사 국제선원 일요강좌

산비둘기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외국인 스님과 함께하는 일요일 오전의 영어수업은 상쾌하기 그지없다.

화계사 국제선원은 5개월전부터 이곳을 찾는 불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초·중·고급 수준을 따로 나누지 않고 수업을 하며, 매주 수업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 누구든 쉽게 참가할 수 있다. 명행스님은 대적광전이나 큰방에서 영어로 법문을 하거나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보이시니 오직 가섭만이 웃었다'는 긴 글을 읽어 준다. 또 공도스님과 평행보살님은 객방 등에서 생활영어와 짧은 문장 등을 가르치고, 영어작문을 숙제로 내주기도 한다.

어린 학생부터 성인들까지 골고루 수강하는 이 수업은 시간내내 영어로 진행되며, 학생들도 영어로만 대답해야 한다. 수강료도 따로 없다. (02)900-4326

실직고통 참선으로 푸세요

석왕사 단기출가 학교

한국불교태고종 춘천 석왕사(주지 편백운)가 실직자를 위한 단기출가학교 수련회를 실시한다.

IMF로 인한 실직자 및 일반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단기출가수련회는 26일~5월 2일까지 4박5일간 무설전에서 진행된다.

이 단기출가 수련회는 실직자들에게 일시적인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고, 삶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확립함으로써 닥쳐온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석왕사는 경내에 30평크기의 공간을 마련, 실직자들의 원활한 대화와 정보교환을 도모하는 한편 숙식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0361)54-6066

가족대화로 화목다져요

신도림복지관 부모대학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간의 대화방법과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줄 강좌가 마련됐다.

신도림복지관은 5월 13일 오전 11시 부부간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실습할 계획. (02)631-9792

법동복지관은 5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부모대학을 열어 자녀의 성심리 및 성교육, 부모와 자녀의 효과적인 대화기법, EQ지수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도하게 된다. (042)633-1141

불자들을 위한 휴식공간

대불련 쉼터 '心내' 열어

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회장 임동주)가 편안하고 부담없는 만남과 쉼의 열린공간 대불 쉼터 '心내'를 열었다.

心내는 작은 자투리 시간, 도반과 함께 부담없는 담소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작지만 아담하고 정겨운 무료 공간이다. 조계사 인근이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빌딩 3층에 자리잡은 心내는 대불련 동문뿐 아니라 불교활동가, 종무원, 신도, 스님 등 사부대중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다. 교계신문, 잡지, 바둑과 장기, 간단한 음료, 전통차도 준비돼 있다고. (02)723-9811



◇온가족이 모여 연등을 만들다보면 신심도 다지고 가족의 정도 느낄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사찰에서 등 제작하는 모습.

나의 수행일기



김관두 〈(주)님프만 사장〉

어린시절 누나와 함께 산길을 가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누나도 나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 막막했던 그때 눈을 감고 두손을 모으고 할머님이 평소 하시던 모습을 기억하며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한참동안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였다. 나도 모르게 한쪽 발이 풀숲을 헤치고 쑥 뻗어 나갔고, 그 풀숲사이로 작은 길이 나 있었다. 얼마나 신기했던지, 어린시절의 그러한 경험으로 나는 일찍이 부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반야바라밀'을 생활속에서 늘 염하며 생활하고 있다.

70년대 초반 종로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열었던 광덕스님을 처음 뵌 것이 내가 바라밀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인연이 됐다. 당시 대각사 마당을 꽉 메운 청년불자들은 스님의 힘찬 법문 속에 녹아 있는 가르침을 한자라도 놓치기 않기위해 녹음을 하고 반복해서 듣기도 했다. 막상 대기로 내리치는 것과 같은 힘찬 법문, 꾸밈이 없는 직설적인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반야바라밀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모았었다. 현암(玄巖)이라는 법명도 그때 광덕스님이 지어주신 것이다.

그 후로 불광사를 다니며 '바라밀정신으로 매진하라'는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수행의 좌표로 삼고 있다. 현재 불광사 논현법등 소속이지만 사업이 워낙 바쁘고, 요즘엔 IMF로 경황이 없어서 법회에 자주 참석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집에 부처님 사진을 모시고, 향을 피우고, 반야심경 독송과 108배를 하고 있다.

나는 일찍이 종로5가 광장시장에서 처음 속옷장사를 하며 장사꾼으로서 사업가로서 잔뼈가 굵었다. 그러다 한 어른이 침구업을 해보라고 권유해 주셨고, 범아사라는 침구도매상을 열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생산·판매를 시작, 님프만을 운영한지 16년이 됐다.

요즘 같은 IMF시대에는 어떤 기업도 다 힘들다. 님프만도 마찬가지다. 지난 세월동안 석유파동도 겪고, 수많은 난관들을 겪어왔지만 요즘처럼 힘들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마음을 비우고, 무조건 닥쳐온 상황에 열심히 노력하고 대처해야만 한다. 내 자신을 먼저 굳게 추스른 후 직원들에게 나는 말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비장한 각오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고.

모든 세상사가 그러해야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겉과 속이 같은 정직성(신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자 생활의 철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거래처에 대금을 치를 때 현금이 있으면 철저하게 현금으로 준다. 그럴때면 직원들이 내게 현금 그대로 은행에만 넣어 놔도 이자가 얼만데 어음을 주지 현금을 다 주냐고 책망한다. 내가 현금이 요긴하면 남도 마찬가지다. 현금이 있으면서도 어음을 주는 기업관행은 바로 남의 이익을 뺏어오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나는 늘 정직하게 양심에 걸림없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자 애써왔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잠시 한눈을 팔고 정신을 놓으면 삿된 길로 접어들게 되듯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중소 침구업체로서 살아남기 위해 등종업계에서 최고가 되기위해 끊임없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해왔다.

그러한 결과로 지난해 1월에는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 인증서를 받는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합침구업체로서 거듭나고 있다.

오롯이 정신을 차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생활하면 깨달음의 자리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업도 그렇게 수행하듯 꿜쳐나가고자 나는 항상 마음을 다진다.

"바라밀정신으로 매진"

겉과 속이 같은 정직·신용사업 신념



게시판

♣ 알림

△전통한복집=·'연지곤지 우리옷'(대표 이명선)이 종로구 인사동 등일빌딩 1층에 분점을 마련했다. (02)732-8552

△동산교육회관개관=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9일 오후 2시 웅전갤러리 2층에 동산교육회관을 개관했다. (02)732-1206

♣ 모집

△기초교리=조계사는 초심불자들을 위한 제21기 기초교리강좌를 마련했다. 3개월 과정으로 25일 개강. (02)720-1390

△가정봉사원=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말벗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0551)31-8017

△주부문화교실=부천 석왕사는 사군자, 풍물, 수지침 등 취미교실과 도배교실 발반사요법 등 부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032)663-7776

△아동합창교실=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합창교실 회원을 모집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합창지도 및 문화공연관람을 한다. 수시모집. (02)806-1375

△중이절기 초급강사 자격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초급지도자 자격증 대비교육 속성반으로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실시한다. (02)817-8052

△노인주간보호센터=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주간보호센타 이용자를 모집한다. 낮시간동안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중풍 및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기능동작훈련서비스, 치매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051)893-5034

△어진간병인 교육생=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5월 18일~22일 오후 2시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어진간병인 교육을 실시. 주부 및 준교령자 1백명에게 무료교육. (02)723-6258

△산모도우미=신도림복지관에서는 산간의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도울 도우미를 파견해 준다. (02)631-9792

△발반사건강요법=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제 7기 발반사건강요법 수강생을 모집한다.

24일부터 3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0분 관오사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10만원. (053)784-3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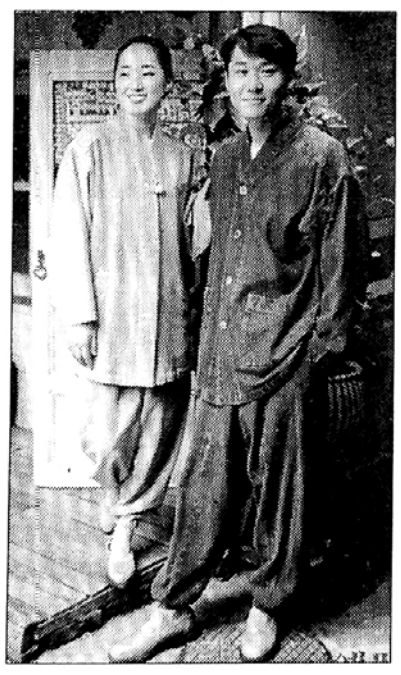
△불교교양대학 신입생=금하선원(원장 청암)은 제8기 불교교양대학 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22일 입학식에 이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불교기초교리, 반야심경 등을 강의한다. (02)823-9135

♣ 부음

△서동석기획실장(종단협 소비자보호위) 모친이 1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02)3452-7485

매월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예 맥 생활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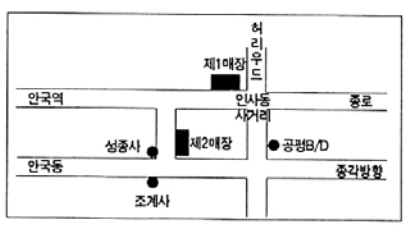


우리옷 "예맥"의 제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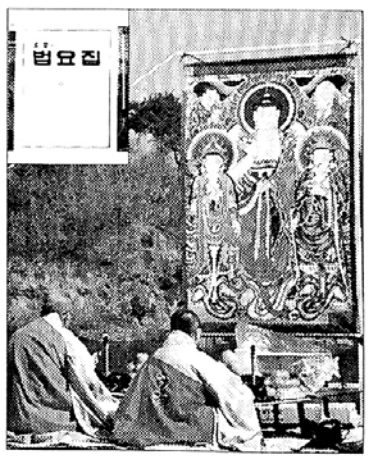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 각종 연회 예복 제작
- 스님들의 간편복
-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 영 매 장 :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모집 : 佛子로서 본찰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자 구함(여 30세 이상 불자)

본 사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예맥 어패럴
전 화 : 737-0804~6 팩스 : 723-4599
제1매장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4번지
☎ (02)723-4600
제2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 (02)738-3939



다중용 법요집 및 괘불



〈괘 불〉
- 규 격 : 높이 7자, 폭 4자 5치
- 특 징 : 방수완벽, 조립간편
- 가 격 : 90만원(괘불대 포함)

▶ 괘도내용 : 법회식순과 찬불가, 기초교리
감 수 : 암도 큰스님

佛教布教資料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岩洞 195-6
電 話 : (02)772-9052, FAX : (02)755-0479
(02)672-1333, 723-4599



◇판화가 정비파씨의 목판화 작품 '십일면 관세음보살.'

전통불화-현대불화-판화-금니사경-전각展

봉축전시회 가면 '환희심'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이를 봉축하는 전시회가 풍성하다. 특히 이번에는 전통불화와 현대불화, 선화, 판화, 금니사경, 전각 등 그 어느 때보다 전시의 종류가 다양해 IMF로 스산해져 있는 불자들의 발걸음을 모처럼 전시장으로 이끌어 들일 것같다.

목판화가 정비파씨는 22~28일 서울 공평아트센터(02-733-9512), 5월4~8일 부산 국제신문사 전시실에서 '천년의 미소 세상속으로' 목판화전을 갖는다. 본존상을 비롯한 석굴암 불보살상의 질감과 골격을 그대로 재현시킨 대형 목판화가 마치 석굴암의 신비가 그대로 옮겨온 듯한 감동을 준다.

25일까지 영동 예맥화랑(02-543-8952)에서 '색시공전'을 열고있는 추경씨는 불상 범종 연꽃 물고기 탑 등을 무정형의 화풍으로 형상화한 '만다라' '열반' '팔정도' '피안' 윤회' 등을 선보여 현대적 불화의 밝고 감미로운 멋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전연호)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02-260-3098)에서 불교미술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연호 김익홍 허길용 이진형 김의식씨 등 회원 30여명의 불화와 조각 서예 등 1백여 작품이 전시되며 이번 특별전의 관매수익금은 전액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기탁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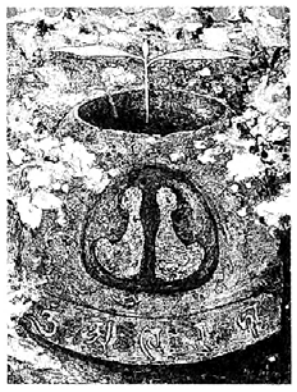
상묵스님(지통사 주지)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하동 지통사 선화당(0595-83-3751)에서 '동심전'을 연다. 채색화를 선(禪)에 접목하여 담백하게 그린 그림 60여점은 수행에서 우러난 선적 고요를 안겨준다.

서예가 창봉 박동규씨는 5월6~12일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금니법화경 사경전을 갖는다. 박씨가 1년 6개월간에 걸쳐 완성한 금니법화경은 감지에 예서체로 썼으며 총 길이만도 300m나 되는 대작이다. 박동규씨는 전시가 끝난후 이 법화경을 제주도 고관사 사리탑에 봉안한다. 전각가 서용철씨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금강경 전각전을 개최한다. 금강경 총 5440자(字)를 해남옥돌 1207과에 새겨놓은 이번 전각전은 금강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보리' 자를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볼수 있는 등 금강경의 뜻을 새기며 다양한 체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 가톨릭신자이면서 불경을 전각해 화제를 모은 서용철씨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전시로 열게돼 타종교예술인으로서 더욱 기쁘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전각가 서용철씨의 금강경 전각작품.



◇추경씨의 현대불화 '열반Ⅱ'.

불심시심 〈126〉

얼굴 빛 어린이 되다

坐處凌雲頂 (좌처능운정)	앉아 있는 곳 구름 이마 누르고
歸程踏鳥空 (귀정답조공)	돌아갈 길은 새나 밟는 허공이지
倚笻仍石上 (의공잉석상)	지팡이 의지하여 바위 위에 서서
回首更山中 (회수갱산중)	머리 돌리면 다시 산속일세
落葉看流水 (낙엽간류수)	지는 잎에 흐르는 물 살피고
疎鐘記晩風 (소종기만풍)	성근 종소리 늦바람임을 알겠네
遲來留靜界 (이래유정계)	요사이 고요한 세계에 머물러 있어
頹髮覺成童 (안발각성동)	안색이나 모발이 어린이 됨을 알겠다.

'봉황 보금자리의 깊은 삶(鳳棲幽居)'이란 장원대사의 시이다. 높은 산 깊은 산중에 살아, 순진한 동심으로 되돌아감을 은연중에 강조한 시이다. 사는 곳의 깊숙함이 얼마인가. 구름을 능가하는 자리이다. 어찌 사는 환경만이 그러랴. 삶의 기개가 그러하리라. 이것이 스님들의 기상이다. 가는 길은 새나 날수 있는 허공이다. 시구는 새의 허공을 밟는다 하였다. 어떻게 허공을 밟을 수가 있는가. 일상적 상상에는 용인키 어려운 수사다. 신선에게는 날다(飛)의 접두사를 인정하여 비선이라고도 하니, 신선의 경지라 해 둘까.

가던 길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하니,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고 보면 역시 바위 끝이다. 머리 돌려 살펴 보면 또한 산속이다. 이것이 지금 삶의 깊이이다. 여기서 '다시(更)'라는 한 단어의 묘미를 살필 일이다. 산을 벗어나는가 하여 돌아보면 다시 산이다. '깊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이런 단어선택의 묘이다. 이것이 시인의 수사적 우월성이다.

땅 위에 지는 잎은 지고 나면 잘 보이지 않고, 흐르는 물은 흐름의 실체를 시선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낙엽과 유수가 만나면 두 실체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물에 떠 있기에 지는 잎이 분명하고 잎이 떠 있기에 흐르는 물의 이동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낙엽에서 유수를 본다는 경범함이 시의 무미성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종의 울림에 시간과의 함수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늦종(晩鐘)'으로 대유되는 사원의 종은 바로 종교적 심원을 울려주게 한다. 여기에 늦저녁 바람기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조용한 경지 이것이 요즘의 삶이다. 여기서 지내는 세월은 속가의 시간과는 역행되는 시간이다. 어린이로의 환원이 성불의 또 한 좌표가 아닌가. 이증찬 〈동국대 교수〉

탱화인생 60년 회향

고재석스님 첫 불화전

광주 남도예술회관, 29일~5월 3일



29일부터 5월3일까지 광주 남도예술회관 1층전시실에서 열리는 '낭월 고재석스님 불화전'은 재석스님의 탱화그리기 60년 인생을 마무리하며 여는 첫 전시회.

15세에 당시 최고 금어였던 김일섭스님(86년 입적)을 만나 탱화를 시작한 재석스님(75·전남도 무형문화재 탱화장 31호)은 개성 안화사 대작불사를 시작으로 순천 송광사, 제주 관음사 등 전국의 크고작은 사찰을 두루 돌며 불화를 그려낸 금어(金魚)이다. 지금까지 스님이 완성한 탱화는 전국사찰에 5백여점이 넘지만 스님은 잘 안 알려져 있었다. 산사에 묻혀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한 조카가 81년 스님몰래 제10회 불교미술대전에 후불탱화를 출품, 입상한 게 알려진 내력의 전부일 정도로 초야에서 탱화에만 정진해 왔다.

"탱화의 생명은 정성입니다. 원래 탱화란 신령들이 그려야 하는데 하물며 범인(凡人)들이 그리는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부처님께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탱화엔 신기로운 영기가 서려 있어야 합니다."

달마도 사군자 글씨에도 능한 재석스님은 이번 전시에 맞춰 화력(畵歷) 60년을 한데 모은 불화집도 발간한다. 〈석〉

"용성스님 음악으로 환생"

국악교성곡 '용성' 23~25일 국립극장서 공연

민족의 독립과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에 앞장섰던 용성스님이 음악으로 되살아난다. 국립국악관현악단(단장 박범훈)은 23~25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국악교성곡 '용성'을 공연한다. 도문스님(대성사 조실)의 원작을 목정배교수(동국대)가 작시하고 박범훈교수(중앙대)가 작곡한 '용성'은 서곡, 서가, 탄생, 어린 시절, 출가, 에불, 시련, 삼일운동, 나라는 어디가고, 대각운동, 왕생가, 깨침이여 밝음이여, 불타성지 가꾸어가세 등 1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음악 서사시이다.

이번 공연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70여명의 단원과 50여 국립합창단원, 한마음선원 대각사 불광사마하보디 삼보사 합창단, 중앙불교합창단 등 연합 합창단과 법현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 안숙선 김성녀 유희성 씨 등이 솔로로 출연하는등 총 7백여명이 무대를 장엄한다.

이번 '용성' 공연은 극적인 장면에서는 연극적 요소를 가미, 입체적인 볼거리를 연출하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관객들도 함께 합창에 참여하며 휘나레를 장식한다. 공연시간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02)274-1151

3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정현종 시인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스님)가 주최하는 제3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정현종시인(60·연세대 국문학과 교수)의 '새여 꽃이여'가 선정됐다.

'새여 꽃이여'는 시인의 불교적 화두라 할 수 있는 '침묵'과 '무언'을 더 깊게 심화시켜 사람의 말과 움직임을 넘어선 지점에 시적 영역을 확보하고 삶과 자연을 일체화시키려는 시인의 몸놀림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무게를 안겨준다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8일 오후 5시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거행됐다.

새여 꽃이여

새가 울 때는
침묵
꽃이 피어
無言

새여
너는 사람의 말을 넘어
거기까지 갔고
꽃이여
너는 사람의 움직임을 넘어
거기까지 갔으니

그럴 때 나는
항상 조용하다
너희에 대한 한탄을
너희의 깊은 둘레를
나는 조용하고 조용하다



'부처님일대기' 완창

안숙선씨, 26일 도안사

명창 안숙선씨(국립창극단장·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가 26일 안성 도안사(주지 송암)에서 부처님일대기를 판소리로 완창한다.

김재영법사(동덕여고)가 쓴 대본을 토대로 한 이번 판소리 '부처님일대기'는 부처님의 전 생애를 '강생' '고뇌와 출가' '고행과 항마성도' '전법륜' '대열반' 등 다섯 대목으로 나누어 2시간 30분동안 부르게 된다. (0334)676-8700

부루나합창단 발표회

수덕사포교원 광명 서천사(주지 진석)는 26일 오후 3시부터 광명1동 새마을금고 2층 강당에서 제2회 부루나합창단 발표회및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부루나합창단은 찬불가를 음성공양하고 도신스님, 이청훈, 안충근, 강상영씨 등 7수들이 초청공연하며 강정균씨가 관토마임을 벌인다.

문화상품권 '불티'

영화와 연극 미술 비디오 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의 인기가 점점 치솟고 있다. 상품권 관리회사인 한국문화진흥에 따르면 3월 15일 첫 발매후 4월 15일까지 한달동안 무려 33억원어치가 팔렸으며 자동차·전자·생명보험 회사 등이 대량구매를 하고 있고 결혼식의 하객들에게 주는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는 것.

문화상품권은 현재 전국의 주요 영화관 공연장 음반 비디오판매점 등 3천5백여개 가맹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불교전문서점인 책방 여시아문(02-737-0695)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문화 단신

광주불방합창단 공연

광주 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개국 3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함께 합창단 창단 발표회를 갖는다. 24일 오후 7시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 기념법회 2부 광주불교방송 합창단 발표회로 진행된다.

광부불교방송 합창단은 현지스님이 단장, 모채남씨가 지휘를 맡고 있으며 5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참회합니다' '보리심' 등 10곡의 찬불가를 발표한다.

IMF 시대의 가정 상비약!!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남산 스님의 파스요법

1,000원만 가지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고통 없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신국판/10,000원

아무리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도 파스를 붙인 후 3분이면 뚝!

술을 마신 다음 날 주독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설사와 몸살도 파스 한 장이면 말끔!

오래된 위장병도 파스
요법 15일이면 통증이 싹!

잠 못 이루는 불면증도 파스를 붙인 후
20분이면 잠들게 하는 신비한
비법을 알기 쉽게 공개합니다.

명상
TEL 733-4277
FAX 733-4279

각 질병에 대한 파스 요법의 실체

■ 소화기 질병 12종
신경성 위장병 / 위 궤 양 / 위십이지 궤양 / 설 사

■ 호흡 순환기 질병 8종
기관지 천식 / 중 이 염 / 감 기 / 두 통

■ 비뇨기 질병 12종
당 뇨 병 / 생 리 통 / 발기부전 / 변 비

■ 신경계 질병 28종
어깨의 통증 / 좌골 신경통 / 만성관절 류마티즘 / 치 통

■ 기타 질병 15종

■단체 강연 및 개인 강연회 참석요청이 쇄도하고 있사오니 2주일 전에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TEL 733-4277~8 / 전화주문시 발송료는 출판사에서 부담합니다 외환은행 022-13-440647-8 예금주 이영기

불교TV 아카데미 강의 요약

화제의 책

화엄의 세계 해주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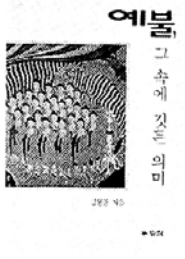
〈화엄의 세계〉는 동국대 사회교육원과 불교TV가 공동으로 개설해 방영되고 있는 '동국 TV 불교아카데미'에서 해주스님(동국대 교수)이 '화엄사상의 세계'를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해 묶은 책이다.

〈화엄경〉은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행형태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경전으로, 여기에서는 화엄경의 중심사상, 화엄경을 교의로 한 화엄종의 화엄사상, 한국의 화엄사상, 화엄경의 편찬·유통과 화엄종이 형성되기까지의 역사, 화엄경으로 수학하고 신행·증득해가는 화엄의 수증론(修證論) 등을 살피고 있다. 불교TV를 시청하는 불자들은 물론 화엄경을 강의하는 법사나 스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엮어졌다. 〈민족사, 8천5백원〉

사찰의식의 방법·의미 쉽게 풀이

화제의 책

예불, 그 속에… 김현준 지음



'제가 지금 맑은 청정수를/감로의 차로 변하게 하여/불법승 삼보전에 받들어 올리오니/원컨대 어여삐 여겨 거두어 주소서' 새벽예불문의 다게(茶偈)로 자신이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발원을 담은 것이다.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는 사찰의식의 시작인 도량석에서부터 법종, 법고 등 사물을 치는 까닭, 계율과 선정, 향공양을 올리는 까닭, 해탈지견의 오분향에 깃든 의미, 지심귀명례를 이루는 방법 등 예불문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상세히 풀이하고 있어 예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밝히고 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김현준씨는 공부하는 자세로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효림, 5천원〉

죄와 번뇌에 대한 종교적 시각차

화제의 책

…예수와 선 세이이치 지음



인간은 죄인 또는 번뇌로 가득찬 존재이므로 오로지 신앙에 의해 구원이 가능하다. 바울과 정토불교는 똑같이 인간의 죄성과 번뇌성을 강조하고,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신앙에서 찾는다. 예수와 선은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은 경지를 말한다. 예수는 역사와 전통, 구약에 의거하지 않고 사랑과 구원을 말하며 선은 불립문자를 내세워 어떤 경전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유와 깨달음을 말한다. 도서출판 대원정사의 불교와 기독교 대화총서 제8권인〈바울과 정토불교, 예수와 선〉 그러나 서로간의 공통점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바울의 기독교는 공동체에 중심을 두지만 정토는 개인의 번뇌와 죄를 문제로 삼는다. 저자는 "예수에게는 신학도, 신조도 없다. 이 점에서 선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원정사, 8천5백원〉

"출소자에게 책을 보냅시다"

갱생시설에 도서관 마련 삼중스님

권당 1천원씩 보답



"출소자들에게 책을 보냅시다." 삼중스님은 요즘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한다.

삼중스님이 책을 보내자고 하는 곳은 갱생보호관리공단 부산지부. 현재 50여명의 출소자들이 이곳에 있는데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일자리는 없다보니 '밥 때'만 기다리는 지경에 처해 있다. 문제는 6개월 이내에 이곳에서 독립해 나가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적응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도 사회로 복귀해야 하고, 그럴 경우 다시 범죄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는 것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되돌아 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요." 스님은 부산지부에 요청해 이미 도서관을 마련해 놓고 책 1만권을 채워 6월말경 개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3개월전부터 지금까지 모은 책은 모두 1천5백여권으로 목표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스님은 불자들과 교계 출판사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책을 내놓는 출판사에는 종이값에도 못미치겠지만 권당 1천원의 감사표시를 할 생각입니다. 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면 이처럼 큰 포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02)593-2883·2842
(051)467-7642, 505-0301

아동기 창의적 교육법 제시

대원스님 '불교 아동학 개론' 펴내





학계에서조차 '불교 아동학'이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불교계의 전문적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대원스님(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이 펴낸 〈불교 아동학 개론〉은 '불교 아동학'에 대한 최초의 개론서이자 '불교 아동학'을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확고히 굳혔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불교 아동학'에 대한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국내 아동학 연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1부에서 불교 아동학의 개념과 불교적 아동관, 불교의 전통 아동교육, 삼학과 사섭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 및 내용 등 불교 아동학 이론 전반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명절 및 행사, 불전 설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불교 아동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아동을 태아기로부터 아동의 인격을 인정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파악하며, 자신의 의지로 능동적인 발달을 이룩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

즉, 화엄경의 주인공인 어린 선재의 구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에게는 보호와 교육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의지와 창의성으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 초점이다.

종교적 경험 유도로 인성발달
사찰 아동교육의 중요성 강조

아동이 불교개념 획득을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이며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특성의 내적요인과 부모나 가족 고사 등의 외적요인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적합한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불교의 교육내용으로는 팔정도와 사섭법, 육바라밀과 삼학 등이 있는데, 이를 경전에 나타난 불교적 교육방법인 문답형과 비유적인 방법, 인과관계를 통한 방법 등을 통해 교육할 경우 교육내용이 목표로 하는 자아완성과 이상 실현을 위한 이상적인 불교교육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불교 아동학을 '종교적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동기에 불교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불타가 되도록 조력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미래 불교 아동교육의 방향도 현대 아동교육과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컴퓨터 세대에 발맞춘 불교 아동교육의 정보화도 꼭 필요하다는 제언도 잊지 않고 있다.

한명우 기자

"불상양식의 전환점 6세기 후반"

정예경씨 '중국 북제·북주 불상연구' 펴내



〈중국 북제·북주 불상연구〉(혜안 刊)는 우리 불상조각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국의 불상조각, 특히 북제·북주기의 조각을 면밀히 분석한 미술사 저작이다.

6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기존의 회화적·추상적 전통양식에서 벗어나 조소적·현실적 변혁양식이 등장한다. 북제·북주 불상조각이 그것으로, 이 흐름은 당나라 조각에서 정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북제·북주 불상조각은 북위로부터 시작된 중국조각사의 내적인 발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 정예경(동국대 강사)씨는 북위·북주 불상조각이 장신구와 신체표현상의 특징을 세밀히 분석해 인도·동남아 불상조각에 나타나 있는 형태 및 비례관계가 채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북주·북제 불상조각이 양식적인 원류로 삼은 것은 인도 불상조각 가운데서도 남인도 불상조각임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인도의 굽타조각으로 여겨져 왔으나 저자는 이 굽타조각의 영향은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인도 및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의 불상조각 역사와 전개과정과 여래상의 착의형식을 통해 북제·북주불상조각에 보이는 동남아시아적 모티프(장신구)를 분석하는 한편, 여래입상, 여래좌상, 보살상을 통해 북제·북주 불상양식의 모방양식과 변형양식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보여준다. 각 불상의 사진자료와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2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불교입문	조계종권장부	조계종출판사
5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6	알기쉬운 불교 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불교방송
7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8	참선교육	현 담	조계종수선회
9	장가 안가길 잘했네1	우 학	좋은인연
10	불경과 성경 왜 이렇게 같을까	윤 청 광	서울출판미디어

구입문의:(02)737-0695

해외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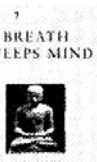
믿음없는 불교



"세계 주요 종교들이 교리(敎理)적 지혜만을 가르치고 있는데 반해 부처님의 지혜는 교리의 한계를 벗어나 모든 인간을 향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불교학자 스테판 백첼러가 최근 펴낸 〈믿음없는 불교(Buddhism Without Beliefs)〉는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재해석,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한 안내서.

백첼러는 종교적 신비감을 제거하고 생활 속에서 수행불교의 터전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美 Riverhead Books 刊. (144 pp. ISBN 1-57322-058-2)

마음을 씻어내리는 숨결



미국불교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의 개인적 경험과 수행을 소개한 명상집 〈마음을 씻어내리는 숨결(Breath Sweeps Mind)〉이 최근 출간됐다.

"개인과 우주의 사유를 깊게 만드는 방편이며 인간의 고귀한 영혼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황금실"이라고 명상을 정의하고 있는 저자 진 스미드(Jean Smith)는 이 책에서 틱낫한 스님(베트남), 그레이 스나이더(美·시인), 존 카바진(美·소설가) 등 미국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준 20여명의 생애와 수행을 소개하고 있다. 美 Riverhead Books 刊. (289 pp. ISBN 1-57322-6-533)

불교 사문자 숙어사전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사자성어(四字成語)를 목록화한 〈불교사문자숙어사전(佛敎四文字熟語事典)〉 상·하권이 발간됐다. 저자는 스도오류센(須藤隆仙·日 정토종 칭명사 즈지). 책의 구성은 해당 사자숙어를 의역하여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어 '자유자재'는 '자유는 해탈하여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는 경지, 자재는 마음 그대로의 상태로 사로잡힘이 없는 느긋한 상태'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일본 각 종파에서 나온 숙어 등 1천여개가 수록돼 있다. 日 新人物往來社 刊. (상 264p 하288p)

제2회 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I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포교 전문화-세분화 시급

東大 불문硏 세미나 '고학력시대 불교의 진로'

고학력자의 불교신도 비율이 기독교(개신교+천주교)에 비해 세 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난 이번 갤럽조사는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고학력 지성인 층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포교대책이 시급함을 반증하고 있다.

고학력으로 갈수록 불교신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김용표 교수는 "한국의 고학력층이 기독교에 편중되고 있음은 기독교가 서구의 신문명과 동일시 되고, 불교는 민속신앙의 한 유형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종교적 제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고학력층이 높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한국불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론개발에 노력한다면 고학력 불자 배양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수준 별 종교인 분포 〈단위 %〉

교육정도	조사년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대졸이상	1989	13.3	24.9	8.7	53.1
	1997	10.8	23.1	9.8	56.3
고졸	1989	16.2	20.8	9.5	53.5
	1997	13.5	20.8	8.0	57.7
중졸	1989	20.6	16.8	5.5	56.1
	1997	21.6	16.8	5.4	56.2
초등졸 이하	1989	31.1	15.5	5.0	47.9
	1997	39.3	14.7	5.0	41.0

주는 학력별 종교성향은 학력별 특징에 따른 포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며 "과반수 이상에 달하는 대졸 무종교자와 서구 종교의 한계에 직면한 젊은 지성층의 불교성향을 인식, 이들에 대한 포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기종 교수 "기복벗어나 교리 근거 전법"
목정배 교수 "사찰을 茶談대화의 장으로"
법산 스님 "법회의식 한글화 · 대중화"

김교수는 "조사결과 교육수준이 높다고하여 종교에 대한 믿음이 깊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저학력계층이 '가슴의 종교성'을 나타낸다면 고학력층은 '머리의 종교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기복에 치우친 한국불교의 방향수정과 계층에 맞는 포교의 전문화 · 세분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계자료가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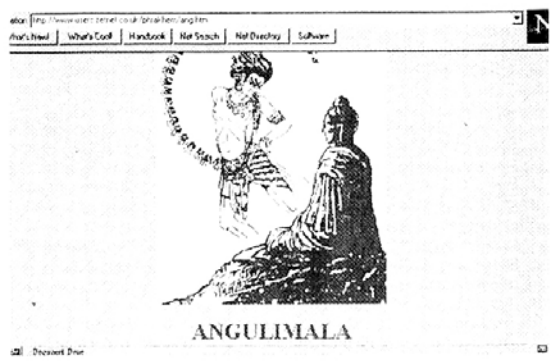
권기종 교수(동국대 불교학부) 역시 "고학력시대를 불교가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예의 기복적, 비논리적 포교방식 보다는 불교이론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교수는 기복적 의식(儀式) 등 한국불교의 구태의연한 관습을 지적하며 "이제는 일방적 주입과 추종으로는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이끌 수 없는 만큼 이성과 지성이 전제되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목정배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고학력자를 위한 불교 교육방안'과 관련, "고학력 지식인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투영시킴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사찰을 다담대화(茶談對話)의 장으로 개방 △도심 포교당의 활용 등을 제시했다. 목교수는 "지식인의 높은 교육수준이 불교의 무애자재관을 통해 재창출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고학력시대의 불교의식과 수행'에서 "의식은 현대화 · 한글화하여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성스럽고 엄숙한 분위기는 꼭 지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의식의 개선점으로는 △한글 법요집의 활용 △대중적 법회의식 △의식교육 등을 지적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봉축기념으로 마련하는 '고학력시대 불교의 진로' 주제 세미나는 23일 오후 1시30분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개최되며 서윤길(동국대 불교학부) 박선영교수(동국대 교육학과) 공종원씨(조선일보 논설위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정은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앙굴리마라

'앙굴리마라'(http://www.users.zetnet.co.uk/phrakhem/ang.htm)는 영국불교계의 대표적인 교도소 법당기구로 지난 14년간 죄수들이 부처님 정법을 만나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포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돕고 있다.

1985년 2월에 설립되어 영국에서 교도소 봉사에 관한 불교계의 공식적인 대표기관으로 인정받은 앙굴리마라 사이트는 △귀족교도소(Her Majesty Prisons)내 불교의 가르침이나 수행에 활용할수 있는 모든 시설 △교도소내 불교포교사나 카운셀러 교육 프로그램 △석방된 죄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갱생(更生)지도와 조언 서비스 △불교자문단 활동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앙굴리마라'는 팔리경전에 등장하는 바라문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후 부처님을 만나 귀의한 인물이다. 스승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은 앙굴리마라가 유혹을 거절하자, 스승의 아내가 "앙굴리마라가 유혹했다"며 모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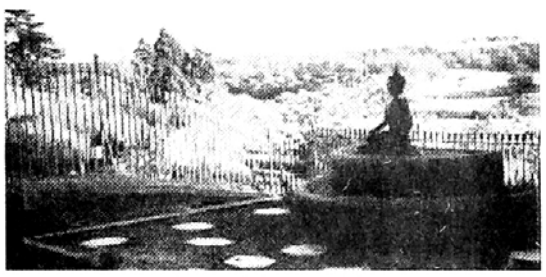
스승은 아내의 모함을 믿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천 사람을 죽여 그 손가락 천 개를 모아 목걸이를 만들어 돌아오면 법을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앙굴리마라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9백99명을 죽이고 자신의 부모마저 죽이려다가 부처님을 만나 정법에 귀의했다.

70년대 후반 태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뒤 교도소 교화분야에서 꾸준히 일해온 아잔 케마다모(Ajahn Khemadhammo) 스님은 앙굴리마라처럼 교도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야 한다는 뜻에서 단체이름을 '앙굴리마라'라고 했다. 현재 이 단체는 서구불교도우의회(회장 상가라크 쉬타), 파 산티 다마사원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영국 교도소 법당기구 14년간 부처님정법 전달 죄수들에 참회의 삶 심어

현재 앙굴리마라 회원들은 △불교경전 · 시간 · 금전의 보시 △죄수들과의 펜팔 친구로서의 활동 △죄수 교화 관련 저술 활동 △교도소의 죄수 방문 △죄수들의 출옥후 지속적인 갱생지도에 대한 도움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의 봉사활동 체험담과 앙굴리마라 회원 의무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재소자들은 불교를 학문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어 앙굴리마라에서는 불교통신강좌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강의테입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영국 스프링힐 교도소 내의 불상.

학술단신

'현대사회와 불교' 특강

동국대 사회교육원(원장 권기종)은 5월2일 오후 2시 동국대 90주년학술기념관에서 '현대사회와 불교윤리'를 주제로 공개특강을 갖는다. (02)260-3727

'사찰조경연구' 5집 나와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는 최근 〈사찰조경연구〉 5집을 발간했다.

지난해 11월 세미나 발표논문 △사찰의 연지(蓮池)에 관한 연구 △한국 전통사찰의 경관에 대하여 등 5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불교연구' 15집 발간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본 대승불교윤리의 조명(허남결 · 동국대) 등 6편의 논문과 작년 국제불교학술회의 발표논문 4편을 수록한 〈불교연구〉 제15집을 발간했다.

'유식학' 등 수강생 모집

대승불교연구원(원장 오형근)은 '유식학 개론'과 '불교학 개론' 강의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며 3개월간 진행된다. (02)264-7120

전생퇴행요법 첫 '공개 워크숍'

신경정신과의 12명 참석 "임상연구 분야일뿐"

지난 96년 〈김영우와 함께하는 전생여행〉(정신세계사)이란 책을 통해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에 의학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전생퇴행요법'에 대한 공개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 분석 및 임상실험최면학회'(가칭)는 11~12일 신경정신과등 전문의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전생퇴행요법에 대한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학회의 공개활동은 '전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인 연구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임상실험최면학회'는 96년 8월19일 연구모임이 결성됐으나 공개 워크숍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

김영우박사는 강의를 통해 "전생퇴행요법을 환자의 현재증상이나 문제의 원인을 출생이전의 전생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전생의 경험과 기억속에서 찾아 해결하는 기법"이라고 정의했다.

김박사는 "전생요법은 불교등 특정종교의 견해를 뒷받침하거나 옹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임상연구분야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재〉

'이동인스님 자료집'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불자모임 발간 준비

조선말 개화승 이동인(李東仁)스님(생몰연대 미상)의 사상과 삶의 발자취를 재조명한 자료집이 곧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불자모임 '심월회(지도법사 조정봉)'는 오는 6월 서울 신촌 봉원사에 이동인스님의 동상건립과 함께 자료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동인 스님은 1879년 개화사상이 대두될 당시 서재필 등과 함께 활동했으나, 그동안 출생연대나 업적등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역사적 자료가 없어 올바른 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동인스님 자료집〉은 방송작가 신봉승씨 등으로부터 고증을 받을 계획이다.

訃音

"美 건국이념 · 헌법정신 부처님 가르침과 일치"

써먼교수 신작 '내면의 혁명'서 지적


◇써먼교수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영향력 있는 미국인 25인' 중의 한 명인 로버트 써먼교수(콜롬비아대)가 "미국의 건국 이념과 헌법정신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고있다.

3월 발간된 〈내면의 혁명(Inner Revolution)〉(美 Putnam Pub Group 刊)에서 이같이 지적한 써먼교수는 "미국 시민혁명 사상은 △부(富)의 재분배 △실용주의 △지방분권 △사회 · 개인의 유연한 교감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상은 개인, 비폭력, 교육, 사회, 복지를 중요하게 다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써먼교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불교사상이며, 이것은 미국인이 위대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로부터 최초로 수계를 받은 미국인으로 널리 알려진 써먼교수는 티벳-인도학을 전공하며 〈티벳의 철학〉 〈티벳 사자의 서〉 〈티벳불교〉 등을 저술 · 번역한 국제적인 학자.

대만 사회안정 법회 봉행

티벳서 부처님 치아사리 봉송 안치

대만 정부는 티벳에서 모셔온 부처님 치아사리가 도착한 11일 사회의 안정을 기원하는 대규모 법회를 봉행했다. 2만여 대만 불교신도가 참여한 이번 법회에서 부통령 리엔 찬(連戰)은 "부처님 치아사리는 대만 사회에 만연한 폭력를 평화로 이끌고 자비와 이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치아사리는 티벳의 린포체 쿤카 돌제(Kunga Dorje)가 대만 정부에게 선물한 것으로 사리를 운반 · 안치한 성운스님(불광사)은 "현존 치아사리는 3~4개로 알려졌지만 세계에는 더 많은 수의 치아사리가 봉안됐다"며 "치아사리의 진위를 따지는 자체가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했다.

150,000字의 名蹟을 集大成한 完璧한 大字典

국내 최고의 서예대가 여초 김응현 선생의 체본을 수록한 서예법첩

如初 金膺顯先生 古稀紀念 書集 全四卷 !!

書道大字典

文字學 · 篆刻 · 史學 · 建築學 · 畵學의 必須 字典

書藝의 敎本



4×6배판 2800쪽 특가할인 상한가 100,000원

주문 : 722-0861~3

正統 書藝의 硏究에!!
格調 높은 글을 쓰는데!
集字를 하는데 필수 字典!

東方書範 (1집) 1~10



구입 및 문의처
0 화경영연구소
출 판 영 업 부
T. 02)730-6685~6
F. 02)735-9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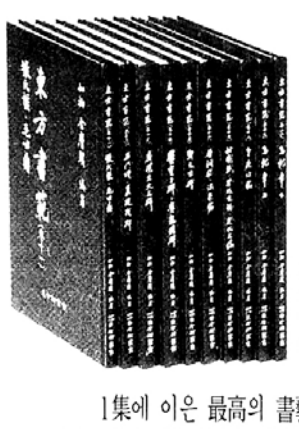
여초김응현 편저/
국배판/
제1집 전10권/
값250,000원

國內 最高의 書藝大家 如初 金膺顯 선생의 체본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제1집(1권~10권의 내용)

第一卷 正音(國文 : 飛本體 宮體)
第二卷 石鼓文 泰山刻石 琅邪臺刻石
第三卷 繹篆體 (제기)
第四卷 禾量體 乙瑛碑 (장천비 일명비)
第五卷 禮器體 (장경비)
第六卷 古華嚴字聖敎書(上) (화엄경자성교서 上)
第七卷 古華嚴字聖敎書(下) (화엄경자성교서 下)
第八卷 曹全碑 (조전비 일명비)
第九卷 書 論 (上) (서론 상)
第十卷 書 論 (下) (서론 하)

東方書範 (2집) 11~20



여초김응현 편저/
국배판/
제2집 전10권/
값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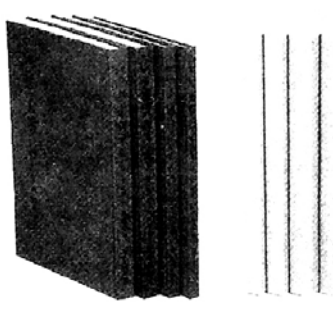
1集에 이은 最高의 書藝 敎本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한 각종 비문 收錄!!

제2집(11권~20권의 내용)

第十一卷 散氏盤 毛公鼎 (산씨반 모공정)
第十二卷 石鼓文 虞世南碑 (석고문 우세남비)
第十三卷 孟法師碑 (맹법사비)
第十四卷 夏承碑 (하승비)
第十五卷 郙閣頌 (예각송)
第十六卷 曹全碑 (조전비)
第十七卷 張猛龍碑 (장맹룡비)
第十八卷 爨龍顔碑 (찬용안비)
第十九卷 爨寶子碑 (찬보자비)
第二十卷 爨龍顔碑 (찬용안비)

문의 : 722-0861~3

如初金膺顯手墨



如初金膺顯 著 8절판 150페이지 올컬러 최고급양장제이스 각권30,000씩내외 전7권 420,000원

詩 · 書에 묻혀 살아오신 如初先生님의
七十餘 星霜이 이 書集에 담겨있다.

완벽한 作品解說! 올컬러로 編輯하여 作品의 생생함을 한층 높였고 大規模 作品만도 數十點에 달해 과히 國內最高의 超大型 作品集이다

이화경영연구소 : 722-0861~3

주요내용
1종 天 編 91년국전출품작부터 년대순으로 나열
2종 地 編 96년작품까지 모두 나열하였음
3종 人 編 도지기 비문, 전란 주련, 인보등
4종 特文編 모든작품을 쉽게 해설하였음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49

육조의 깃발

*바람이 절의 깃발을 울리고 있었다. 이를 두고 한 승려는 깃발이 펄럭인다 하고, 또 하나는 바람이 펄럭인다 했다. 둘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자, 육조가 말했다.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너희들의 마음이 펄럭일 뿐이다." 두 승려는 이 말에 흠칫 놀랐다.

*나 혜개가 말한다.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또한 마음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서 육조의 뜻을 볼 것인가. 만약 여기서 절실한 파지가 있다면 알게 될 것이다. 두 승려가 철을 팔아 금을 얻으려 하고, 육조는 참을성 없이 끼어들어 결국 한 바탕 코메디가 벌어진 것을."

*송하여 가로되, "바람과 깃발, 마음의 펄럭임은 한 줄로 엮여 있다. 다만 알지니, 입을 열면 덜컥 낭패한다는 것을."

非風非幡:

六祖, 因風 刹幡, 有二僧對論. 一云, 幡動. 一云, 風動. 往復曾未契理. 祖云, 不是風動, 不是幡動, 仁者心動. 二僧悚然. 無門曰, 不是風動, 不是幡動, 不是心動, 甚處見祖師. 若向者裏, 見得親切, 方知二僧買鐵得金, 祖師忍俊不禁, 一場漏逗. 頌曰, 風幡心動, 一狀領過. 只知開口, 不覺話墮.

혜능이 5조의 인가를 받아 남쪽으로 내려온 경



그림 · 이준석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무아(無我)의 교설은 석존의 깨달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아비달마의 다르마(法)론에서 대승의 중관과 유식을 거쳐 선과 탄트라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관통하고 있는 근본 정신이다.

바람과 깃발을 가른 것은 육조의 질타대로 "너희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대상은 자아의 활동에 의해 비로소 정립된다! 그때 "바람과 깃발, 마음의 펄럭임은 한 줄로 엮여 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 집단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같은 인식과 관단의 구원론적 의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것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를 권한다. 〈대승기신론〉은 불과 몇 페이지 안에 불교 교학의 전통을 군더더기와 수사는 잘라내고 골격만 남겨놓은 불교의 문법이자 설계도이다. 원효는 소외와 고통의 메카니즘을 미세한 것과 거친 것으로 나누었다. 거친 것은 드러나 있지만 미세한 것은 감추어져 있다. 거친 것의 근원인 미세한 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명상과 수행의 힘이 필요하다. 빛을 꺾어 돌아보고(廻光返照) 시선을 거두어 발 밑을 돌아보아야 한다(照顧脚下). 그때 사바의 질펀한 고통과 소외를 몰고오는 인간의 뿌리깊은 사고습관의 정체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다. 관(觀)!

직접 보는 것만큼 커다란 믿음이 없다. 그것이 해방에 이르는 발판이다. 자의(恣意)와 편견의 훈습을 넘어 무분별(無分別)의 지혜를 터득할 때, 혜능이 처음 듣고 발심한 〈금강경〉의 그 말 "마음을 머무는 바 없이 낸다(應無所住 而生其心)"가 구현된다. 그곳은 정지된 세계가 아니라 부단히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며, 거기서는 바람과 깃대와 마음이 더 이상 분리된 파편이 아니라 혼돈(混沌)의 연속체로서 드러난다. 분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는 구분되지 않는다. 혜개가 말한 "바람도 깃발도 마음도 펄럭이지 않는다"가 바로 그 궁극의 자리를 가리킨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잎을 떨군다(春有百花秋有月). 인간 또한 그를 닮아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운다. 그것뿐이다. 만일 이 우주적 무도(舞蹈)를 인식의 대상으로 확인하고 언어를 통해 박제화하려는 순간, 그 전일적 통일성은 사라지고 우리는 "피에 젖은 한 마리 새"만을 거머쥐게 된다. 그 역설이 불교변증의 원천이고, 선의 역설을 읽는 관건이다. 그렇다면 육조는 끝끝내 승려들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그만 참지 못하고 훈수를 두는 바람에 한마당 코메디가 널어졌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바람 · 깃발 · 마음도 펄럭이지 않아

"거친것의 근원인 미세한것을 들여다 보자"

"진실하고 평온한 말을…"

책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8

정어 ①

탐욕 · 증오 · 망상 없는 조화로운 마음에서 평화 · 자비 · 지혜 생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과 달콤한 사랑을 원한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자라기 보다는 이상주의자의 태도일 뿐이다. 수행자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단지 보고, 경험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슬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주저없이 나아가야 한다.

부처님은 "깊숙한 내면의 조화로운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길이 마음의 길이며, 이것이 바로 마음을 세우는 것"이라며 '마음바로 세우기(The Uprightness of Heart)'가 팔정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가르쳤다.

가까운 시골에 사는 노보살이 아잔차 스님이 머무는 왓빠뽕 사원에 참배하러 왔다. 노보살은 아잔차 스님에게 잠시밖에 머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손자를 돌봐주기 위하여 집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보살이니 짤막한 법문을 해줄 수 있는지를 청했다.

아잔차 스님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뿐이예요. 삼라만상 가지각색 요소들이 제멋대로 나타나고 있을 뿐, 여긴 비어 있어요. 법의 언어, 마음의 언어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짐을 지고 나를 때는 짐이 무겁지만 짐을 나를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지요. 선이든 악이든 무엇이든지 구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되지도 마십시오"

마음의 길은 조화로워야 한다. 조화롭지 못한 마음에서는 평화, 자비, 지혜가 생겨나지 못한다. 또 우리는 조화롭지 못한 곳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자연법에 갈등하고 고통 당하기 쉽다.

마음의 길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조화란 바로 탐욕, 증오, 망상이 없는 경계를 일컫는 것이다. 삼독이라 불리는 이것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많은 해를 끼친다.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분명히 기분은 나빠지고 때론 심적 고통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느낌을 뒤늦게 받을 때, "이 업(業)은 후일에 내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조화로운 삶에는 우리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담겨있다.

즐겁고 기쁜 업은 진실하고 평온하고 고결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언행(言行)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난다.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싶어했다. 마침내 그는 승단을 이끄는 한 스승을 찾아갔다.

"수 세대를 거치는 동안 제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른들도 젊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깜짝 놀랐다. 스승에게는 어린 나이로 죽은 아들이 있었고, 그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슬픔을 가라앉힌 기억이 있었다. 이 일에 호기심을 느낀 스승은 젊은이 가족을 방문해 아버지를 만났다. 스승은 "당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급살(急殺)했다"고 거짓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다. 스승은 뼈조각을 보여주며 "당신 아들의 뼈이다" "어린 양의 뼈군요" 스승은 다급하게 물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읊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달콤하고 진실한 말로 가족의 안부를 묻고 일터로 나섭니다.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타인을 만날 때 마다
정직함과 고결함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젊어서 죽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은 삶 속의 열린 마음, 깨달은 마음, 바로 선 마음을 읊은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번역=오종욱 기자

불교와 수학

52

자기조직

김 용 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7

기계도 변하는 환경 학습통해 적응
수행자 스승 · 도반영향 성자로 발전

컴퓨터는 인간이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생각이 차츰 바뀌어가고 있다.

어느 컴퓨터 전문가는 컴퓨터에 초보적인 지시를 입력하여 작동하면서 차츰 고도의 일을 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러는 동안에 컴퓨터는 뜻밖에도 어느 순간부터 프로그램에 전혀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실험 동물과도 같이 전자 회로의 미로에서 스스로 상황 정보를 학습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생명체라면 스스로 학습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낱 기계에 불과한 컴퓨터가 마치 생명체처럼 임의의 상태에 몇 개의 간단한 규칙을 정해 주면 스스로 고도의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 발견이 요즘 과학계의 최대 관심사인 '인공생명'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실은 생물의 집단적 진화 과정에서는 이미 입증되어 있는 일이다. 생물 집단의 진화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화 한 결과는 이것과 같은 패턴이다.

생물은 환경 조건에 따라 진화해 간다. 맘모스나 공룡 등은 새로운 지구 환경에 어울릴 수 없어서 전멸될 수밖에 없었다. 진화는 스스로 환경 조건을 학습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 가는 일이다. 이와같이 복잡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복잡적응계'라고 한다.

수학적인 입장에서 복잡적응계의 작동 상황을 관찰하여 몇 개의 두드러진 양상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1) 여러 개의 기본 단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움직여간다. 낱낱의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 전체를 움직여 가는 것이 그 좋은 보기이다. (2) 복잡적응계는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계층 내의 각 요소들이 모여 한 단계 위의 계층의 한 요소를 결정한다. 이때 위아래의 계열 전체는 영향을 주고 받아 수시로 행동을 수정, 재조정한다.

이 사실은 인간과 세포, 그리고 세포와 DNA의 계층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 이때의 궤도 수정과 재결합이 '적응'에 관한 기초적인 움직임이 되다.

어느 조직이 스스로 환경 조건을 학습하고 진화해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적응 과정의 한 단면이다. (3)모든 복잡적응계는 미래를 예측한다. 개체나 사회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여, 그것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항상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폐쇄적인 조직체는 복잡적응계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정지상태, 또는 평형이 유지되는 사회에서는 진화, 진보가 없으며 결국 죽음과 같은 상태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쇄국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왕권의 안전만을 위해 바깥 세계로부터의 어떠한 자극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조선 말기의 상황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사실을 개인에 빗대어 말하면 수행자의 길이다.

불교에서의 정진은 항상 스스로에게 자극을 가하며 발전해 가는 과정이다. 특히 선에서는 '사흘을 보지않고 다시 만날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를 보라'고 한다. 단 삼일 사이에도 비약적으로 마음의 세계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경구이다.

복잡적응계는 선택의 범위가 너무 많고, 따라서 그 수만큼의 가능성이 있다. 선택의 폭이 좁으면 각 요소가 균질화되고 경직화된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낱낱의 개체가 혼자서 취할 수는 없다. 가까이 있는 다른 개체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스스로 나아갈 길을 바꾸며 개정(진화)해 가는 것이다.

수행자에게 좋은 스승과 도반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같은 생명의 씨에서 출발한 생명체 가운데, 한쪽은 인류로 진화되었으나, 반대로 바퀴벌레로 남아 있는 종도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대오를 얻어 성자가 될 수도, 또한 지옥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한 뜻에서 복잡적응계는 영원한 짐을 지닌다. 이들의 나이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부처의 자비는 '만물제동 천지동근(萬物齊同 天地同根 · 모든 것은 같고 천지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이며, 돌과 나무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낱 기계에 불과한 컴퓨터에까지 자기적 응이라는 형식으로 미치고 있다. 하물며 인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주변의 환경과 어울려 최고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다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육법공양

"지극정성 부처님 찬탄"

향·차·꽃·과일·등·쌀 '공양'
92년 '육법공양회' 신라전통 재현
불자로서의 바른 삶 보살행 서원



◇육법공양 단체가 200여 사찰에 구성돼 각종 의식을 장엄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애기봉 OP 점등식에서 육법공양회가 육법공양의식을 봉행하는 모습.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장면이다.

12일 부산 KBS홀. 향기로운 잔치가 열렸다.

만개의 등을 밝히고 만송이의 꽃을 피워 시방세계를 장엄하고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려 부처님을 찬탄하는 잔치였다.

경주 동해사(주지 도주)가 마련한 이날 '만등만화 육법공양' 잔치는 만중생의 정성을 담아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고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지혜의 삶을 발원하는 자리였다. 도주스님이 여섯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1백80송이의 연꽃 작약 목단 지화(紙花)가 장엄된 화정(花亭)에 탄생불을 모시고 장중한 음성공양(범패)의 선율 속에 향, 차, 꽃, 과일, 등, 떡 등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리며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서원하는데서 잔치는 절정에 이르렀다.

14일 서부전선 김포 해병청룡부대 애기봉 OP. 북녘동포에게 부처님 오신뜻을 알리기 위해 등탑에 연등을 밝히는 점등식에서도 육법공양 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육법공양회(지도법사 정승연)가 봉행한 육법공양 의식은 조계종 지도자 스님과 해병대 지휘관, 장병 1천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리고 조국 통일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부처님께 깨끗한 공양물을 바치며 인간세상의 탐욕과 분쟁을 소멸시키는 보살행의 주인공이 될 것을 서원했다.

부처님의 위의를 찬탄하고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서원하는 전통 공양의식인 육법공양이 불교계 행사에 필수 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단일 행사로 확대 기획된 만등만화 육법공양 행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육법공양이란 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행해온 불교의 6가지 공양을 뜻한다. 6가지 공양물은 향, 등, 차, 꽃, 과일, 쌀이 보편적으로 쓰인다. 이중 차와 꽃공양의 전통은 다도와 불교 꽃꽂이로 활전되어 별도의 문화 예술적 장르로 발전되기도 했다.

육법공양의식은 92년 10월 육법공양회에 의해 처음 재현됐다. 육법공양회는 강남 구룡사에서 1천80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전통사경법회와 육법공양의식, 도량결계의식을 재현, 신라시대의 불교 전통의식을 되살렸다. 공양회는 호암박물관에 소장된 '대방광불화엄경(국보 196호)'의 말미에서 '연기조사가 국태민안과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대사경법회를 열었으며 이 법회에서 청의동자가 꽃을 뿌려 도량을 청정히 하고 대중들이 향, 등, 차, 꽃, 과일, 쌀의 여섯 공양물을 부처님전에 올렸다'는 기록을 토대로 육법공양의식 등을 재현한것. 이후 각사찰이 육법공양회를 구성해 부처님오신날과 성도재일, 열반재일 등 5대명재일에 육법공양 의식을 행하기 시작 현재는 20여 사찰에 육법공양회가 구성돼 있다. 육법공양을 확대한 만등만화 육법공양 의식은 96년 연화정사 연화플라워회(회장 정명)가 시작하면서부터 불교의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육법공양 의식의 절정인 각 공양물을 올리는 순서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자의 발원을 담은 게송이 범패로 불려지는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육법공양 의식에서는 이 게송을 우리말로 번역해 국악 가락에 얹어 부름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개월간의 준비끝에 12일 만등만화육법공양 법회를 마련한 도주스님은 "참다운 공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정성과 몸이 하나된 자리에서 올리는 공양이야말로 나와 부처님을 하나로 만드는 공덕으로 승화될 것입니다"고 공양의 의미를 전했다.

글=임연태·천미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12일 동해사가 주최한 만등만화 육법공양법회의 관욕의식.



◇5일 설악산 신흥사에서 열린 '국난극복참회대법회'의 육법공양의식. 공양물 입장순서.

공양의 의미
"가르침 받아 지니겠습니다" 감사 표현

부처님을 칭하는 여러 용어 중에 응공(應供)이란 말이 있다. 이는 응수공양(應受供養)의 줄인 말로 부처님은 마땅히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을만한 분이란 의미다. 공양은 윗 어른에게 음식이나 의복등을 바침으로 존경심을 표하고 경건히 가르침을 받아 지닌다는 뜻이다.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공양함으로 법을 전해듣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다.

공양은 2종공양, 4사공양, 10종공양 등으로 나눠진다. 2종공양이란 재(財)공양과 법(法)공양이다. 사(事)공양이라고도 하는 재공양은 물질(향 꽃 등 음식물등)로 공양하는 것이고 이(理)공양으로 불리는 법공양이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다. 4사공양은 네가지의 공양물 즉 음식 의복 의약 침구를 뜻한다. 10종공양은 두가지로 풀이된다. 〈법화경〉 법사품에서는 꽃, 향, 영락, 말향, 당번 등 열가지의 공양물로 설명하고 있고 〈지지경(地持經)〉에서는 신(身)공양, 재물공양 등 열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공양물에 반드시 포함되는 꽃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생담〉에서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이 선혜선인으로 보살행을 닦고 있을때 보광여래가 온다는 말을 듣고 여래께 꽃을 공양하기 위해 꽃을 구하러 다녔으나 이미 왕이 여래께 공양하기 위해 모든 꽃을 사들여서 구할 수 없었다. 선혜 선인은 구리라는 선녀에게 일곱 송이의 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리를 찾아 갔다. 구리는 꽃을 팔 수 없다며 "나와 결혼을 해 준다면 다섯 송이의 꽃을 팔겠다"고 했다. 선혜선인은 구리선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꽃을 구해 여래께 공양했다.

이 이야기가 부처님께 꽃을 공양한 최초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불교식 결혼식에서 신랑이 다섯송이 신부가 두송이의 꽃을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도 이 전생담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육법공양 게송



향공양

마음을 바로하고 원을 세워
삼보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주법계 고루고루 번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회하는 이 공덕
시방세계 불보살님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은 죄
가뭇없이 스러지게 하옵소서.

등공양

밝은 등불 층층이 밝히어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밝은 지혜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차공양

감로다를 다려서 공양하니
사바에 찌들은 죄업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멈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되게 하리다

꽃공양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 향기처럼
대천세계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에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과공양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 스러지도록
불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쌀공양

석가세존 복발을 가꾸셨듯이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 담아서 마지 올리고
그 공덕 법계에 회향하니이다.

※이 게송은 육법공양때 올리는 범패의 게송을 번역한 것으로 각 공양의 부분을 간추린 것임.







IMF터널 봉축경기 작년 절반 수준
실용적 봉축상품 그나마 '효자'

경제난으로 봉축용품 시장 경기가 작년 절반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봉축 상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삼전불사(대표 김상길)는 물이 흘러 넘치고 꽃장엄이 번거로웠던 기존 관욕대의 문제점을 보완한 관욕대를 개발했다. 삼전불사가 새롭게 개발한 관욕대는 물용기를 내장하고 있다. 코끼리 상 앞에 두 마리 용이 물을 뿜는 용천샘이 있어 물을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가격은 36만원. 이와 함께 부처님 탄신 축하용 촛대인 만(卍)자 장엄촛대도 내놓았다. 732-6095

96년부터 캐릭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봉축위원회에서는 올해 캐릭터 상품으로 사파리, 티셔츠, 조끼, 모자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학생용 공책과 엽서, 공중전화카드, 손수건, 컵, 손목시계 등 팬시용품도 마련했다.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캐릭터 용품전문점 견지불교사(739-3032)의 경우 부처님 오신날 뿐만 아니라 여름수련회 및 외국인을 겨냥한 과도타는 동자, 야자수 아래에서 기다리는 아기부처님 등을 담은 티셔츠와 휴대용연꽃등 등을 준비하고 있다.

관음손(대표 강미애)에서는 어린이 용품 위주로 신제품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어린이용 시계 벽걸이, 공책, 가방 등을 주로 기획 제작했다. 720-1147

동구마켓팅(대표 정재성)에서는 퀼더트형 108염주를 개발했다. 108염주는 끊고 강한 의지를 상징하는 호안석, 백수정, 옥등 3가지로 제작됐다. 또 고리부분은 연꽃으로 올마니반메훔 조각을 달고 있으며 뒷면에는 주문자의 생년월일, 생시, 이름을 조각해준다. 수익금의 5%는 불우이웃돕기에 쓸 예정이다. 701-0038

신상품의 다양한 출시에 비해 올 봉축용품 매매 상황은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완성연등의 경우 거의 주문이 없어 재고가 쌓이는 형편이며 소모품인 연잎은 지난해 수준의 판매량을 보여, 대부분의 사찰들이 연등을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봉축리본등 행사용품과 단체주문이 많았던 티셔츠 등에 대한 주문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봉축상품을 취급하는 매장 관계자들은 "올 봉축신상품은 경기침체로 인해 기대만큼 다양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용성과 디자인의 고급화 등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지연 기자



◇삼전불사가 개발한 관욕대.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극락정토의 발원을 세웁니다.
따뜻한 햇살! 밝은 웃음! 튜울립축제!
에버랜드에서 아미타전을???
에버랜드
모험과 즐거움이 있는
「에버랜드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독자 IMF 할인가격으로
아미타전 도 보시고
에버랜드 도 즐기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절차에 따른 불편없이 우대가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아미타전 관람요금 (3명이상 단체에 한함)

상품명	상품내용	입변가입	일반단체	아미타전 우대가격		
				어른	중고생	어린이
아미타	아미타전관람+에버랜드존권	13,000	11,000	8,500	6,500	4,000
아미타1	아미타전+에버랜드존권+놀이시설 1종선택	15,000	13,000	10,000	7,000	6,000
아미타2	아미타전+에버랜드존권+놀이시설 2종선택	17,000	15,000	11,500	8,500	7,000
아미타3	아미타전관람+에버랜드 종일+1식	27,000	20,000	16,000	13,000	10,000
아미타4	자유이용(놀이시설무한정+1식)	32,000	20,000	18,000	14,000	11,000

■ 공동주관 : 현대불교신문사, 삼성에버랜드, 호암미술관
■ 문의·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전화: 02-732-1522,737-8881 팩스: 737-0697,737-0696)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애욕품(愛欲品) ③

難獄有鉤鍱 수옥유구섭
慧人不謂牢 혜인불위뢰
愚見妻子息 우견처자식
染着愛甚牢 염착애심뢰

비록 감옥에 쇠고랑 쇠창살이 있다 해도
지혜로운 이는 견고한 울이라 하지 않네
어리석은 이는 처 자식을 보고도
집착에 빠진 그 사랑 견고한 울이 되네

慧說愛爲獄 혜설애위옥
深固難得出 심고난득출
是故當斷棄 시고당단기
不視欲能安 불시욕능안

지혜로운 이 말하기를 갈애는 감옥이라
깊고 단단하여 빠져나오기 어렵다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끊고 버려서
갈애 보이지 않으면 편안하리라

見色心迷惑 견색심미혹
音聲細滑香 음성세활향
及味觸柔軟 급미촉유연
以此欲自纏 이차욕자전

형상을 보고 마음이 미혹하여
소리 가늘고 매끄러움 향기 맛 촉감 부드러움
이 욕망으로 자신을 얽어매면

욕망과 애욕으로 자신을 가리면 스스로 번뇌의 감옥에 갇힌다

不惟觀無常 불유관무상
愚以爲美善 우이위미선
安知其非眞 안지기비진

형상을 보고 마음이 미혹하여
덧없음을 보려고도 않으니
어리석은 이는 아름다워 좋다 하나
어찌 그것이 참이 아닌줄 알랴

以姪樂自裏 이음락자리
譬如蠶作繭 비여잠작견
智者能斷棄 지자능단기
不貪除衆苦 불혜제중고

음행의 즐거움으로 스스로를 싸는 것
누에가 스스로 고치 짓는 것 같네
슬기로운 이는 능히 이를 끊고 버려
돌아보지 않아서 온갖 괴로움 없앤다

心念放逸者 심념방일자
見姪以爲淨 견음이위정
恩愛意盛增 은애의성증
從是造獄牢 종시조옥뇌

마음에 방일한 생각이 있는 자
음행을 보고도 깨끗하다 하고
은애의 뜻은 날로 왕성해
이를 좇아 감옥을 스스로 짓는다

覺意滅姪者 각의멸음자
常念欲不淨 상념욕부정
從是出邪獄 종시출사옥
能斷老死患 능단노사환

이 뜻 깨달아 음욕 없앤 이
언제나 욕망은 부정하다 여기며
이를 좇아 번뇌의 감옥에서 나와
능히 늙고 죽는 근심 끊어버린다

以欲網自蔽 이욕망자폐
以愛蓋自覆 이애개자복
自恣縛於獄 자자박어옥
如魚入筍口 여어입구구

욕망의 그물로 자신을 가리고
애욕의 덮개로 자신을 덮으면
스스로 방자하여 감옥에 갇힌다
마치 물고기가 통발 주둥이에 들어가듯이

爲老死所伺 위노사소사
若犢求母乳 약독구모유
離欲滅愛迹 이욕멸애적

出網無所弊 출망무소폐

늙음과 죽음이 엿보는 것
송아지가 어미 젖 구하는것 같네
욕심 여의고 갈애의 자취 없애면
그물에서 벗어나 얽매임 없어진다.

盡道除獄縛 진도제옥박
一切此彼解 일체차피해
已得度邊行 이득도변행
是爲大智士 시위대지사

도에 힘써 감옥의 사슬 끊고
일체 반연 모두다 풀어버리고
치우친 행을 이미 넘었으면
그런 이를 크게 슬기로운 이라 한다

勿親遠法人 물친원법인
亦勿爲愛染 역물위애염
不斷三世者 불단삼세자
會復墮邊行 회부타변행

법을 멀리하는 사람과 친하지 말고
애욕에 물들지 말라
삼세 인연 끊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치우친 행에 또 떨어진다

龍眼

美서 3년만에 일시귀국

청화스님 특별 법회 지상중계

"계율 제대로 지키면



◇14일 청평 반야사에서 법문하는 청화스님.



◇스님의 법문에 귀 기울이고 있는 불자들.

40년 장좌불와로 정진해오며 소탈한 대선지식의 면모를 보여주셨던 청화스님(76). 지난 95년 출국해 미국에서의 3년 결사를 마친 스님은 3년만인 9월 일시 귀국했다. 청화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열회와 같은 불자들의 청을 받아들여 광주 성륜사(12일), 청평 반야사(14일), 변산 실상사(25일), 강릉 성원사(28일) 등에서 법문했다. 14일 반야사에서는 먼길도 마다않고 모여든 전국의 불자들이 오랜만에 듣는 감로수같은 스님의 가르침에 귀를 귀울였다. 청화스님의 이날 법문을 요약해 지상중계한다. 스님은 순회 법회를 마치고, 30일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다. 〈편집자 주〉

도업과 선업 개념 알아야 해요
선업만으론 해탈 이를 수 없지만
도업 쌓으면 대자유의 길 열려요
相을 떠나서 행해야 도업 됩니다

불교를 말할 때 우리는 그 교리가 주로 한문으로만 표현되고, 내용도 이래저래 갈래가 많아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 들어가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불문에 몸담아 온 나는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법의 요체는 불자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는 바와 같이 정정한 계율, 참선염불하는 선정과 또 인간의 본질과 우주만유의 근본성품인 본체를 아는 지혜, 이 세가지입니다. 이 세가지야말로 우리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하고, 사람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률 가운데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같이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계율은 우리사회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우주의 질서입니다. 유교의 인의예지신이나,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십계명, 그러한 세계 종교의 우수한 도덕률도 다 불교의 계율에 들어 있습니다. 계율만 제대로 지키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편해지고 주위도 편해집니다. 우리가 참선 염불을 해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려 하더라도 계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명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 마음이 정화가 안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계율이 밑받침 안되면 명상을 해서 이루는 마음정화는 올 수가 없지요.

참다운 지혜는 반야의 지혜입니다. 세속적인 분별지혜, 차별적인 지혜, 이런 것은 우리 인간 의식의 범위 내에서 분별하는 것이지, 초월적인 모든 존재 본질의 지혜는 못 됩니다. 따라서 좀 재주가 있고, 학문적인 수련이 깊어서 분별적인 지혜는 어느 정도 익힌다 하더라도 이른바 분별을 떠난 현상적인 문제라든가 초월적인 문제를 통틀어서 제일의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바라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른바 무위법입니다. 또는 무루법이라고도 합니다. 무위법은 인연사이의 모양이 아닌 그 모양을 지양한 생명자체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종교의 교조가 전혀 모른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부처님처럼 명확히 구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물질이라든가 여러가지 것을 보시도 하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유위법의 범위내에서는 나라는 관념과 너라는 관념을 떠날 수가 없고, 내가 물질을 많이 보시한다 적게 보시한다는 그러한 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해탈이라는 불교의 궁극적인 도리, 동시에 우리인간의 본래적인 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상을 떠나는 행위 이것은 그 생각으로나 행위로나 참다운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상을 떠나서 행해야 그것이 도업이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도업과 세간에서 착한 일을 해서 쌓는 선업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이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업입니다. 욕계, 천상, 무색계와 같은 곳에 가는 것은 선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업만으로는 우리의 번뇌를 모조리 소멸시켜서 영생해탈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욕계를 초월하고, 색계를 초월하고, 또 무색계를 초월하고, 천상도 다 초월해서 정말로 대 자유인, 참다운 자기인 대아, 진아의 존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업을 쌓아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참다운 해탈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해탈은 커녕, 아직 선업도 못 닦은 이가 많은 것을 볼때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더라도 절대로 비관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인간의 몸으로 욕계의 굴레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불성 자체는 조금도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달마대사와 같은 도인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마음자리만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불지에 오른 유마거사의 말씀을 모은 〈유마경〉 가운데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상수제자인 시리불 목건련을 위시해서 32 아라한에게 유마거사가 설한 법문입니다. 둘이 아닌 그런 수승한 법에 들어가는 법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둘이나 셋이나 이원론도 삼원론도 아니고 오직 일원론이라는 말입니다. 일원론은 나나 너나 달마 석가 우리 모두가 본체이 있어서는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현상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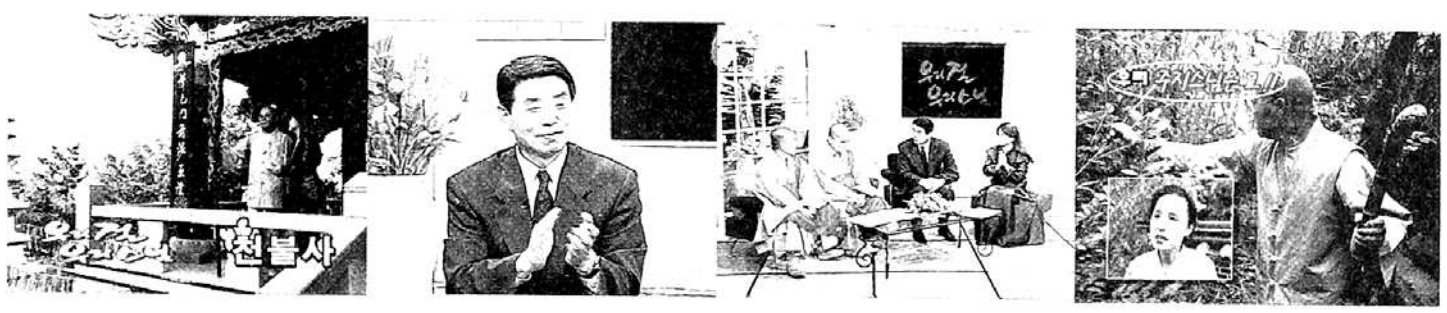
아니 나같은 중생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왜 차이가 없다는 것일까 하고 의심을 품는 분도 계시겠지요. 차이가 있는 모양에서 의심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불교말로 구체화하면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또는 중생이라는 상, 또는 우리 수명이나 시간이 짧다고 하는 상을 다 떠나버린 경지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을 어떻게 여읠 것인가. 상을 여의는 법문이 바로 유마거사의 입불이법문입니다. 천지우주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자는 모든 것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데, 중생들은 천차만별로, 모든 것을 업장이라는 안경을 쓰고 본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중생은 평생 분별합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홍수처럼 몰려들때는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 10~10 00
13 25~14 15
22 00~22 50
매주 일요일
18 40~19 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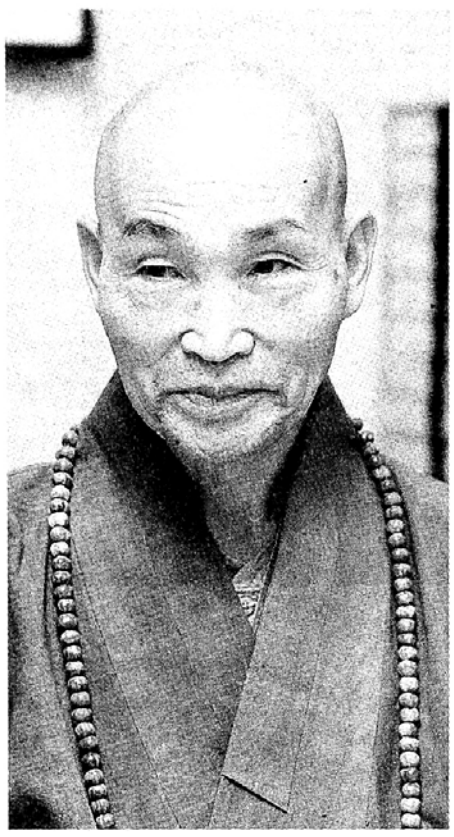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美서 3년만에 일시귀국 **청화스님** 특별 법회 지상중계

나도 이웃도 편해집니다"

성자와 중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자는 만물을 한 생명으로 보고
중생은 천차만별로 나누어 생각



약 력
- 1923년 生
- 1946년 금타스님을 은사로 출가
- 40년을 토굴수행 장좌불와 정진
- 곡성 태안사 조실 역임
- 95년부터 美 팜스프링 금강선원 주석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으나, 우리 불자들의 수행에는 걸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정보화시대의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컴퓨터는 문명의 이기임에는 틀림없어 물질적인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생명 자체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인류가 차근차근 발전되어 간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는 모양은 좀 발달돼 가겠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으로 봐서는 발달은 커녕 점점 퇴화한다고 봐야 합니다. 5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참다운 성자가 몇이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불자들은 겉을 꾸미는 데 집착하지 말고, 속절있게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상에 끄달려 행하는 모든 것은 부처님 법을 자기 것으로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른바 상을 떠나버린 모두를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의 본체인 불심(佛心)을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상으로 보아서는 제아무리 많은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근본자리와 현상의 것을 물과 물결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근본자리는 물에, 현상적인 문제는 바람따라 일어나는 파도에 빗댄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업장의 현상만 볼 뿐 나의 본질도 너의 본질도 못보고, 만유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뿐 아니라 식물 동물이요, 허깨비요, 그림자요, 또는 아지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여실히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내 몸뚱이가 모두 비었거니, 내 집이나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맡아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어서도 가지고 갈 것 같이 집착을 보이지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세요. 그것처럼 편하고, 쉬운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가 순식간에 극락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의 안목에서 본다면 당체즉공이기 때문에 이 세계 그대로가 모두 공입니다. 공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광명 찬란한 불성이 이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지금은 모양으로 살지만 몇억겁 뒤에는 우주의 법에 따라 모두 파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참담한 재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그전에 해탈의 자리에 올라야 합니다. 다행히 부처님 법은 대자대비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차근차근 공부해서 모두 천상에 올라간 후에 파괴가 됩니다.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과 같이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파괴가 된 다음에는 다 텅텅 빈 공무변이라. 거기에는 마음만 있는, 식만 존재하는 중생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주가 텅 빈 데서 모양이 이뤄집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위대한 철인도 학자도 결국에는 부처님법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현대물리학도 점차로 증명해가고 있어요. 불교는 가장 투철한 과학인 동시에 가장 궁극적인 철학, 영생해탈의 종교입니다. 해탈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간법을 지양하고 제법이 비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 행복을 위해서나, 우리 민족의 융비를 위해서나,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나 어렵고 힘들수록 부처님 가르침을 지극하게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마음법 뿐 아니라 우리 몸에도 제일 좋은 묘방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불교는 투철한 과학…'물질은 空' 깨달아야
"어렵고 힘들수록 부처님 가르침 따르자"

모든 두두물물의 본바탕이 바로 불심이고, 일체존재의 본질이기에 불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성, 실상, 도, 열반, 여래장 등도 같은 뜻입니다. 표현은 비록 다르더라도 근본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것은 불심 자리 불성자리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자는 그 자리가 하나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아직 그자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부처님같은 성자들의 가르침이 있기에 마음의 본질이 불심임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더러는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나 또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보시를 해주신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 더 가슴 아프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 걸까요.

경제학자,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내놓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자기의 본바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가도 알 턱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말로 철학의 빈곤입니다. 철학이 없습니다. 칸트, 니체 이런 것에 박식하다고 철학이 아닙니다. 일체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철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경을 통달할 정도로 외우더라도 그 본질 자리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나라경제나 개인경제나 모두 거품을 걷으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 모두가 거품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리 금붙이를 많이 지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에 그림자를 붙인 것입니다. 마음찾기에는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일체 물질이 사실은 텅텅 빈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왜 '색즉시공' 이라 했을까요. 물질 그대로가 공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같이 물질을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체즉공이고, 삼계유심이라.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모든 세계인 삼계에 오직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마음이란 것은 순수 생명입니다. 순수 생명외에 다른 것은 모두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도리가 모두 이런 도립니다.

초월적인 본래의 자리에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탈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일체법이 모두 공이라고 설했습니다. 중생이 보는 모든 것은 꿈이

나와 경전 50

약사경



정 진 원
홍익대 강사

요즘 내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건강한 삶에 대한 것이다.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주변에서 마음을 담는 몸이라는 그릇이 깨지거나 새고 있는 경우가 부쩍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의 병환은 오랫동안 하나의 화두로 자리잡을 것 같다. 전통적인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당신도 역시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아오셨다. 전혀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는 어느 한 곳도 성하신 데가 없다. 처음엔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자책도 많이 했고, 또 자신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사경〉을 만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어머니가 나에게 깨우쳐주려 하신 것은 무엇일까'

〈약사경〉은 갖추어 말하면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이다. 경전의 제목은 경전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약사'는 세상의 의사가 몸 속의 병과 외상을 낫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가, 마음의 삼독을 비롯한 모든 병고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뜻한다. '유리광'은 마치 유리가 속까지 환히 비추는 보배이듯 마음의 본체를 밝힐뿐 아니라 어둠을 없애주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본원공덕경〉은 고뇌 속에 사는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그 약사여래께서 12가지 큰 발원을 하고 그 공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12대원 중에서도 '미혹하고 수고로운 병을 앓다가 나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지혜와 제근을 갖추리라'(6대원), '빈궁, 고독, 실명으로 고뇌하는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심신의 안락을 얻게 되리라'(7대원), 또는 '한없는 재난과 근심걱정으로 받는 고통이 있으면 나의 복덕의 힘으로 일체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리라'(10대원)는 구절들이 요즘 내게 살갑게 다가온다.

현존하는 〈약사경〉의 한역본은 수나라 달마급다의 〈불설약사여래 본원경〉(1권), 당나라 의정삼장의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2권)과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당나라 현장삼장이 번역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1권) 3가지가 있다.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의 중심사상은 제목이 말해주듯 붓다를 중생의 마음과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 비유해 구제하는 내용을 12가지 대원으로 설하고 그 공덕과 위신력을 문답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12대원을 살펴보면 1대원은 모든 중생이 자신과 같은 상호를 갖추는 것, 2대원은 중생들의 어두운 세계를 밝혀주는 것, 3대원은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소유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 4대원은 중생들이 보리를 얻고 소승은 대승으로 돌아오는 일, 5대원은 중생들이 계율을 지키고 파계한 중생이라도 약사여래 명호를 부르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7대원 '중병실제'(衆病悉除)의 내용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각종

약사여래의 12대원과 공덕 설해
몸의 병과 삼독심 치유법 제시

의 병을 다스려 준다는 약사여래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다. 8대원은 여인이 남자가 되기를 원하면 남자가 될 것, 9대원은 악견을 버리고 정견에 돌아와 보리를 알게 될 것, 11대원은 굶주리고 목마른 고통 중에 약사여래 이름을 들으면 좋은 음식과 마음의 법미(法味)를 얻어 안락하게 될 것, 12대원은 가난과 헐벗게 되었을 때 좋은 옷과 장엄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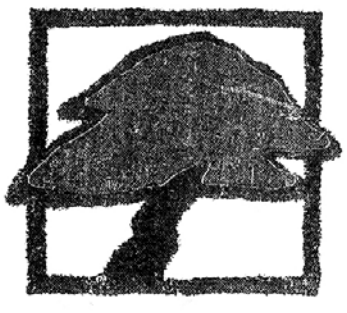
단지 국어학이라는 전공에 필요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배경 지식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불교에 관한 관심은 88년 '경전읽기 모임'과 89년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면서부터 본격화됐고 인도 여행을 통해 심화되었다. 서서히 나는 불교라는 텟목에 몸을 싣게 되었고 지금까지 경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때의 인연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중에서 내 관심분야인 역경에 대한 공부를 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선시대 우리말로 쓰여진 경전들이 속속 번역되고 있고 나 또한 이 일에 평생 서원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불(火)·흙(土)·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祕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强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 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 구입문의 (대구)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모나리자 무색한 마애불 '千의 미소'

불교문화 체험기행 4월

백제인의 미소·숨결 찾아서

신록의 연두빛을 짙게하는 비가 하루종일 오락가락했다. 때로는 세차게, 때로는 잔잔하게 허공을 가르는 빗줄기가 심쾌한 공기를 실어날랐다. '백제인의 미소와 숨결을 찾아서' 떠난 4월의 불교문화 체험 기행은 궂은 날씨 속에 출발했다. 그러나 80여명의 답사객들에게 궂은 날씨는 지극한 환희심을 맛보기 위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았다.

맨처음 도착한 곳은 충남 서산군 운산면에 자리잡은 개심사. 벚나무, 느티나무, 해묵은 적송이 뒤덮고 있는 뭉실한 산을 따라 꼬불꼬불 산길을 오르자 편액 밖으로 뛰쳐나갈듯 큼지막한 글자 여섯이 반긴다. '상왕산개심사(象王山開心寺)'. 자연스런 맛을 살린 돌과 흙으로만 된 계단이 800m나 이어져 있어 머리를 식히며 천천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을 느낀다. 열린 마음은 망망대해처럼 차별심이 없고 은갖 것을 받아들인다. 큰 돌 작은 돌 멋대로 주워다가 쌓아 올린 돌계단을 올라가면 안양루(安養樓), 그리고 안양루를 굽어보는 대웅보전이 한눈에 고찰임을 느끼게 한다. 보물 143호로 지정돼 있는 대웅전은 다포(多包) 양식의 조선시대 목조건물로 그 작법이 우아하고 섬세한 건축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웅전을 바라보고 왼쪽 권에 있는 심검당은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천연스러움과 단청을 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눈길을 끌었다.

요사채 마루에 걸터앉아 산바람을 쏘이는 답사객들. 세 걸음도 되지 않는 뜨락에서 열린 마음을 읽는다. "우주를 호흡하는 내 속에는 우리가 되어버린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개심(開心)을 않고 개심(改心)을 했더니 그렇게 개심(開心)이 되어 버렸다"는 어느 답사객의 탄방기를 마음에 걸고 내려왔다.

근세 선불교를 수행과 실천으로 꽃피운 만공(1871~1946)스님의 일화를 가슴에 새기고 도착한 곳은 덕숭산 수덕사. 웅장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대웅전(국보 49호)이 산 아래를 굽어보며 답사객들을 반겼다. 정면3칸 측면 4칸의 주심포계 단층 겹처마 맞배지붕에 흠데없는 장식을 하지 않은 담백함, 정확한 균형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7백여년의 세월을 버텨 온 견실함이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전물임을 일깨워준다.

한말 경허선사(1849~1912)가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키고 그 제자 만공스님이 중창한 뒤 많은 후학들을 배출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4대총림의 하나로 많은 수도승들이 정진하고 있는 이곳 수덕사는 근대 선(禪)의 중흥지로 꼽힌다. 비구니계에 우뚝 선 일엽스님(1896~1971), 지금도 2백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이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 선원인 견성암에서 용맹정진을 계속하고 있다.

짧은 일정탓에 산내 암자 모두를 둘러 볼 수 없었던 안타까움은 수덕사 스님의 구수한 법담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덕숭낭자를 사모한 수덕도령이 낭자의 요청대로 대웅전을 짓고 결혼 첫날 낭자를 덥썩 안자 낭자는 사라지고 두 손에는 버선만 남았는데 버선을 들여다본 순간 큼직한 바위와 그 바위 틈새에 버선같은 하얀 꽃이 피어 있어 수덕은 덕숭낭자가 관음의 화신임을 깨닫고 절이름을 수덕사라 했다는 이 곳의 창건설화는 세속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스님 대웅전에 왜 단청을 하지 않았나요." 답사객중 한 보살이 물었다. "7백살 된 노인이 화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쁘겠습니까." 죄중이 그 깊은뜻을 깨친 듯 박장대소한다.

마지막 코스는 모두가 마음설레이며 고대하던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마도 이 고사성어는 마애삼존불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마애삼존불의 미소는 답사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가운데 본존인 여래가 서 있고, 양쪽에 한 분은 서 있고 다른 한 분은 한 다리를 다른 쪽에 포개 앉은 반가상을 하고 있는 특이한 배치를 하고 있다.

마애삼존불 미소의 신비는 시간과 날씨, 계절과 보는 각도,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변하는데 있다. 누구든지 똑같은 미소를 두 번 볼 수 없으며, 느낌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소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성원 할아버지(정장옥씨)가 보호각 입구에 커튼을 치고 삿갓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설명을 시작했다. 등을 아침햇살이 비추는 동남향쪽에서 비추자 밝고 가늘면서도 평화로운 미소가 나타났다. 서쪽 해지는 방향으로 비추자 이번에는 자비롭고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위에서 비추자 미소는 간데 없이 사라졌다. "아니 이럴 수가…" 연신 터져나오는 감탄사를 막은 것은 등을 아래에서 위로 옮겼을 때였다. 눈의 형태는 알아볼 수 없었고 근엄한 표정만이 들어온다. 광배를 둘러싼 화염문을 비추자 그 속에서 3명의 아기부처님이 나타났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을 만났을 때의 기쁨, 답사객들의 탄성이 골짜기를 덮었다.

글=한명우 사진=고영배 기자



◇ '백제인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의 자비롭고 온화한 미소는 차라리 신비에 가깝다. 계절과 날씨, 보는 각도와 마음에 따라 미소가 달라진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양식을 갖춘 수덕사 삼층석탑.

개심사 대웅전 우아·섬세함 극치
수덕사엔 경허 만공 사자후 가득
백제의 미소에 답사객 탄성 절로



◇아름다움의 조화를 느끼게 하는 개심사. 크고 작은 돌과 흙으로 된 계단을 오르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열린다.



◇경학스님으로부터 수덕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객들.



■ 마애불 지키는 정장옥씨

신비한 미소에 이끌려 34년째 '국보' 수문장

"서산 마애불이 다시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냥 흠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관리인이자 살아있는 수문장이며 그 아름다움의 대변인을 데리고 나타났다고나 할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에서 저자 유홍준씨는 정장옥씨를 이렇게 표현했다.

65년 마애삼존불 보호각 준공부터 지금까지 34년간을 마애불을 지키고 있는 정장옥(62세)씨는 마애불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군대를 제대하면서 방황하던 때였어요. 산신각에 산제를 지내러 왔다가 마애불 보호각을 짓는다길래 관리인을 자처했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산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미소짓고 있는 부처님이 볼수록 좋아서 시작한 일이다.

원래는 혼자서만 이곳을 지켰던 것은 아니다. 3년전까지만 하더라도 91세인 노모 심순창씨와 함께 있었는데, 노모가 나이가 더이상 이곳에서 기거를 하기 어려워지자 대신 부인이 함께 하고 있다. 81년부터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임명돼 일해왔지만 작년에 정년을 맞으면서 이곳을 떠나게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계속 있게 된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긴다.

삿갓등은 마애불의 미소가 보호각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고심한 끝에 성원할아버지가 고안한 장치. "이제 제가 해뜨는 방향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가 옮겨가는 대로 움직일테니 잘 보십시오." 삿갓등을 이리저리 옮기며 마치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막힘없이 설명한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셔야 미소가 더 잘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미소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모나리자 미소가 이 마애삼존불 미소때문에 보통 고민이 아니랍니다…."

서산 마애삼존불 1959년 발견… 살아있는 듯한 미소 '일품'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에 위치한 서산마애삼존불은 높이 2.8m의 백제시대 불상으로, 1959년 발견당시 '위대한 발견'으로 칭해졌다. 이 마애삼존불로 말미암아 백제불상의 진면목을 말할 수 있게 됐음은 물론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애삼존불은 중국이나 일본, 고구려나 신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왼쪽에는 반가상의 보살과 오른쪽에는 보주(寶珠)를 받들고 있는 이른바 봉주(捧珠)보살이 선명하게 조각돼 있다. 여래상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문수·보현보살이나 관음·세지보살, 일광·월광보살이 배치되는 일반적인 삼존불 형식과는 다른 독특한 양식이며, 특히 봉주보살에 대해서는 제화갈라보살과 관음보살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환한 미소다. 6세기부터 7세기 전반에 걸친 삼국시대 불상들은 대개 미소를 띠고 있으나 사실성보다 상징성을 겨냥해 입체감보다 평면감, 양감보다 정면관(正面觀)에 치중하고 있다. 불상을 사방에서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 서서 시점의 이동 없이 본다는 전제하에 제작된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그래서 옷주름과 몸매를 표현한 선은 날카롭고 업격하며 직선이 많아, 인체를 기본으로 했음에도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절대자의 모습으로 부각되기 일쑤다.

하지만 백제불상에는 오히려 인간미가 더욱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치 실재하는 사람을 모델로 쓴 것 같은 느낌을 주는가하면 그 미소 또한 현세적이다. '백제인의 미소'로 불리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주변이 자연경관과 어울리면서 인공과 자연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서산 마애불이 향하고 있는 방위는 동동남 30도로 일조량을 가장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다. 마애불 정면에는 가리개를 펴듯 산자락이 둘러쳐 있는데 이는 바람이 정면으로 마애불을 향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마애불이 새겨진 벼랑위로 마치 모자의 차양처럼 앞으로 나온 큰 바위는 빗방울이 직접 마애불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여 얼마나 과학적인 계산아래 위치를 잡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음양관계와 시각거리 관계를 고려해 얼굴은 높게 부각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차츰 낮은 부각으로 처리하는 절묘한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어려운 조건에서 제작됐음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제작된 듯한 권안한 인상을 주는 것은 실로 놀라운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다.



◇성원 할아버지가 삿갓등을 이리저리 옮기며 마애불의 갖가지 미소를 보여주고 있다.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업체 **봉축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98.5.3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현수막 규격	가 격
90cm× 6m	40,000원
90cm× 8m	50,000원
90cm×10m	60,000원
90cm×12m	70,000원

※ 지역 사암연합회 단위 단체 주문 환영합니다.
※ 봉축위원회가 제정한 각종 봉축행사용품도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 제작 관계상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후문 옆)
☎(02)723-4306~7, FAX:(02)738-8682

봉축위원회 지정 『불자의집』 교패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 크기 : 5.5cm×7cm
■ 보급가 : 1개당 1,000원
■ 2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봉축위원회 지정 봉축 어깨띠
▲ 고급공단으로 제작
▲ 색상 : 노랑색, 분홍색, 오렌지색, 흰색
▲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봉축위원회 지정 차량용 스티카
이웃과 함께
● 크기 : 10cm×10cm
● 가격 : 300원
■ 일반스티카(10종) 1,500원

봉축 리본
▲일반리본 ▲고급리본
♣ 색상이 다양합니다 (꽃분홍, 분홍, 노랑, 청색)
♣ 귀빈용 3단 꽃리본도 있습니다 (1,000원)
♣ 타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5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불교의 미래 '교육'에 달려있다"

불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26〉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종교인구가 월등히 많다 그러나 종교교육 여건은 오히려 뒤처지는 상황"

흔히 교육을 국가 백년의 대계라고 한다. 이 말은 오늘의 교육의 모습이 내일의 국가 발전에 직결된다고 풀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종교 교육에 해당시켜 보면 '종교 교육은 종교 백년의 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늘의 각종 종교가 교육에 힘쓰는 정도에 따라 그 종교의 미래 발전이 결정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교육에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이 있다. 형식교육에서는 입학조건, 수학년한, 배우는 내용 등이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서, 졸업증서 등이 수여되고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다. 형식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학교이다. 비형식교육은 학교교육(형식교육)을 제외한 일체의 조직적, 비조직적 교육의 형태를 말한다.

비형식교육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말한다. 종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단기 및 장기의 교육 프로그램,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각종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성인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종교 교육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의 양면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교육은 형식교육보다 비형식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찰이나 불교 단체에서 하는 비형식교육은 불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형식교육보다 훨씬 그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비형식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학습동기가 훨씬 강하다.

이러한 비형식교육의 실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교육대상자가 많을 필요가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나라는 불교 신도가 타종교에 비하여 훨씬 많다. 특히 1996년 한국통계연감에 따르면 30대의 불교신도는 전체의 46.8%인 208만6천62명으로 가장 많고 기독교(37.6%, 167만7천771명), 천주교(13.3%, 59만2천257명), 유교(0.5%, 2만천526명), 원불교(0.3%, 1만3천754명), 기타(1.5%) 등의 순위이다.

이렇게 볼 때 비형식적 종교 교육의 자원은 타종교에 비하여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과연 사찰에서의 종교 교육이 기독교에 비하여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생각할 때 한숨이 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앞이 암담해진다.

서울의 모 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기독교 교육의 모습을 보면 그 계획성과 조직성과 방대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육 대상자를 분류하여 영아부(주로 부모교육),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1부(1학년 아동), 초등2부, 초등3부, 초등4부, 초등5부, 초등6부, 중등1부(중학교 1학년), 중등2부, 중등3부, 고등1부(고등학교 1학년), 고등2부, 고등3부, 대학부, 청년부(대학 비진학자), 예신부(예비신랑신부), 새가정부(신혼부부), 새가족부(새롭게 교인이 된 가정)로 나누고 있다. 이들 각 부의 교원들은 3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고 수시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교재도 각 부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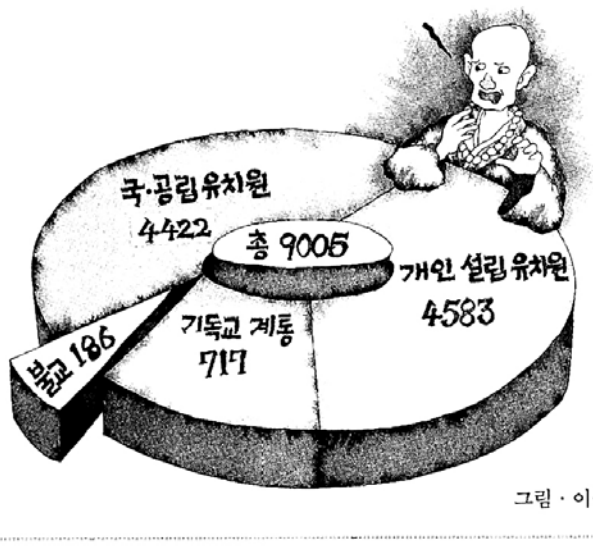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이와 같은 교육 체제는 불교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유아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로 세분했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교회에 올 때 어린 자녀를 반드시 데려오도록 강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다. 어릴때의 종교적 체험은 평생 동안에 걸친 신행생활(信行生活)과 직결된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는 어린이를 데리고 사찰에 가면 사찰의 고요함과 엄숙함을 깬다고 하여 사찰에서 싫어하는 경향마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음은 형식교육인 학교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자.

1997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총수는 9천5교에 이르고 있다. 이중 국·공립유치원이 4천422교이며 사립유치원이 4천583교이다. 사립유치원 중 기독교 계통인 개신교에서 설립한 유치원이 504교이고 천주교는 213교이며 계 717교이고 이는 전체유치원의 8%, 사립유치원의 15.6%에 해당한다. 그런데 불교 계통에서 설립한 유치원은 186교이고, 이는 전체 유치원 수의 2%이고 사립유치원의 4%에 불과하다. 기독교 계통 유치원의 4분의 1정도이다. 그리고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3천409교인데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교 계통의 유치원 교육은 기독교 계통의 유치원 교육에 비하여 말할 수 없는 열세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 계통의 유아교육이 얼마나 미미하며 이렇게 열세에 있으면서도 이 나라 미래의 불교는 현재보다 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할 수 있을지?

다음은 초등학교를 살펴보자. 초등학교는 총 5천721개교이며 이중 사립초등학교는 1.3%인 76개교에 불과하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바 없지만 이 적은 수의 사립초등학교 중에서도 기독교 계통의 사립초등학교가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통계가 없어서 전국의 현황은 알 수 없지만 서울의 경우 39개 사립초등학교 중 3개교는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하였으며 여타의 상당수의 사립초등학교가 기독교 계통의 재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전국의 통계치는 알 수 없으며 서울의 경우만 살펴보면 중등학교 총수 629개교 중 사립중등학교는 49%인 311개교이다. 이 사립중등학교 중 기독교에서 설립한 중등학교는 32개교이고, 이는 전체 사립중등학교의 10.2%이다. 그런데 불교 계통에서 설립한 사립중등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다. 중등학교의 경우도 사립중등학교의 상당수가 기독교 계통의 분위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수성이 강하고 종교적 사고에 열중하는 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불교 교육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은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와 같다.

◇대학현황 (1997.4)

기독교계통				불교계통			
학과수		학생수		학과수		학생수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111	91.7	20,828	95.0	10	8.3	1,101	5.0

◇각종학교현황 (1997.4)

기독교계통				불교계통			
학과수		학생수		학과수		학생수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53	98.1	5,953	97.6	1	1.9	107	2.4

※불교계통은 중앙승가대학교 2학년이상을 말함.

어릴때 종교적 체험 평생 신행과 연결 "사찰은 비형식 불교교육에 나서자"

◇대학원현황〈석사과정〉(1997.4)

기독교계통				불교계통			
학과수		학생수		학과수		학생수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133	94.3	9,462	97.4	8	5.7	253	2.6

※전문대학원 포함.

◇대학원현황〈박사과정〉(1997.4)

기독교계통				불교계통			
학과수		학생수		학과수		학생수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17	81.0	134	67.7	4	19.0	64	32.3

고등교육 현황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독교 교육에 비해 양적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 대학은 학생수에 있어서는 19분의 1이며, 각종학교는 56분의 1이고 대학원 석사과정은 37분의 1이며 박사과정은 2.1분의 1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박사과정의 학생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불교의 교육은 강원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수행과 교육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수 같은 것은 게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前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그림 · 박구원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을 참회라고 한다. 참회가 이루어지면 용서를 받는다.

참회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로 참(懺)과 회(悔)로 분리해 파악해야 한다. '참'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참는 것이고 '회'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과 보살님 또는 스승과 윗분에게 지은 죄를 고백한 다음 사죄를 구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매달 보름날을 참회의 날로 정해 대중이 모여 지난달 지은 죄를 참회했다. 이날을 포살일(布薩日)이라고 한다. 안거가 끝난 마지막 날에는 안거기간 동안 저지른 잘못을 공개 참회하기도 했다. 이날을 자자일(自恣日)이라고 부른다.

참회(懺悔)

참(懺) - 죄를 용서받기위해 참음

회(悔) - 부처님께 죄를 고백함

참회는 크게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으로 대별한다. 이참은 지은 죄의 실상을 깨달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는 참회를 말하고, 사참은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참회의 진언을 외우는 등 행위와 동작으로 참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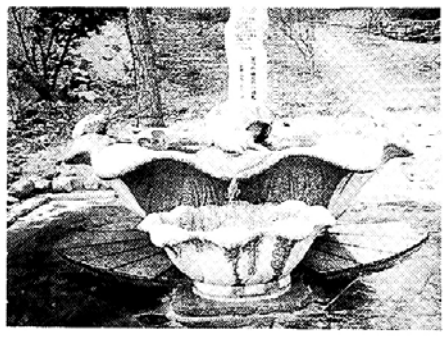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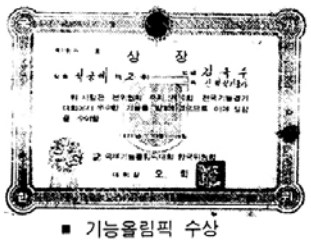
절해서 참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논서로 당나라 선도스님이 저술한 〈왕생예찬(往生禮讚)〉이 있다. 〈왕생예찬〉에 의하면 상품(上品)참회는 눈에서 피가 흐르고 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참회다. 중품(中品)참회는 눈에서 피가 나오고 털구멍에서 뜨거운 진물이 내리는 참회다. 하품(下品)참회는 눈과 코에서 피가 나오는 참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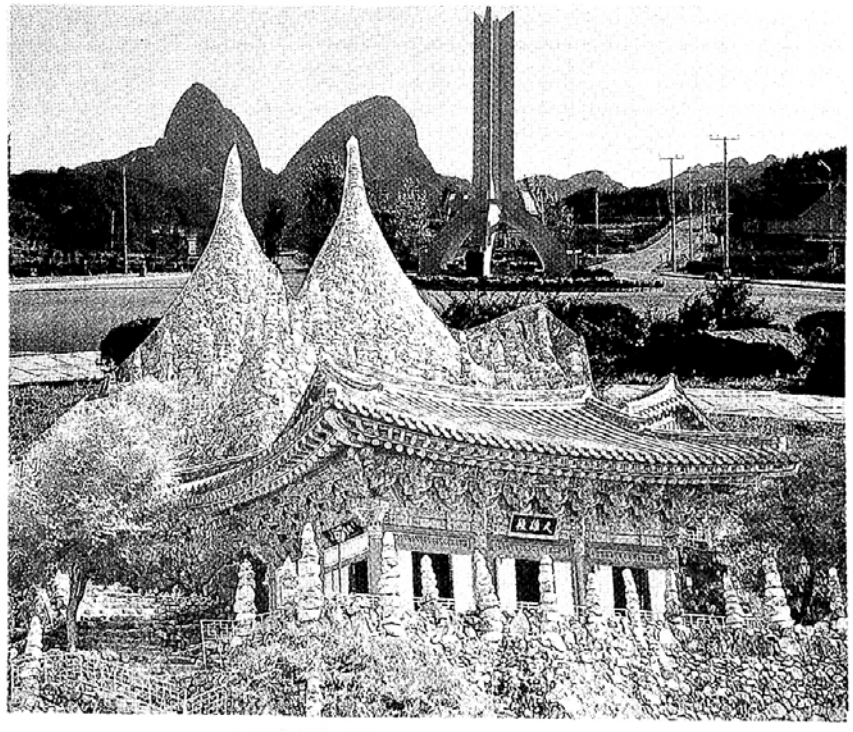
하루에 3천배를 하고서는 눈에서 피가 흐르지 않는다. 과연 참회란 얼마나 무서운 결심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새삼 부끄러움을 느낀다. 참회와 용서의 깊은 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참회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무거움을 느낀다. 지난 세월의 과오를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날의 죄와 악을 짓지 말자는 각오와 수행이 더욱 절실하다.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도서를 제외한 영화, 영상, 음반, 공연 예술 등 다방면의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상품권 판매 실시!
직방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37-0066, 732-1321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벌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 표 김 옥 수 합장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40분 M 마이산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한방암정보
02) 700-6366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대보생식
02) 427-9162~3

수맥(水脈)을
바로 알면 건강해지고
집안이 흥해집니다!
- 공부 잘하던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 매사 의욕이 없고 우환이 잦으시며
-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환자가 있다면…

※ 수맥상담 및 출장 탐사
실로암수맥연구회
02)362-8466/392-8621
FAX 02)392-8621
※ 수맥연구원 약간명 모집

밀교 수행자
연락처 015-8487-3674
당뇨 · 간경화 · 비만관리
※ 3~7일간 치료 지도 ※
能仁 看病會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3-16
011-337-0353
02-809-1831

• 강 좌 •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 릉 지 사
0391)43-5599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氣明緣屿 ↔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밝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 ●
016)340-4459 ● ●
(167+021111+02+034)

사주 · 명리학 배우실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을 자신있게 풀이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합니다.
■ 개강일: 월.목요일반(5월 4일부터)
수.토요일반(5월 6일부터)
■ 강의기간: 3개월 주2회(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씩)
■ 수강료: 교재다 포함 월 10만원
■ 장 소: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T. (02)713-4852~3
(개강일전 월, 목요일은 무료 공개강의를 합니다)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통신생도 모집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 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풍수지리 운세도 직접 전문 감정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 극빈불자는 수강료 무료 보시함.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학 장 석 일 관 합장
☎ 02)482-4550, 488-1569

해외허가 제 745호
중국 베이징 해외유학 및 연수안내
기공속성반
침술속성반
한방속성반
※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발송해 드립니다.
서울 사무소 대표전화 02)737-0437
북경 사무소 6594-9401~3

• 구인구직 •

보살님이 창건한 사찰로서 정법을 수호하는 조용한 도량이 있다면 (**부전스님**으로서) 기도하고저 합니다. 연락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경남북도 이남지역
011)807-6725
탄 휴 스님

함께 일하실 분
◆저희는 설악산 가는 길에 위치한 홍천소재의 공공개발지역 근거리에 자리한 넓은 주차마당이 있는 휴게소와 울타리하는 **큰시설을 갖춘 주유소**입니다.
◆**자본투자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공사직 퇴직이후 새로운 인생을 미래의 땅인 강원도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실 분 방문상담 환영!**
0366)435-8451
소장 정 희 성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 모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원사
0331)262-0606

구 직
50대 독신남자로서 사찰에서 종무일 · 사무장직 · 운전직 겸 처사로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대형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0351)41-1152 박성훈
※ 주간에 전화 안받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평생을 모십니다.
절 신축불사(지장 · 명부시왕단)에 동참하실 재정능력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동참하실 분은 평생 절에 모시며 사후의 장의일체 49재 및 제사를 봉행해 드립니다.
02)888-1642
011)686-9925

• 수 련 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인 쇄 •

다모인기획
각종 고급인쇄
특수인쇄
명함, 스티커, 마스타, 옵셋
T. 02)275-2650
F. 02)268-7421

• 법회 · 공연 •

● 무료담선법회
:월~금 오전10~12시까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 금강경
●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인 · 대학생: 월·수·금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 · 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안숙선 판소리공연
(불타전-부처님의 생애)
■ 때 : 올해 4월 26일 오전 10시
■ 곳 : 도솔산 도안사
■ 대본 : 김재영(천보리회 법사)
■ 작창 : 안숙선(국립창극단장)
대한불교조계종 반야바라밀결사
보현도량
T. 0334)676-8700
F. 0334)676-8704

국 악
전통무용
공 연
경로 · 환갑
각종 공연행사
기획 · 상담 · 공연
02)925-1303
서울예술공연기획
신 상 철

• 불교미술 •

탁자,닫집,법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창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육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전당 **불 교 조 각 원**
TEL: (02)738-8447~8

• 탈종공고 •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귀하
■ 사찰명 : 광불사
■ 소재지 : 영등포구 신길2동 221-54
■ 승 명 : 이 창선(법명:보법)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98. 4. .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장의 · 납골당 •

21C 장묘문화를 열어갑니다.
★ **종합납골당** '영묘각'
개인단/부부단/가족단/은증단/법당/합동용안/영구위패용안
★ **종합장례서비스** '백팔(108)상조회'
아직도 다른곳의 손으로 장례를 치르십니까? 석왕사 직영 108장의사에서는 전국 어디나 출장 장례를 올려 드립니다 상조회에 가입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운산 석왕사 직영
백팔(108)상조회/장의부/영묘각 사무국
24시간365일상담/출장예기 032)6128-108/032)6673-404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청우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여 행 •

각국 할인 항공권 및 비자안내
미국비자 · 일본비자
중국비자 그외 각국비자
※ 여권발급 · 각국 할인 항공권 성지순례 상담(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일광여행사**
대표전화 02)736-6272

• 필 방 •

대흥당필방
02) 732-7326

대신당 필 방
인사동
02) 732-2830

• 승 복 •

대성승복
02) 739-6287

가람승복
02) 739-0080

• 기 타 •

목암주나무 묘목 판매
062)222-6003 (주간)
062)234-0095 (야간)

토굴에 정진하는 스님입니다.
중고승용차 필요하여 시주하실분 기다립니다.
011)510-2449
015)5971-7118

행운결혼상담소
모범허가업소
초혼 · 재혼 전문
만남에서 결혼까지 책임지고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비밀 보장 (부모님 상담환영)
02)960-4564~5

임대문의
전통찻집과 사찰음식 하실 분
◆ 최고급 시설 완비, 즉시 입주가능
◆ 방 2개, 50평, 오지
◆ 보증금 오천만원(월세 오십만원)
◆ 권리금 없음(신설)
◆ 포교와 더불어 하실 분(환영)
032)522-2584(야간)
019)212-5177(야간)
(토 · 일 오전 연락가능)

• 사찰안내 •

◇ 경북 경산 남천면
◇ 한옥 2채
: 사찰개조 적합
053)752-8044
015)746-9922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 위 치 :부천시 괴안동
◇ 평 수 : 건평 40평 (상가건물내 위치)
◇ 가 격 : 보증금 1500, 월 60 전세 5,500
◇ **상담후 절충가능**
032)663-0340
032)341-6760
011)766-8562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 위 치 : 서울시내 **북한산 국립공원 안**
◇ 국유지 : 약 3천평
◇ 전통 목조 법당 동굴 산신각 등 건물 6동
◇ 계곡,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 격 : 6억 5천만
※ 주직: 02)512-3092

◆ 사찰 양도
◇ 사찰부지 : 650평
◇ 대웅전 : 27평(목조)
◇ 요사 : 30평
◇ 매가 : 1억 2천
◇ 위치 : 평창 산속 약수와 계곡이 있음.
(주)천운 나강민 합장
0371)762-0101
011)735-4168/012)932-4168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부 지 : 300坪 도자(年 30萬)
◆법 당 : 15평 개인등기
◆요 사 : 22평 개인등기
◆시 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가 액 : 2천 9백만원
◆특 징 : 대전 시내권에 소재한 사찰로서 가장 저렴한 가액으로 인수받아 입주 즉시 법회가능합니다.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외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무속인,보살및 대리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주)동국불사
상담전화 : 02)512-4447
※ 출장중이 많습니다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호출상담 : 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 부산시 구서동 선경1차
포교당 45평
◇ 전세 1,500만
◇월세 80만
※ 전세 · 월세 조정가능
051)517-2080
〈종무소〉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부 지 : 60평
◇ 건 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 4칸, 부엌 · 목욕탕
◇ 가격 : 1억 3천만원 (절충가능)
02)936-7032
011)419-7032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서울 마포구 성산2동 동사무소앞
◇ 건물보증금 : 천만원에 월세 55만원
◇ 시설양도금 : 1,500만원 (고급시설완비)
◇ 총건평 : 35평중 법당1칸, 방2칸, 부엌 1칸,샤워및 화장실 1칸
◆ 베란다및 옥상 사용가함
02)374-5295
011)742-2955

◇ 위 치 : 강원도 영월 (제천에서 더 가까움)
◇ 평 수 : 73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
- 산신각, 요사채 4동(총건평 90평), 석등, 석탑,
- 방10개, 화장실
◆ 기도도량으로 적격임
◇ 가 격 : 1억 3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0373)374-1765

■ **암자터**
◇ 위 치 : 충남 금산군 (금산시내에서 10분거리)
◇ 대 지 : 206평
◇ 요사채 1동, 구옥 1동, 법당 1동
- 입실부엌, 기름보일러
◇ 가 격 : 3천 7백만(매매가)
◆ 임대가능
0412)53-7134
016)407-7134

◇ 위치 : 경북 청도
◇ 대지 : 208평
◇ 건평 : 신축주택 30평(기타 40평)
◇ 가격 : 8천만
◆ 특징: 교통, 산수호, 100m 암반수 마을과 격리된 조용한 곳
0542)71-0847

대구내사찰 구입합니다.
053) 255-1772 357-7986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찰나찰나 나투어 변하니 집착 말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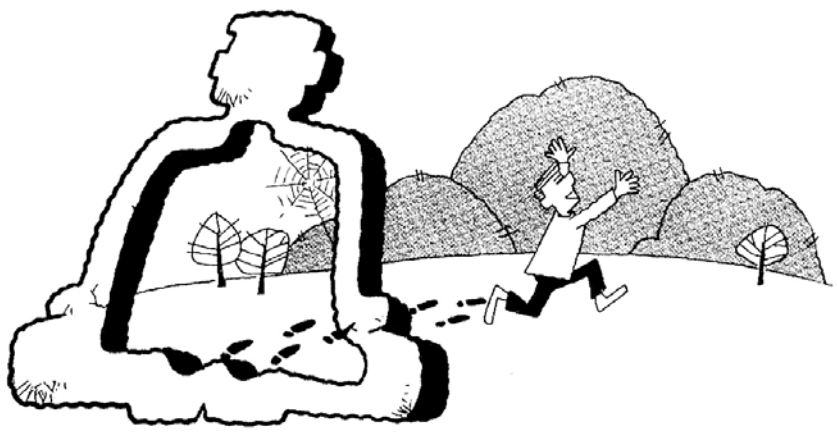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심봉잡고 몸을 흐르는 물같이 보세요"
"마음에 욕심 넘치면 무서운 장마 만나요"

우리가 오늘(4월5일)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본래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비가 와서 들어설 자리도 변변치 않고 해서 마음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나무 밑에서도 설법을 하셨다니까….

살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물만생 중에 하(下)의 생명들은 육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산다는 생각 말입니다. 거듭거듭 죽으면서 거듭거듭 살고 또 거듭거듭 먹고 먹히며 삽니다. 사람 역시 한철 사는 동안에 태어났다 하면 모두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나 허덕거리면서 사는지 늙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동안 뭘하고 살았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회향을 할 때가 되니까 살아온 세월이 너무도 허망하고 섭섭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늙어서 회향을 할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무거운 마음으로 회향을 한다면, 그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이 한 세상을 또 살아야 하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되도록 사람의 할 도리를 잘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회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중세계는 상세계와 하세계를 잇는 교차로와 같기 때문에 하세계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육을 뺏기는 게 아니라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아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해봐서 그렇지 이 몸 속에 주인이 없는 집은 반드시 뺏깁니다. 주인이 있는 집은 내 집을 그렇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집을 지키는 내 주인이 없다면 어떤 지경에 이르러서는 꼭 뺏기고야 맙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인 없이 사는 집과 주인이 있는 집은 어떻게 다를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인이 없는 집은 어디 한쪽이 기울어지든 폐가가 되든 자기가 자기 집을 고칠 수가 없고 잘 다듬어 놓을 수도 없고 잘 이끌어 갈 수도 없죠. 또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들르고 빈 집이니까 그저 누구나가 다 자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주인이 있는 집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안에 안보이는 자기가 있어 엎어져도 짚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빈 집이라면, 주장자가 없는 빈 집이라면, 거미줄도 생기고 온갖 무리들이 다 와서 그 집이 헐어나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인을 발견해서 세워라 이런 뜻이죠. 살다보면 가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주인 없는 집에 잡 생명들이 들어와 사는 사람들 보면 모두 여여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집에 주인이 있는 사람은 고생을 하든 안하든 마음은 첫째 편안하고 풍족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을 해드리는데 이걸 그저 말로만 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육체가 바로 돌아가는 바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심봉이 꽂혀 있지 않으면 잘 돌아갈 수가 없죠? 심봉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심봉이라는 것은 자불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본래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죽거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바퀴가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루동안 지나가는 생활도 찰나찰나 화해 나투면서 함이 없이 여여하게 돌아가건만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미진해서 여여하다는 생각은 다들 안하세요. 그리고 또 찰나찰나 화한다는 생각도 안하시구요. 찰나찰나 화한다는 건 변한다는 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변하느냐. 항상 얘기하듯이 이것 보면 저것 보고 이것 들으면 저것 듣게 되는 것이 바로 화하는 도립니다. 이것 들으면 저것 들어야 하고 여길 가면 저길 가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는 등 이 대중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모두가 그러합니다. 한발짝 떼어놓으면 한발짝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먹고 지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먹는다 하더라도 먹었으면 벌써 그건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침죽 먹었느냐?" 하면 "식기 닦았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되죠. 먹은 것은 이미 과거로 돌아갔는데 "밥 먹었습니다." 하면 되풀이 하는 얘기가 되니까요.

우리 살아나가는 중에 여러분은 즐거운 게 몇 알갱이나 되겠습니까? 즐거운 일은 쥐뿔 만하고 괴로운 것은 태산 같으니 이게 뭘 그렇게 즐겁게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즐겁게 살려도 해도 태산 같은 짐을 짊어졌으니 어찌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 짐을 내려놔라, 내려놔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짐을 내려놓을 것이냐. 항상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찰나찰나 변하고 나투어서 이미 과거로 돌아가니 그걸 집착하지 마세요. 돌아간 건 이미 돌아갔으니 집착하지 마시라구요. 여러분이 때에 따라선 꿈을 꾸고, 또 형제간이나 친척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항상 집착을 하게 되죠. '잘 살아야 할 텐데…' 하고 관해주게 되는데 그것도 집착입니다. 식구들한테 집착을 하면 오히려 정말 받아먹을 것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보이는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는 것이니까요. '불성'이다 '주인공'이다 하면 못알아 듣는 이치가 있을까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는 자기 속에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자기는 보이는 자기가 엎어져도 짚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지팡이는 요술지팡이와 같습니다. 찰나찰나 함이 없고 함이 없으면서도 현실에 넉넉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광대한, 그리고 묘한 마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연결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요소요소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로 하나하나의 보살들로 이름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부처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움죽거리는 몸뚱이고 저 부처님은 움죽거리지 않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움죽거리지 않는 부처님 몸은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부처님이다' 한다면 너무나 커서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크다고 합니다. 너무나 커서 이 우주를 두루 하고 계시죠.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모두를 말입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체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 발로 한 군데를 뛰어도 넉넉하게 적다 많다, 길다 짧다 하는 게 없이 한 걸음에 뛰시니까 말입니다.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님과 같이 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소식이 왔다 할 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착이 없이, 붙지 말고, 이유 없이 무조건 '알았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벌써 여기서 한 참나에 한 걸음을 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한걸음이라고 합니다. 대문 바깥도 한걸음이요 우주를 벗어나도 한걸음입니다. 미국을 뛰어도 한걸음이요 이 문 밖을 뛰어도 한걸음이니 모두가 한발도 한걸음을 뛰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그 몸속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유전성이나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인과성 이런 것들이 주둔해 있는지 시시때때로 나올 때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내 어찌 한탄을 안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 모든 것을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주장자가 다 있어서 정신계를 다스리니까 물질계도 같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저승과 이승을 정신계와 물질계라 한다면 한발자국으로 정신계를 떼고 한발자국으로 물질계를 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으로는 한참나이니까요.

우리가 앞으로는 살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앞으로는 더욱 내 몸이라는 집 속에 주인을 세우지 않고는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66)

약도라도 있어야 내 집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생활의 모든 것을 자기 뿌리에다 일임하라. 놓아라. 먹는 것 굶는 것, 잘사는 것 못사는 것, 되는 것 안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등 그 모두는 뿌리가 하는 것이니 뿌리에 다 맡겨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잠재해 있는 내 실상 본래면목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 믿지 못하면 도와는 거리가 멀다.

주인공이 나의 근본임을 진실하게 믿고 관할 때에 모든 걸 주인공 자리에 놓을 수 있게 된다. 놓는다는 걸 모르겠거든 맡겨라. 맡기는 걸 모르겠거든 부셔버려라."

놓으라, 맡기라고 하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막연해서 어렵다고 한다. 뭔가 딱 부러지는 방편이 없느냐고 한다.

놓아라!. 방하착!. 많이 듣고 많이 보았지만 거두절미한 채 놓으라고만 하니 뭘 어떻게 놓는 것이냐고 묻는다.

계율처럼 하라 하지 말라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 염불 · 기도 · 사경 · 정근처럼 실제적인 것도 아니니 어떻게 수련하고 닦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고 한다.

딱 부러지는 방법, 보다 실제적인 방편이라면 분명 따라하기가 쉬울 것이다.

가령 염불이라면 하루에 몇번을 했다, 또는 얼마동안 계속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 실제적이다. 절을 한다면 백팔배, 삼천배 하며 셀 수 있으니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본래 면목을 참구하는 수행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번뇌 망상을 잠재우고 하심하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나의 근본실상을 밝히는 수행이 되지는 못한다.

거기엔 뭔가를 한다는 형(形)과 상(相)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놓는다 맡긴다 관한다하면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비록 놓았다고는 하나 진행, 진도가 보이질 않는다. 소극적인 것 같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생소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놓고 맡기고 관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만 자신을 되돌아 보는데 익숙치 않은 탓이다. 우리는 늘상 외부세계의 형상에 얽매여 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게 몽땅 바깥 세계의 그 무엇을 상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수행의 과정도 대상화하고 싶어지고 그래야 하는 맛 닦는 맛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놓고 맡기고 관하라 하는 것은 '나'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놓고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참구해보라는 것이다.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의 근원을 캐어보면 거기엔 으레 '나다, 내가 한다, 내 것이다.' 하는 아상(我相)이 자리잡고 있다. 신 · 구 · 의로 짓는 일체의 행업(行業)은 바로 이 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놓고 맡기고 관하라 하는 것은 아상을 죽이고 '나는 누구인가?' 의 그 '나'를 관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닫는 마음의 행로를 안으로 되돌려 나의 실체를 탐구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참구하는 것이다.

놓고 맡기고 관하라 함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이름이다. 나에서 출발하여 나에 도달하는 것이다. 내가 출발지요 도착지이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출발해서 나에게로 가는 것이다. 내가 나인 줄 알고 있는 거짓 나(아상)와 참 나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이니 출발지와 도착지가 그 자리요, 나온 자리가 들어가는 자리인 것이다. 그 구멍은 한 구멍이다. 그러기에 그 구멍에 다시 놓고 그 구멍에 맡기고 그 구멍을 관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짓 나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고 참나가 그 구멍에서 나온다. 다 나의 내면의 일이니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나와 친숙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다만 안해보았기에 익숙치 않을 뿐이지 어렵지도 막연하지도 않다. 눈을 안으로 돌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제 집에 들어 앉아서 제 집 찾는 방법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누구라도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응답할 것이다. 제 집 찾는데는 따로 약도가 필요없다. 그러니 제 뿌리를 믿고 제 뿌리에 놓고 맡기고 제 뿌리를 관하라 하는데 달리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여기가 내 집이요 내 집 찾는 방법을 내가 아는 데 말이다.

다만 문 밖을 기웃거리지 말고 '나'를 화두삼아 눈을 안으로 돌려 그 자리 그 구멍을 관하면 그것이 도의 길이 된다.

협찬 : 고재필 · 오선아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무는 뿌리 믿기에 봄오면 꽃이 피죠

☞ 17면에서 계속

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예요. 정신을 뺏기 그 정신을 뺏아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내 집이 내 정신을 세우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나갈 길이 없는 거죠. 퍽퍽 나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껍데기만 왔다갔다 하고 사는 게 되고요. 그러니 죽을 때 가선 허무한 생각에 말할 수 없이 남모르게 눈물을 흘려야만 하죠. 나를 바라보고 사는 주위 사람들 생각해서 내놓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으니 이게 엄청난 문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안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부라고 할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나무들은 본래 뿌리가 있는 것 보시죠? 우리도 본래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본래 자기 뿌리가 있는데

"본래 자기뿌리 있는줄 모르고 먼산보고 '잘되게 해주시오' 밖으로 빌면 무슨소용있나"

도 불구하고 자기 뿌리는 모르고 그저 먼 산 바라보고 '잘되게 해주시오'하고 기도나 하고 안되는 것 되는 것을 다 한데 갖다 놓고는 바깥으로 기도하죠. 그 무슨 소용 있습니까?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걷어야 하는데 이게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자꾸자꾸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말을 하는 것은 내 육신은 이렇게 허덕허덕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내 주장자에선 둘 아니게 중심을 잡고 자기 몸 보기를 저 물 흘러가듯이 보라고 그럽니다. 우리네 몸은 지금도 쉴 새 없이 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고 깨고 살고 하는 게 그냥 물같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물이 온전합니까? 거긴 흙탕물도 들어갈 수 있고 파도도 칠 수 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죠. 욕심이 너무 많으면 물이 너무 많아서 넘치게 됩니다.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무서운 장마가 오게 되죠.

그러니 마음으로 생각을 잘해서 넘치지도 말고 줄지도 않게 그냥 평등공법으로서 자기 몸뚱이가 고생을 하든 잘하든 못하든 탁 놓고 지켜보면서 그냥 유유히 여여하게 가시란 말입니다. 내 몸뚱이를 붙들고 아웅다웅 해도 그건 집이 망가질 뿐이지 지켜지지 않거든요. 친척이 그럴 때도 착이 없이 아예 팽개쳐버리고 관하고 놔야 그쪽에도 둘이 아닌 까닭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온통 '아이구, 죽게 됐다는데, 이거 살아야 할텐데…' 하고 아둥바둥한단 말입니다. 가깝게 있든 멀게 있든 마찬가지죠. 진짜 믿는다면 탁 팽개쳐서 놓을텐데 믿질 못하니 그렇게 야단이죠. 오히려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놓으십시오. 이게 꼭 죽고 사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 모두 다 있는 겁니다. 어떠한 거든지 적든지 크든지 '너 알아서 해!' 하구선 딱 말겨놓으면 알아서 하지만, 말겨놓지 않고 쥤다 뺏었다 쥤다 뺏었다 하면 영 그건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 누구에게 책임을 맡겼으면 그냥 탁 맡겨야 할 텐데 의심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잘못되는 게 많죠. 그러면 상대는 의욕이 생기지 않고 책임감이 들지도 않죠.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사에서 자꾸 도둑을 맞아요. 누가 그랬는지 마음으로는 짚이는데 물증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루는 두 사람을 불러다가 아예 관리인으로 책임을 지웠대요. "너희들 밖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아예 도둑맞지 않도록 해라." 이랬거든요. 그날부터 도둑이 없더랍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만약 사람을 시켜 물증을 찾으려고 했다면 회사가 무슨 꼴이 됩니까. 양심을 품게 되고 그래서 인과응보가 생기고 원수가 되고 보복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그냥 끝간 데 없이 따라 다니는 거죠, 복수가.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저놈은 참 나빠. 저놈 하는 건 능숙하지 못한 데다가 일도 잘 못하고 못된 놈이니까 목을 제지만 너그럽지 못하게 태어났어도 너그럽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면 되는 겁니다. 내 집이 아무리 못났어도 내 집은 내 집이죠. 윈두막 같아도 내 집은 내 집이예요.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주인만 있다면 그것은 어떡하든지 언젠가는 내 집을 크게 잘 짓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더 자세히 말을 안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의 몸이라는 수레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심봉이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같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광대한지 그 심봉으로 하여금 바퀴가 점프를 해서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자기가 집을 떠나서 수십만 개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십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선 미생물에서부터 부처에 이르기까지 아니 되시는 게 없이 전부 내가 되어 주시죠. 찰나찰나 말입니다. 그러니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내 형제가 따로 없이 아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는 없다'하는 데서 부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저 나무들을 보세요. 가을이 되면 저절로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도 그 가지는 내년 봄에 또 필 것을 생각하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묵묵히 인내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땅 속에서 뿌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이 올라옵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있고 그 뿌리를 믿고 있기에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여여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런 나무들은 한 해가 지나야 꽃이 피지만 우리는 한 찰나란 말입니다. 고등동물이기 때문이죠. 내가 내 뿌리를 믿지 않으면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는 나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해야만 견성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름이지만 말입니다. 견성을 했어도 견성했다고 전부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배우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체가 나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 어떤 것을 남이라고 밀쳐 내겠습니까? 그러니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불쌍함도 나 같이만 생각해라, 높다고 위로 생각하지도 말고 낮다고 내려서 생각하지도 말라, 부처님도 나와 같이만 생각해라, 그리고 남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한다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공한 것이며 불교라는 자체가 머리 깎은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불(佛)이니 이미 그 속에 포함돼 있죠. 그리고 물 안에서 고기들이 사는 것도 교(敎)이며 우리들이 사는 것도 교이며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게 전부 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무의 세계나 유의 세계나, 즉 말하자면 둘 아니게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이 진리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자기를 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자기는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보이는 자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못났든 잘났든 거지든 부자든 지위가 낮든 높든 반드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공장을 하는데 말입니다. 물건을 팔아도 수금이 안되고 기계는 자꾸 고장이 나니까 하루는 앉아서 막 울었대요. 그런 얘기를 와서 하길래 내가 "그 기계도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의 몸뚱이나 당신의 몸뚱이가 둘이 아니지. 그것도 다 주인공이 하는 일이니까 당신은 심부름꾼으로 살아. 주인공에다 다 맡겨서 지도를 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면 좋겠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 수금도 잘되고 기계도 고장이 안나고 아주 잘 돌아가더랍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와서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제 머리를 수십 번 깎아 신을 삼아드려도 스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당신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할 일이지 나한테 그럴 게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사는 게 갚는 거지, 나한테 뭘 갖다주고 이래서 갚는 게 아니예요. 내 마음의 뜻을 알고 자기의 마음의 뜻을 알고 일체가 다 부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 그게 갚는 거예요." 그랬어요.

살다보면요, 저 고기 한 마리 벌레 한 마리 사는 것도 참 애석해요. 우리네 살림살이와 똑같거든요. 모습이 다르고 생활은 달라도 사는 이치는 똑같아요. 어느 땐가 예전에 산을 걷다가 보니까 개미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질질 끌고 있으니까 개미 세 마리가 달려들더니 그걸 끌고 갑디다. 개미도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 도리를 모르고 그냥 갑니까.

또 착을 두지 마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장님인 노모님이 계셨답니다. 입산을 한 뒤로 한번도 아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 아들을 영 찾을 길이 없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에 어느 산 밑에서 지나 다니는 사람들 발을 씻겨 줬답니다.

아들 스님은 한 쪽 발가락이 남들보다 하나가 더 있으니 손으로 발을 씻기다 보면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랬던가 봅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스님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똑같은 발만 두 번 내놨거든요. 처음엔 어머니가 아들을 몰라보고 보냈는데 저만치 산위로 올라가고 나서야 생각하니 자기 아들이 틀림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르면서 좇아올라가는데 아들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란 말이예요. 그러니 어머니는 개울에 빠져서 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답니다. 그걸 보고 스님은 어머니의 육신은 벗어서 떠나보내고 영혼만 건져서 받드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더랍니다. 발 씻길 때 아는 척을 했더라면 영원히 그 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텐데 이렇게 밝은 곳에 오게 되어 이 도리를 알게 되었으니 이 고마움을 어떻게 할 수 없노라고 하시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과 영이 한데 합쳐도 영이지 다른 것이 없어요. 다 한데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영계성이 들렸다 하면 그 사람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그냥 착을 두지 말고 영 그 자체, 그 마음만 여기다 넣고는 관해주고, 생각날 때마다 거기다 넣으면 오히려 영계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몸으로 붙들고 마음으로 붙드니까 도저히 없어질 수가 없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남을 구제한다 하는 것도 당장 먹을 게 없어 배고픈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먹을 걸 주는 것이 보살행이지, 배고픈 사람 보고도 광개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다고 뭘 들고 온다면 진짜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산 부처는 부처 아닙니까? 목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죠. 그리고 내 자부처가 제일 가깝지 딴 데 부처가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 내 부처가 목마른 나를 먹일려면 내 몸을 끌고 가서 먹여야 내가 시원하지 이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더라도 내 목마른 걸 대신 면해줄 수는 없습니다. 배고프면 자기가 밥먹고 목마르면 자기가 물 마셔야죠. 먹을 게 없으면 주인공이 다 먹이게끔 하거든요. 자기 자부처가 자기가 형성시켜서 이끌고 가는 자기 몸뚱이를 안 먹이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죽이나 살리나 보자 하고선 남들은 미숫가루를 해가지고 산엘 들어간다는데 나는 그것도 다 내버리고 홀홀단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떠났어요. 어느 때는 잠잘 데도 없고 배도 고팠죠. 아주 쌀쌀한 가을에 갈대가 무성하고 그랬는데 참 추웠어요. 길을 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얘, 저리로 가보자.' 이래요. 그래서 갔더니 갈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때는 옷도 변변치 않았는데 갈대 속을 헤치고 들어갈려니 다리에 피가 나고 발바닥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디 들어가 보자, 이까짓 몸뚱이야 언제 가도 갈 건데 뭘.' 하고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입니다. 이만한 산짤기들이 그냥 빨갛게 익었어요. 그래서 그걸 흠씬 따 먹다 보니까 이젠 살겠더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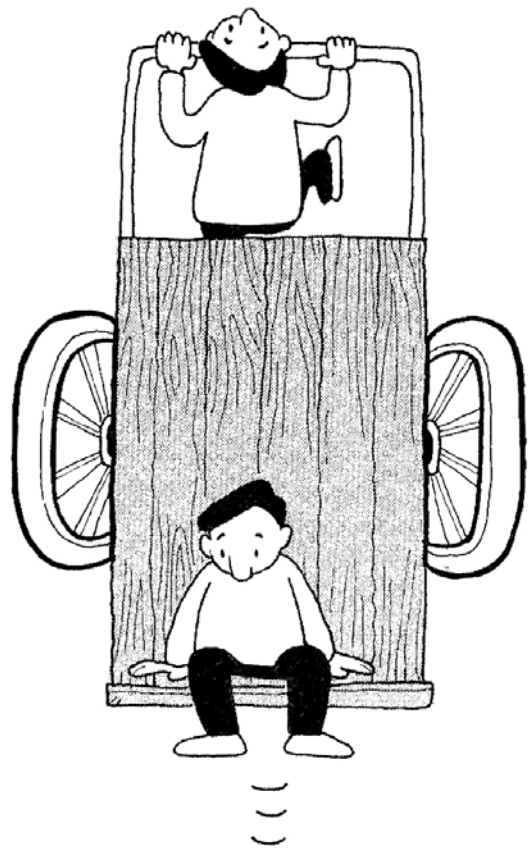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없는 빈집' 정신도 물질도 못다스려

"남을 나와같이 생각해 아프게 하지 마세요"

물질보시도 중요한지요

문 스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법회 때 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한 숟가락을 남에게 베풀면 두 숟가락 세 숟가락이 돌아오는 걸 아세요?' 하고 질문 아닌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 제 체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늘 물질보시보다는 마음보시, 즉 보이지 않는 무주상보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남에게 뭘 베푼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님과 인연이 되고 마음공부를 하면서부터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 간혹 스님을 찾아 뵙고 정성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살부름을 해주셨는데 제가 저녁 식탁에서 "오늘따라 이상하게 좀 수입이 많았다."고 얘기하면 꼭 어머니가 "내가 오늘 선원에 다녀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두 번이면 우연의 일치라고 할텐데 이상하게도 항상 일치가 됐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이게 참 틀림없고 묘한 도리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갖게 됐는데 계속 지나다보니 제 주위 사람들에게 스님 법문 테이프나 법문책을 권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면 꼭 그 과보가 정확히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고 재미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까지 물질로 하는 보시가 항상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는 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날 전날이었습니다. 그 날도 스님께 세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문득 입춘 축원 올리는 걸 잊어버리고 온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전부 차 안에 타고 있던 상태여서 '뭐 이번 한 번은 빠질까?' 하다가 '아니지, 그건 해야지' 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무처로 다시 올라가서 접수를 하고 내려갔는데, 처음에 차를 탈 때는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오른쪽 뒷 바퀴로 눈이 갔습니다. 바람이 많이 빠졌더라구요. 그 날이 설날 전날이었기 때문에 어느 카센터에서 오늘 같은 날 영업을 하겠나 어 걱정을 했는데, 바로 선원 앞 카센터가 문을 열어놨길래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른쪽 앞바퀴는 바람이 많이 빠졌고 뒷바퀴 두 개는 못에 찔려 있었어요.

저는 그날 선원에 들렀다가 금왕에 있는 조상님들 영탑공원에 참배를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상태로 고속도로로 갔었더라면 대형 참사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다 고치고 금왕으로 가면서 느낀 것이 '아, 물질보시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생사와도 관련이 되고 마음공부를 하고 지혜가 넓혀지기 위해서도 물질보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스님 말씀에 지게로 나무 한짐 해주는 것보다 마음보시가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마음 보시도 물론 해야 되지만,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기 위해서도 주지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물질보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바른 것인지 스님께 여쭙습니다.

답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한 바가지 주면 이자가 늘어서 세 바가지가 올 것이고, 한 바가지를 훔쳐주면 세 바가지를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 채워줄 수 있는 자기의 보배가 모두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은 찾아먹을 생각은 안하고 남의 것을 훔칠려고 한다면 그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남을 업신여기면 자기가 업신여김을 받고 남을 때리면 내가 맞게 되고 남을 눈물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이 나는 이치와 같은 거죠. 공을 저 벽에다 치면 공이 튀어 오는 것과도 같죠.

어딜 가든지 자기한테 본래 갖추어 가지고 있는 보배를 잘 쓰십시오. 사람들은 본래 나쁘고 좋은 것, 해야 될 일 안해야 될 일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본래 갖추어져 있는 마음을 좋은대로 잘 쓰면서 사십시오.

혈 천 한마음

"봉축등 내손으로 만들어요"

불기 2542년

종로 법련사 법당.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불빛이 환하다. 법련사 청년회(회장 정은경) 회원들이 제등행렬때 사용할 국기등과 전통등 제작에 한창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등행렬에 들고나갈 등은 높이 60cm 규모의 국기등 10개와 각양각색의 전통등 30개 그리고 연등이다. 청년단체들은 예년에 장엄물을 준비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대규모 장엄물은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



◇법련사 청년회 회원들이 만드는 연등에는 지극한 불심이 녹아든다.

IMF 맞아 대형장엄물 대신 연등 장엄

사찰 · 단체 다양한 '등' 만들기 '한창'

대신 전통등으로 눈을 돌려 대나무 살을 직접 손질하고 일일이 살을 만드는등 정성을 쏟고 있다. 청년회 회원들의 대다수가 직장인인만큼 저녁 늦게나 모이는 것이 가능해 거의 매일 저녁 법련사 법당엔 등을 만드는 법우들의 정다움이 가득하다. 법련사에 모여 만들고 있고 전통등 제작에 사용될 대나무 등살은 정은경회장의 집에서 오손도손 모여 다듬었다.

정은경회장은 "이제 등살만지는 작업이 끝나 등을 제작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평소 잘 안보이던 법우들도 참여해 회원들의 만남의 장도 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경제적 어려움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제등행렬에서 사용할 장엄물도 등의 형식으로 좀더 간소화하거나 제작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봉은사는 지난해 팔모등을 선보인데 이어 올해는 목어등을 준비하고 있다. 목어등은 봉은사 전통연구회(회장 백창호) 회원 20여명이 한달 반 전부터 제작에 돌입, 마무리단계에 있다. 봉축위원회가 장엄물의 종류를 전통등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봉은사 봉축기획단, 전통등연구회와 함께 기획한 것이다.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에서도 올해는 커다란 장엄물 대신 아기자기한 컵등제작에 몰두하기로 했다. 연등축제가 열리는 26일 컵등만들기 시연과 판매, 컵등만들기 안내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컵등의 양식을 벗어난 독특한 연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부처님오신날의 뜻을 기리며 등을 만드는 불자들의 손길속엔 불심이 피어오른다.

강지연 기자

건강 365일 〈19〉 홍화씨



이 만 성 〈영재한의원 원장〉

요즈음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홍화씨가 골다공증에 특효약이라 하여 선전을 많이 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할 것도 같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약효에 대한 맹신으로 남용을 할 것 같아 정확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홍화씨는 피를 보충해주는 빈혈치료제와 같은 효과가 한시적으로는 나타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골다공증(骨多空症)을 치료한다는 것은 무리다. 뼈가 부러졌을 경우나 금이 갔을 경우처럼 일시적인 경우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여 권할만 하다.

골다공증이란 뼈 속에 있는 칼슘성분이 빠져나가 뼈 속이 비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체격이 작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뼈 속에서 왜 칼슘이 빠져 나가는가. 뼈 속에서는 계속 피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뼈 속에서 피가 열을 받으면 피가 흩어진다. 이때 칼슘이 빠져 나가는 것이다. 이와같이 피가 열을 받고 칼슘이 빠져 나가면 골다공증이 생긴다. 또 골막이 탄력을 잃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며 좌골신경통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관절염이란 병이 나타난다. 뼈 속에 산소공급이 안돼 고관절이 삭는 병이다. 피 속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고관절염이나 퇴행성관절염, 좌골신경통이니 하는 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마디로 빈혈에서 오는 혈액병이다. 빈혈은 왜 오는가. 원인은 췌장에 있다. 한방의학에서는 췌장에서 피를 생산한다고 본다. 우선 췌장에 이상이 있으면 빈혈이 온다. 눈이 피로하고, 입이 헐고, 잇몸이 붓고, 손발저림, 헛배부름, 속쓰림, 월경불순, 심장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췌장에서 피가 생산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진행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골다공증에는 췌장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

부러지거나 금간 뼈 치료효과 탁월

골다공증과 무관…두번 볶아 복용

복용법 홍화씨 8g~16g을 후라이팬에 볶은 다음 으깨서 달여 먹기도 하고 가루로 복용하기도 한다. 하루에 두 번 복용한다.



파라미타 지회 확산

진주 이어 청주 · 보은서도 창립

사천 · 하동, 마 · 창지회 곧 발대

'맑은 세상, 청소년 세상, 부처님 세상'을 걸고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진주지회(지회장 도공스님)가 19일 발대식과 함께 청소년 벼룩시장, 청소년 문화대축제를 열었다.

올바른 청소년 문화 정착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발대식을 가진 진주지회는 발대식 후에 청소년들의 그룹댄스, 꽁트, 창작무용, 노래, 사물놀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문화대축제를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충북지부 보은지회(지회장 김중규)는 4일 보은고등학교에서, 청주청원지회(지회장 최시선)는 11일 청주시민회관에서 각각 발대식을 가졌다.

현재 3개 지부 7개 지회가 활동 중인 파라미타는 사천 · 하동지회와 마산 · 창원지회가 결성 준비 중에 있어 전국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종립학교 봉축행사 '풍성'

동대부고 자비의 쌀 모으기 · 연등경연

능인중고 설법대회 · 교리퀴즈 게임

동대부고에 재학중인 황병용(2학년)군. 오늘도 수업이 끝나자마자 체육관으로 달려간다. 한 귀퉁이에 수북히 쌓인 연잎 속에 앉아 교정을 장엄할 연등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종립학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연등만들기등 다채로운 봉축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동대부고(교장 김원식)는 13일 연등만들기를 시작으로 5월24일 체육대회에 이르기까지 교내 봉축행사 계획을 세웠다. 20일부터 2일까지 교법사단이 주관하는 봉축 전국청소년 사경대회 사경물들을 접수받고 16일에는 연등행렬에 참석한다. 5월2일에는 전교생이 함께 봉축법요식을 갖는다. 1일에는 불교어머니들의 모임인 관음회의 봉축기념법회도 봉행된다.

동대부중(교장 우하수)은 28일에 각반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연등제작 경연대회를 갖는다. 17일부터 5월11일까지는 봉축기념 제3기 연꽃 불교어머니 학교를 개설한다. 동대부고와 부중은 결식학우돕기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을 22일과 27일 각각 시작한다.

명성여중(교장 안은자)은 21일 '자비의 쌀모으기'를 시작한다. 4월29일 봉축합창대회, 5월1일 봉축백일장, 5월27일 불탄미술실기대회 등도 마련한다.

전북김제 금산중 · 고(교장 조남열)는 25일 연등축제에 전교생이 참석해 농악대를 선두로 제등행렬을 벌인다. 5월3일 금산사 봉축 법요식후 학교에서 전교생이 오후 11시까지 관등행사를 갖는다. 5월17일에는 금산사 글짓기 대회에도 참여한다.

밀양 흥제중학교(교장 김봉식)는 20일부터 25일까지 1인1등 만들기를, 25일에는 제등행사에 참석한다. 27일부터 5월2일까지는 불우학생돕기 자선미 수집운동을 벌인다.

대구 능인중학교(교장 곽병숙)와 능인고(교장 이규곤)는 29일 '불탄의 의의'를 주제로 봉축 대설법회를 갖는다. 25일, 28일에는 각반 연등제작 경연대회를, 29일에는 교리퀴즈대회도 연다. 5월3일에는 모범신자표창과 두류운동장에서 열리는 법요식 및 제등행렬에 참가한다.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서정락)는 26일 봉축연합 대법회, 5월1일에는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을 벌인다. 2일 금정봉축제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경대회와 봉축백일장, 한글반야심경 암송대회 등을 연다.

남양주 광동중학교(교장 송상철)는 5월2일 불경 경구 게시, 백일장, 사생대회, 제등행렬을 갖는다. 3일에는 봉선사, 불암사에서 열리는 법요식에 참석한 후 사찰 정화등 봉사활동을 펼친다.

새싹불심도 봉축 '한마당'

음악회 · 사생대회 등 전국서 열려

연주회, 글짓기, 청소년 어울마당 등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각계에서 어린이 청소년 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봉축행사가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화연합회, 한국불교청년회, 목동청소년회관 등에서 주최하는 이들 프로그램은 다채로운 행사 기획으로 지역 어린이 청소년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새싹불자의 봉축행사

행사	시간	장소
부처님오신날 기념연주회	4/25 오후4시30분	한국일보 연주홀
불교웅변대회	4/26 오후1시	조계사 대웅전
봉축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	4/26 오전10시	보은군 교육청
새싹들의 큰 잔치	5/1	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삼광백일장	5/3	부산 삼광사 법화삼매당
제2회 백일장	5/5	문경 영신숲
제1회 꾸러기들의 작은 발표회	5/9	마산시 네서읍 강당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5/17 오후2시	동국대 중강당
제13회 연꽃백일장 및 사생대회	5/17	부산 광한리해수욕장
제3회 참나 청소년 봉일 환경 문화복지 예술대전	5/17 오전10시	보라매공원
포항시 청소년 어울마당	5/24 오전10시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

단 신

'맑은 종로거리' 봉사

동대부중(교장 우하수)과 명성여중(교장 안은자)은 18일 조계사에서 파라미타 분회 합동 선서식을 갖고 맑은 환경의 종로거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육바라밀 실천을 생활화하는 파라미타'를 주제로 열린 이날 봉사활동은 동대부중과 명성여중 파라미타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종각, 탑골공원 등지에서 쓰레기 수거, 거리 휴지통 닦기, 거리 껌자국제거 등으로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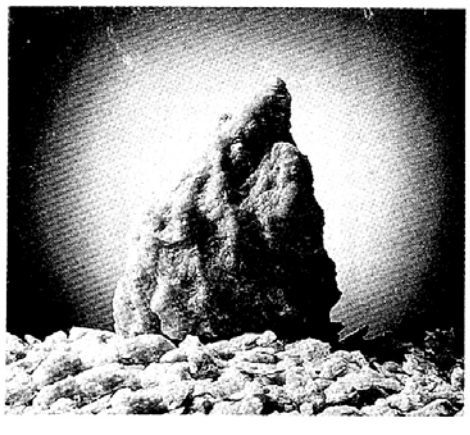
10억위한 부채탕감 서명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희년 2000연합이 주최하는 '10억의 사람들을 위한 부채탕감운동'에 동참해 청원서에 서명운동을 벌인다.

10억의 사람들을 위한 부채탕감운동은 21세기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세계의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대부분의 가난한 국가들이 진 빚의 미 청산부분을 2천년까지 탕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퍼블릭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生光石은 원석 그대로 입니다.
生光石은 자연이 빼준
마지막 축복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에서 살지 못하고
독성을 내뿜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소 젖보다 어머니 젖이 좋듯
사람에게는 자연의 정기가 좋습니다.
生光石은 강원도 영월에서 채광된
가공되지 않은 신비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의 파장 生光石, -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켜줍니다.

● 헬스톤 100

100% 生光石으로 만든
⊙ 헬스톤 100으로 시공된 집은

건강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드립니다.
·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 체질개선
· 미용효과 · 전자파로부터 보호

환경 상큼한 실내공기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드립니다.
· 시멘트 독성제거 · 실내 공기정화
· 결로 방지 · 균열 방지

위생 철결한 생활위생을 보장합니다.
· 곰팡이 서식방지 · 냉기 방지
· 해충 퇴치 · 피부질환 방지및 치료

경비 헬스톤 100의 시공, 경비를 되돌려 드립니다.
· 고온의 체감온도 · 우수한 열전도율
· 축열 효과 · 난방비 절약

● 생광석 108염주

◈ 생광석 108염주로 부처님 명호를 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1.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기도 원을 부처님께서 잘들어 주실것이며
2.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송하시면
어려한 어려운 일도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을 것이며,
3. 늘 지니고 다니시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실 것이며
4. 내 마음의 심성을 밝혀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곳이 곧 부처님 계신 법당이며
5. 생활속에서 작은 복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생광석 108염주를 늘 몸에 지니시면.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지십니다.

● 베게(학생, 사무직근로자, 노인, 애연가, 애주가)
1.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하다.
2. 뇌의 혈액순환과, 대사작용을 촉진시켜 잠을 푹 잘 수 있다.
3. 불쾌한 머리 냄새를 없게 한다.
4. 상처가 잘 아물고 머리결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한다.
5. 고개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 방석(한곳에 오래 앉아 있는 분, 주부, 자가운전자)
1. 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을 돕는다.
2. 배설기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불쾌한 냄새등을 없이 한다.
4. 복통이나 불편한 부위에 올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놓고 앉으면 차내의 담배 냄새등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차내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하며, 장시간 운전하여도 피로감이 거의 없다.
6. 여름에 오랫동안 한곳에 앉아 근무를 해도 히프의 땀띠나 사타구니의 축축함이 없고 쾌적하다.
7. 장기간 사용하면 치질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8. 방석(특)을 3개 연결하면 건강매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 냄새제거, 수족관 환경유지, 피부미용, 행운의 건강석, 난초 · 화초재배용 生光石이 있습니다.

● 韓國 生光石 허리벨트

한국 생광석 허리 벨트는, 사람의 세포 운동 파장인, 9.36 마이크론의 세포 활성 에너지를, 실 생활 온도에서, 효과적인 방사를 하는, 생광석 제품으로, 허리 부위의 세포를 활성화 하고,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허리결림, 허리 통증등과 생리통 등에 큰 도움을 주며, 허리 보호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미리 미리 보호하십시오.
허리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께 권합니다. ◈
1.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 장애에 의한, 허리 결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
2.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
3. 앉거나, 선 채로 장시간을 지내야 하는 분
4. 출산 후의 여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
5. 허리를 보호해야 할, 50대 이상의 남 · 여
6. 허리가 비만하고 허리가 유연하지 못한 분
7. 허리를 다쳐기 쉬운 스포츠 맨, 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8.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가정주부 또는 선생님
9. 허리를 고정한 채로 오래 있어야 하는 운전 기사, 낚시광 등등.
10.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허리, 허리는 나를 사람답게 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대들보입니다.

KSC 한국생광석주식회사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 12번지
TEL 서울: (02) 737-0695
대구: (053) 422-6661~2
창원 · 마산: (0551) 63-7296
진주: (0591) 53-5494

불자 세상보기

■ 인터넷 · PC통신 음란정보 '범람'

"청소년을 병들게 한다"

'정보의 보고(寶庫)'라는 인터넷의 햇살 아래 '음란정보'라는 음침한 그늘이 도사리고 있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불건전 정보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정보가 급증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과 성장에 큰 해악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가 최근 서울시내 중고교생 1천명을 대상으로 불건전정보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PC이용자(4백25명)및 인터넷이용자(2백32명)의 음란정보 접촉률이 각각 47.1%, 47.4%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운데 25%가 음란 사이트 접속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적발한 PC통신 불건전정보는 1만1백26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욕설(34%)과 음란물(17%), 음란물 판매광고(16%)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정보 등급제 시급
국제폰팅에 연 1천억원

이와관련 국내에서도 불건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독일 등에서 일부 시행중인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정보제공자(IP)들이 자율적으로 정보 내용에 대해 일정 기준의 등급을 부여해 놓으면 인터넷 내용 차단-선별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해 이용자가 선별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례로 미국 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RSACI)는 '폭력' '누드' '성행위' '언어' '뉴스' 5가지 범주에 대해 0부터 4까지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 정보통신부 한국언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인터넷 유관기관들은 등급제 시행에 필요한 기술표준체계를 마련중이며 공청회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가들은 '인터넷은 열린 자유공간'이라는 창립초기의 정신이 잊혀지지 않는한 정보제공자들의 자발적인 윤리의식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건전한 인터넷·통신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사회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한국통신에 따르면 음란성 음성정보인 국제폰팅으로 지난해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외화가 새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만도 총4천5백6건의 전화정보서비스 중 9%에 해당하는 4백15건의 '700서비스'가 불건전 정보제공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발됐다.

김재경 기자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들. 이들은 주로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음란정보를 접촉한다. 〈주간조선 제공〉

불교의 눈 "사이버 공간에도 正命의 법을"

흔히 〈화엄경〉의 '인드라 넷(Indra Net)'에 비유되는 인터넷과 PC통신. 이 가상공간에는 정보가 있고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들어 있으며, 종교적 신앙심이 있다. 또한 부처님께서 경계하셨던 탐·진·치의 속성을 지닌 우리들의 욕망이 거기에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 정토가 되고 예토(穢土)가 되기도 한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실현하는 세계이다. 미국 미시간대 조은수교수(불교철학)는 "인터넷이 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행위(업)와 그 결과에 대해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다. 가상공간 속의 인터넷에서 우리는 과연 팔정도 중의 하나인 정명(正命)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고 〈대중불교〉 기고문에서 지적했다. 경향신문 정보사업본부 이정 차장은 "인터넷 정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불교 등 종교 사이트들이 건전한 정보의 양산을 통해 인터넷을 불국토로 가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들었다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양측은 지난 3월 북경에서 적십자회담을 가진데 이어, 11일부터 북한의 제의에 따라 남북차관급회담을 열었다. 북한에 대한 비료제공 및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통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남북문제에는 이해관계에 따른 돌발변수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형제나 다름없는 남북이 다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크다. 남북의 화합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적 과제다. 인내와 지혜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화해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전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남북대화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 섞이듯"

▨부처님께서 코삼비국의 코시타 동산에 계실 때였다. 그 때 구심이란 비구는 항상 싸우기를 좋아해서 악행을 범하고 남을 앞에 두고 욕을 하며 칼이나 몽둥이를 잘 휘둘렀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구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너희들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부처님께서는 옛 인연담을 이끌어 말씀하시면서, '남의 잘하는 것도 보지 말고, 잘못하는 것도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증일아함경〉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저렇게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화합(和合)한 중을 모아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다툼의 근본을 뽑아라. 너희들은 또 마땅히 생각을 오로지 하여 스스로 관찰하라. 만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거든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써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라. 모든 비구들이여, 성내고 뒤틀어져 자상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질투하며 교활하고 허망하여 스스로 자기 소견으로 인해 그릇 받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견(邪見)에 헤매고 변견(邊見)과 함께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중집경〉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 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아끼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진실하지 않다느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 있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세계의 실상을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사유범천소문경〉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툼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취업정보 사이트 무료 5백여곳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취업정보 관련 사이트가 크게 늘어나 취업희망자와 실직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표〉

취업관련 사이트는 13일 현재 총 5백여개.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직업 유형은 보모와 단순 아르바이트직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컨설턴트등 전문직,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상근및 비상근 직원 등 다양하다.

취업정보 인터넷 사이트 현황

이름	URL(http://)
국제기구 취업정보	JOB.wonwoo.com/
열터넷 아르바이트 정보	sparc.yein.co.kr
사이버 집 페어	univ.unicorp.co.kr/cif2/
취업 뱅크	www.touch.co.kr/job/
큰틀월드 취업박람회	www.kntl.co.kr/kntlworld/job
신바람 알터정보	job.combase.co.kr/
JobBank	www.jobbank.co.kr/
월간 리크루트	www.recruit.co.kr/
미추홀넷 취업정보	www.ikom.co.kr/inchon/employ
사이버잡	www.jobis.co.kr/serdata/index1.asp
잡페어21	www.intern.co.kr/
노동부 취업정보	www/molab.go.kr/04.htm
사이버시티 취업마당	www.shinbiro.com

가톨릭 신자들 개신교 보다 불교에 호감

가톨릭 신자들은 같은 기독교 교파인 개신교 보다 불교에 더 호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톨릭신문'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의 종교별 호감도는 불교 유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종교인과 결혼할 경우 절대 반대하겠다는 신자는 11년전 43.7%에서 28.3%로 줄었다. 제사를 지내는 신자는 88%에 이르며, 택일이나 작명을 해봤다는 신자가 16.5%, 궁합을 봤다는 신자가 13.5%나 됐다. 이는 가톨릭이 같은 뿌리인 개신교보다 불교 유교 등 전통종교에 오히려 우호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흥미롭다.

4월22일 '정보통신의 날'

"21세기 정보대국을 향하여 극복 과제 점검해야 한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정부의 100대 과제중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준비'를 위해 ▲정보화를 촉진하여 1인 1PC 유도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전략적 핵심기술 개발 ▲다채널화 시대개막 및 디지털TV 방송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세기를 2년 앞에 둔 4월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극복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짚어본다.

▲밀레니엄 버그='2000년 컴퓨터 연도표기문제' 해결은 올해 상반기 안이 마지막 기회. ▲정보통신 범죄=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스파이 등에 대비, 법적(정부는 올해 안에 94개 정보화관련 법령 정비키로) 기술적 대비책 마련. ▲정보화 마인드=정보화 선진국의 1/5~1/3 수준인 국민 정보화 마인드를 개발하기 위해 교원 및 학생의 정보화 교육 강화(입시에 컴퓨터과목 포함등). ▲정보고속도로 구축=초고속정보통신망과 종합정보통신망(ISDN) 구축이 시급.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미디어 밸리를 조성하고 벤처기업과 소호(SOHO) 창업을 지원하며 패션 만화 영화 등 관련산업 연계 필요. ▲온라인 변칙 상거래=인터넷 규제 현장 제정(데이타 보호, 주소 할당, 음란물 접속 통제, 지역별 가이드라인 설정)등을 지켜보며 사이버 금융 사기등을 규제.

4월22일 '지구의 날'

불교환경교육원-크리스챤아카데미

"녹색공동체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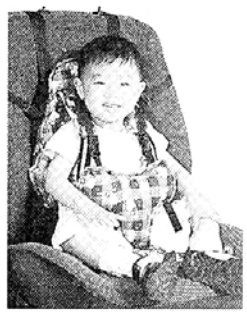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과 크리스챤아카데미(이사장 강원룡)는 환경부와 자원재생공사의 후원으로 10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녹색공동체운동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IMF 경제위기 시대에 범국민적 환경운동은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린다는 기본입장에서 공동체적·생태친화적 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복원함으로써 분열된 사회의식을 봉합하고 새로운 사회윤리를 창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발제에 나선 차명제 배달환경연구소 소장은 "모든 종교는 정신운동, 생활양식의 변화운동, 수행과 영성운동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자연·우주와 일치를 도모하는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종교단체의 실천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찰·성당의 방화등 종교간의 대립양상을 지양할 수 있는 지역 환경보존을 위한 종교간 연대활동 ▲생활협동조합운동 및 농어촌 자매결연 맺기 ▲구역법회와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한 환경생활 실천운동 ▲종교시설내에 신도들간의 재활용·환경상품 교환및 판매의 장 마련 ▲종교단체가 연대한 지역과 마을살리기 운동 ▲어린이 환경캠프, 청소년 환경수련회, 생태기행운동 등 종교별 환경교육 ▲성직자의 환경법회 및 예배를 통한 교화 ▲자연의 감수성과 깨달음의 영성을 심화시키는 인욕과 절제의 미덕 강조 등이 그것.

새상품 어린이 안전시트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쿠션겸용 어린이 안전의자 '아가랑 베이비 시트'.

하트모양의 가슴받이가 부착돼 있어 안전하고 활동하기도 편리하다. 앞·뒤좌석 겸용이며 어린이가 승차하지 않을 경우 접어서 허리받침 쿠션으로도 사용 가능.

(주) 예일상사. 3만8천원.
(02)418-0270

제137차 수련모임 (서울 · 부산 · 대구)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IMF 시대를 사는 힘과 지혜와 건강을 키웁시다!
물질문명에 찌든 현대인은 이제 누구나 참선할 때입니다.

선(禪)은 수십세기의 경험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통일법이며 인간완성법(깨달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내면을 평화롭게 하고 외면을 아름답게 하며 긴장과 경쟁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선의 심신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종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4월중 수련일시 / 4월 27일(월) ~ 5월 1일 (금) 매일 저녁 7:30-9:30
※ 매월 셋째주 1주일간을 정규수련일로하여 매월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집중적인 수련지도를 실시함.
◆수련촛점 / 참선의 기본 · 선식(仙食)호흡법 · 도기체조 · 단식법등
◆지 도 자 / 이성담(李星潭) 선사
명상의 스승. 평생동안 1일1식, 참선, 생식, 단식으로 일관해 왔으며 도가의 건강장수법을 집대성 참선과 더불어 인류의 완전건강법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 33권)

공개강좌(문답) 안내(서울)
●일 시 / 1998년 4월 25일(토) 오후 6:00 ~ 8:00
●장 소 / 본회 서울도장〈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B/D 2층〉
●참가회비 / 없음 ※ 교재 - 1만원(필요한 분만 신청)
●참가신청 / 전화신청(장소관계로 신청순에 의거 25명 마감함)
전화 (02)575-0130
※전화신청은 23(목), 24(금), 25(토)일에만 받습니다.
※ 찾소위치 / 전철3호선이용 양재역하차, 5번출구이용, 서초사회복지관 앞에서 마을버스 (08, 09)이용 삼호물산에서 하차, 삼호물산 반대편에 위치한 평화은행 뒷쪽 대장전기골목으로 20M 진입, 남방사선과 빌전물(흰색)

한국참선명상협회 · 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부산:051)501-8335~6/대구:053)742-9194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관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 × 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걸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갈아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 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9.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시 론

황해가 썩고 있다

어릴 적 재미로 비를 맞아가며 길을 걷던 일은 이제는 두려운 일이 되었다. 엘리뇨현상에 의한 세계적인 기후 이상은 우리의 지구촌이 걸려버린 환경오염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중 양국이 쏟아내는 공업폐수·생활하수 '원인'

자연은 이제 언제까지나 우리를 보호해 줄 것만 같던 후덕함을 잃어버리고 중병으로 앓아누워 인간에게 치유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반도국으로서의 우리나라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환경오염지역은 바로 바다이며 그 중에서도 황해는 가장 시급한 처방을 요하고 있다.



이종태

〈동국대교수·산업시스템공학부〉

우리나라 서안에 접해 있는 황해는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해류 유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썩기 쉽다. 한·중 양국에서 쏟아내는 공업폐수와 생활하수 등으로 황해는 사해(死海)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중국측이 최근 이례적으로 황해의 오염실태를 밝혀 그 심각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해는 세계 민간환경기구인 '월드워치'에 의해 세계에서 두번째 오염해역으로 지목될 정도로 심각한 오염지역이 되었다.

황해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는 황해로 유입되는 중국 동북부 보하이(발해)가 크게 썩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95년 한해 이 지역에서 바다로 유입된 오염 물질은 약 70만t, 해수오염이 표준 허용치를 넘어선 지역은 4만3천㎢로 보하이 총 수면의 56%에 해당된다.

황해의 오염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무분별한 바다의 매립으로 조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개펄이 없어져서 바다가 자정능력을 잃게 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계절에 상관없이 적조현상과 그에 유사한 갈조현상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적조현상은 바닷물이 오염될 때 자주 일어나며, 미생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바다를 붉은 색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영양분이 많은 도시하수나 공장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미생물이 대량 늘어났다가 썩게 되면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독성과 산소부족으로 물고기나 조개류가 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황해 오염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서해라는 수산자원의 보고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정부도 이제는 방관적인 태도를 벗어나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무리한 간척사업을 자제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차단하며 황해의 자정능력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생태학적인 연구와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황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필수적이다. 우리정부는 중국정부에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오염발생 원인의 감축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중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중국은 아직도 해양오염문제를 국가적인 선결과제로 삼기에는 경제개발의 논리가 너무나 강하다. 그러나 해양오염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중국이 오염을 규제, 방지할 만한 기술이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환경보호측면에서의 상호의존성을 인식시켜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협조를 얻어내야만 한다.

황해 자정능력 갖추도록 정부차원 대책 세워야

나아가 유엔환경기구(UNEP)가 중심이 되어 있는 북서태평양 해양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연차회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국제환경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위기해결 차원에서 시급히 수립하고 실행하여야만 하며, 우리 국민은 정부가 그 역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다.

열린마당





봉축이미지 통일

조계종은 96년부터 봉축행사와 관련된 종단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해를 거듭하며 종단은 캐릭터등 봉축 이미지 통일 작업에 힘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지만 일부 사찰과 단체들은 아직까지 종단이 권하는 것과는 달리 개별적인 문양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봉축이미지 통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종단이 주도하는 이미지의 통일과 각 지역과 사찰들이 나름대로 도안한 봉축 이미지 도안들이 함께 사용됨으로 봉축의 의미를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봉축이미지의 통일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조계종 봉축위원회가 휘장 및 스티커에 응용토록 제작한 캐릭터

시민축제로 승화하는데 큰 역할

현지 〈광주시암련 회장〉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점점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캐릭터, 현수막 등을 비롯한 각종 봉축상품들이 봉축 이미지를 부각시킬 뿐 아니라 불교의 고유한 전통을 한눈에 보여주는 효과를 발휘하며, 이같은 상품들이 행사를 풍성하게 장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으로서는 봉축위원회에서 통일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행사준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는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자체적으로 몇번 봉축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시도해 보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정과 인력 부족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지방봉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봉축위원회에서 개발, 제공하는 캐릭터등 각종 봉축관련 디자인은 봉축행사를 시민축제로 승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는 광고시대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불교만의 독특한 이미지 개발은 불교를 널리 알리고, 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불교의 고유한 전통을 알릴 수 있는 봉축개발에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한다.

일부에서는 봉축상품들을 모방해 상품화하고 있다고 하니 씁쓸한 마음이다. 모방은 또다른 모방을 낳고 조잡해지기 마련이다. 앞으로는 대의적인 입장에서 좋은 기획이 있으면 이를 모아 통일된 봉축캐릭터를 제작해 부처님오신날이 지구촌의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통일보다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원행 〈동해 삼회사 주지〉



봉축용품은 단일기관에서 일원화시켜 만드는 것보다는 다양화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드는 봉축용품도 일종의 문화 상품이다. 이렇게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기획물인 만큼 획일적인 물건보다는 개발하고 시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과 종류가 많이 나와 불자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경쟁 체제가 마련돼야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각 사찰과 포교당들은 그 지방 특색에 맞는 고유의 봉축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 사찰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부처님오신날 축제를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결합, 불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문화의 꽃으로 피어나게 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문화 행사에 많이 사용되는 봉축용품들도 각 사찰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제작돼야 한다. 이렇게 다양화된 봉축 기획품들을 소도구로 이용해 행사를 치른다면 불교 문화 행사의 질도 한층 높아지리라 본다. 봉축용품의 차별화와 다양화를 막는다면 오히려 지방불교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다.

봉축용품의 다양화는 우리나라의 불교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단순한 봉축 기념품이 아닌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외국 관광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한국불교문화를 알릴 수 있다.

반드시 봉축용품을 통일화해야 한다면 공모와 같은 경쟁을 통해 알찬 용품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외적 불교이미지 개선에 도움

조영훈 〈생명나눔실천회 기획차장〉



봉축 캐릭터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온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축하할 수 있는 대외적인 이미지 통합이란 상징성이 크므로 종단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각 종단별로는 교리나 수행법상 차이점이 많으므로 나름의 특색있는 캐릭터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각 종단 산하의 신행단체나 사찰들은 종단의 통일된 봉축 캐릭터를 일사분란하게 사용하는 것이 종도들의 단합된 봉축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 적절하다.

종단 산하의 단체에서 독자적인 캐릭터를 개발할 경우 인력과 예산의 중복적인 투자가 나타날 뿐 아니라 중구난방의 캐릭터가 양산되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혼란스럽다. 또한 상업성을 추구하다 보니 적은 돈으로 조잡한 캐릭터를 베끼기 식으로 만들어낼 우려도 있다.

개별 단체나 불교기업들이 상업용으로 캐릭터를 개발해 판매하려 한다면 가능한 한 봉축과 무관한 다양한 불교관련 상징을 활용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친근한 불교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불교문화의 현대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개별 단체의 C.I.작업용 캐릭터는 각 단체의 사업목적과 특징을 살린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생명나눔실천회의 마스코트인 '나눔이'는 토끼가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를 들고 있는 것이 한 예다. 각 단체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봉축 캐릭터와는 차별성을 가진 캐릭터를 개발하면 된다.

종단차원 봉축캐릭터 통일 불자 결속 강화

이미지 통일작업 의의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봉축 이미지 통일화 작업은 통일된 문양의 캐릭터와 각종 휘장, 현수막 등을 통해 종단의 일체성을 알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불교계 최대 축제인 봉축행사에 쓰이는 각종 문양들을 통일 시킴으로 봉축의 의미를 한층 고양시킨다는 것이 조계종의 의도다. 이와함께 종단의 결속력과 전통 계승이란 측면도 봉축 이미지 통일의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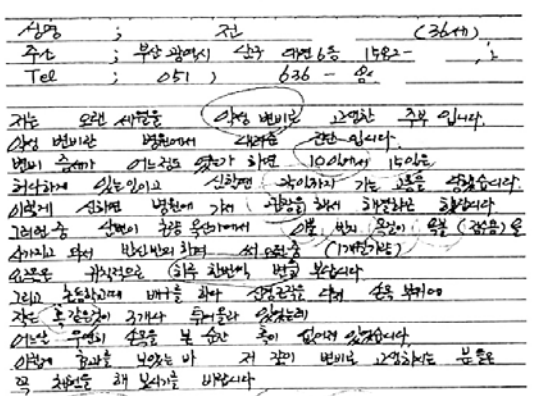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그간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봉축 캐릭터를 도안하고 기본 캐릭터를 응용한 봉축 상품들도 개발 보급했다. 봉축위가 보급하고 있는 봉축 이미지 통일관련 상품은 연꽃과 6바라밀의 의미를 부합시켜 도안한 심볼마크, '부처님 오신날'등 각종 봉축 문구에 활용하는 로고, 탄생불을 형상화 시킨 캐릭터, 천진동자 문양, 각종 현수막 제작에 따른 기본 색상과 문양, 번 ,등표, 어깨띠, 각종 휘장등 1백여종을 넘는다. 또 이들 문양을 활용한 모자, 유니폼, 티셔츠, 슬리퍼, 시계, 손수건, 컵, 버튼 등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봉축위가 보급하는 봉축 이미지 상품들은 임의적으로 변형시킬 수 없으며 상업 상품에 적용시킬 경우에는 봉축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변비



백옥 반지 옥 옥 옥

종단소식

조계종

금산사 초파일 경로잔치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22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경로잔치에서는 전북연예협회의 민요메들리 코미디 품바타령, 금선국악원의 설장고 판소리 공연 등이 진행된다.

관음사 보살계 수계법회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는 19일부터 24일까지 보살계수계법회를 실시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고승초청무차대회, 생명나눔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 등이 진행된다. 한편 관음사는 25일 봉축경로잔치, 26일부터 5월2일까지 경제살리기 철야삼천배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태고종

강원교구 국난극복 기도

강원교구종무원(종무원장 편백운)은 26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일 새벽 4시, 오전 11시, 오후 6시 하루 3차례에 걸쳐 'IMF극복을 위한 7일기도'를 봉행한다.

백운스님은 "이번 법회는 금융위기사태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불자 모두의 정성으로 제불보살님의 가피를 얻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하고 강원교구 산하 1벅20여 사찰에서 동시적으로 봉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림사 종진스님 진산식

향림사(주지 차종진)는 14일 주지 진산식을 가졌다.

이날 종진스님은 "향림사 수호와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그동안 진행돼 온 선암사 사태는 외부 불순세력의 사심에찬 야욕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중스님들의 수행자적 자세와 종도로서의 종단관 결여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향림사가 더 이상 수난당하지 않고 나아가 종단 중흥발전의 중심도량이 될 수 있도록 가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주암 대웅전 상량식

관악산 성주암(주지 송종연)은 11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사진〉



이번에 준공된 대웅전은 지난해 이교도의 소행으로 보이는 방화로 전소된 이후 1년만에 원형 그대로 복원된 것이다.

천태종

관문사 옥불 점안식

관문사(주지 운덕, 총무원장)는 26일 오전 9시30분 대법당에서 옥불 관음존상 봉안식 및 경제난국 극복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옥불 관음존상은 미얀마에서 들여 온 백옥 원석을 깎아 조성한 것으로 그 높이만 3m30cm에 이르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단적 염원을 담고 있다.

총지종

춘기강공 종법개정논의

통리원(통리원장 총지화)은 21~22일 전국 70여명의 스승들을 대상으로 제51회 춘기강공을 실시한다.

이번 강공에서는 교리교육과 함께 재단이사회 종의회 원의회 결산보고, 종법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효종

원효성사 1312주기 추모

원효종(총무원장 무진)은 25일 효창공원에서 원효성사 열반 1312주년 추모대재를 봉행한다.

추모대재는 5백여명의 종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다 헌화 헌공 추모사 법어 발원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원효는 누구인가'에 대한 강연회가 있다.

일붕선교종

제주 종무원장 강설스님

제주종무원은 최근 영암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종무원장에 강설스님을 추대했다.

또 명예 종무원장에 종연스님, 종회의장에 도연스님, 사무장에 영수스님, 총무국장에 제법스님, 재무국장에 혜연스님을 각각 추대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흥국사 환경훼손 극심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 2차 오염실태 조사

공해 심해 문화재부식…신도 감소
쌍계사·천은사는 오수처리 양호

전남 여천 흥국사(주지 진만)의 사찰환경이 심각한 훼손위기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능관)가 4~10일 화엄사 천은사 쌍계사 보리암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을 대상으로 '제2차 사찰환경오염 시설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남 여천공단의 대기·수질오염으로 흥국사의 보물급 문화재 등이 부식당하는 등 사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천공단은 96년 대기 및 수질오염으로 주거환경이 파괴되었다고 판단, 주택공사와 함께 주민 이주사업을 시작해 전체 주민 3만명의 3분의 1인 1만명의 이주를 마친 상태. 대기중에 분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빗물에 의한 건물의 부식현상이 나타날 정도여서 99년까지 전체주민의 이주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흥국사의 존폐여부도 내년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 의장 진옥스님(석천사 주지)은 "흥국사 주변은 저기압일 때는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면서 "대기오염 등으로 상당수 보물급 문화재들이 부식당하는 것은 물론 마을 신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 사찰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옥스님은 단청·탱화의 안료반응과 목·석조문화재의 부식 상태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들과 공동조사를 벌일 계획.

흥국사에는 대웅전(보물 396호)과 대웅전 후불탱(보물 578), 흥교(보물 563호) 등 3점의 보물과 흥국사 원통전(지방유형문화재 45호) 등 지방문화재 3점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흥국사 일원이 문화재자료 38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사찰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쌍계사 천은사의 경우 자체에산으로 환경오염시설을 설치 가동중이며, 자체 자연식 정화시설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스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김재경 기자〉



◇부인사는 선덕여왕이 삼국통일을 기원하고 마야부인이 원당으로 삼기위해 견립한 고찰로 87년부터 매년 선덕대왕 숭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부인사 선덕여왕 숭모제
"호국정신이어 IMF 극복"

제12회 선덕대왕숭모제가 11일 팔공산 부인사 숭모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무공스님 부인사주지 성타스님 최동원 대구신도회장 최정숙 선덕대왕숭모회장 문희갑 대구시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최회장은 "숭모회원들은 선덕여왕의 호국정신을 본받아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보다 문화우선"

문화부 국민 2천명 조사

우리나라 국민 중 78.8%가 다소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문화재와 역사유적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지난해 8월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15세이상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 경제적 풍요보다 문화적 풍요(61.2%)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를 생각할 때 역사문화유산(35.5%)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그 다음으로는 전통예술(18.7%), 현대예술(17.8%), 대중문화(16.9%)의 순이었다.

"경주남산 정화합니다"

5년 계획…올 문화재 40점 보수·휴식년 실시

신라의 천년 불국토 경주남산(사적 311호)의 보존을 위한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문화재관리국과 경주시는 97년 경주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경주남산 5개년 보존정비계획'을 총예산 93억여원을 들여 올해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우선 정비 △비지정 문화재는 등산로 주변의 석조물 가운데 복원가능한 것을 선정, 보존 △등산객의 급증과 무속행위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입산의 유료화 및 자연휴식년제 도입 △남산일원의 사유지 매입 및 민묘의 이장방안 강구 △남산순례길 조성-정비할 수 없는 곳이나 고증가능한 역사적인 현장에 유래와 내력 등을 적은 안내판 설치, 교육장소로 활용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배리 삼존석불입상(보물 63호) 등 40여점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우선 보수정비된다.

또 정비가 필요한 유적지의 경우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실시되며, 약수골에 흩어진 불상 등에 대한 정밀학술조사도 이뤄진다.

경주고도 특별법 시안제시

市 공청회, 종합계획·특별기금안 등 담아

경주시가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시와 시의회 및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16일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시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고도보존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보존지역 및 복원지구의 지정 △고도보존 및 복원사업 비용의 국가부담 △고도보존 및 개발기금의 설치 △지역개발 채권의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오영석교수(동국대)와 이태종교수(경주대)는 "특별법안은 고도경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포함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결집을 위한 특별전담반 구성을 제안했다.

정현교수(경주대)등은 "개발공사 등을 하면서 문화재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문화유적이 파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주민피해 해소와 고도보존의 양측면을 고려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지난 12일 제천 고산사에서 열린 응진전 상량법회.

제천 고산사 응진전 상량법회

제천 고산사(주지 함현)는 12일 오전11시 응진전 법당 상량법회를 명진(조계종 종회의원)·광복(조계종 종회의원)·현증(前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스님 등 30여명의 스님과 재가신도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함현스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자님들에게 감사한다"며 "옛 고찰의 면모를 되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도씨 징역 5년
송병욱 상무 무죄

서울고법 BBS횡령 판결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 공판에서 前 불교방송 상무 송병욱씨는 무죄, 前 경리부 차장 김선도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前상무는 1심에서 업무상 횡령혐의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30일 직권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처분에 관한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국난극복 기원 만불 조성

도봉산 호암사 천연동굴에…천일기도 입재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1만불이 조성된다.

환난극복기도도량 의정부시 호원동 도봉산 호암사(주지 혜우)는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1만불을 조성키로 하고 1천일 기도정진에 들어갔다. 법당위 범바위 천연동굴에 봉안될 1만불 조성불사는 탄성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이 "환난극복을 기원하는 조계종 최고의 기도도량으로 중흥시키자"는 발원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도봉산 호암사는 예로부터 국난등 천재지변이 있을때마다 지역주민들이 기도를 올리던 곳. 특히 6·25동란 당시에는 의정부 호원동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들어 부처님께 기도하며 무사히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지 혜우스님은 "부처님은 중생에게 괴로움을 없애 주는 발고여락과 한몸같이 여기는 동체대비의 실천을 보여줬다"며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1만불이 조성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비춰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27일 관할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호암사는 1만불조성은 물론 80평 법당과 요사채도 건립하여 여법한 도량으로 태어날 예정이다. 불사 동참 문의 (0351) 873-1386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형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엽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상담실 080-200-4545

불교문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봄 호 제5호(통권25호)



지상대담 / 불교방송 교리강좌 중계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 ②
불교의 가르침,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국의 美 / 우리의 옛 등기(燈器)
소박하고도 성스러운 빛, 등기(등잔, 등잔걸이)

특집
발우공양·음식물 절약으로 IMF를 이긴다
발우공양과 불교정신
사찰에서 행해지는 발우공양
발우공양의 현실적 적용방법을 제시하며
탐방기 / 발우공양정신,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 **IMF시대에 새겨 둘 어른들을 위한 동화**
세계 각국의 자린고비 이야기를 비롯, 어려운 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동화 속에서 만난다

인터넷 불교 / 인터넷 불교저널의 이모저모
생활 속의 불교문화 / 봉축 케익 및 IMF 방기술 세미나

불교계진단 / **불교계 수행풍토 바뀌어야 한다**
'토굴'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의 현실
칼리화보 / 시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깨달음에 이르는 성물, 법구(法具)
특별기획
稗을 노래하는 無性의 시인, 게리 스나이더
생태학적 감수성의 시인
인터뷰 / 생활이 곧 詩고 시가 곧 禪인 시인
내가 만난 게리 스나이더
생태탐사기
골프장 건설로 몸살앓는 **가야산 자연생태계의 중요성**
山寺古談 ❶ / 경봉 스님과 지낸 삼소굴의 겨울
물 맛 같은 스님
성본 스님의 稗이야기 ❷ / 숲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

구독신청
• 구독료 : 1년 32,000원(4호간)
※ 송금방법 : 지로입금 또는 무통장 입금(입금후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송금계좌 : 국민은행 827-25-0006-047 외환은행 189-13-026885-0
우 체 국 012245-0090499-11 농 협 069-01-197161
지로번호 7630868 예금주 : (재)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와 문화 정기구독 신청 문의 Tel. 02 - 719 - 2606, Fax. 02 - 719 - 5052

광주 우성병원 교계에 희사

5월1일 '불교병원'으로 개원…병상 70실·법당등 갖춰

광주지역에 첫 불교병원이 장례예식장과 함께 문을 연다.

5월1일 개원하는 광주불교병원은 지난해 11월 기우성씨(58세, 前우성병원 원장)가 2백80억 상당의 우성병원을 천운스님에게 기증하며 "불교병원으로 만들어 불자들에게 최신의료서비스를 했으면 한다"는 의지를 밝혀 개원되게 됐다.

기씨는 우성병원을 천운스님에게 기증한뒤, 스님이 요청한 의료법인 이사직도 거절하는 무상보시행을 실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씨는 천운스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광주불교병원 원장직은 맡기로 했다. 기씨는 광주에서 정형외과 수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전문의로 기독교 신자였으나 지난해 불교에 귀의했다. "아직까지는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천운스님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여 좋은 병원 운영으로 관심에 보답하겠다"는 기씨는 인터뷰요청도 정중히 거절했다.

광주시 계림1동에 위치한 의료법인 광주불교병원(이사장 천운스님, 향림사조실)은 5월 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하1층 지상9층 총건평 1천여평 규모인 광주불교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마취과 방사선과등 6개과 170병상(5층 층에 들어서는 것은 물론 8층에 80평 법당과 9층에 법당 요사채가 마련된다. 또 현재 2~4층에 공사중인 장례예식장도 빠른시일내 개원하여 불교의식 전통의식 등의 염습과 화장시설을 갖추게 된다.

광주불교병원은 지난해부터 법당불사와 최신식 의료기기를 갖춰왔으며 10일 의료법인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했다. 이에앞서 최근에는 8명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비롯하여 50여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는등 개원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광주불교병원 이사장 천운스님은 "불자들에게 의료봉사하는 병원으로 만들겠다"며 "병원운영이 정상화되면 불자와 스님들에게 무료시술 혜택을 넓혀가고, 장기적으로 병원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재적사찰의 주지스님 추천서를 첨부한 불자들이 광주불교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김원우 기자〉

중진회 24일 운영위 회장사퇴건 등 논의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4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송재건회장 사퇴에 따른 향후 대행체제 구성과 사무실 이전을 논의한다. 긴급 운영위 회의는 운영의원중 최연장인 홍욱진 부회장의 요청에 의해 16일 사무국이 소집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송재건회장의 사퇴성명 발표와 관련, "(송회장이) 사표를 냈다는 말만 들었다. 다의원대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14일 올해 연등축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신도회장 사퇴와 간담회 개최 요청에 대한 총무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송재건회장은 16일 자신 소유의 정동빌딩에 입주해 있는 중앙신도회 사무실을 이달 말까지 [illegible]으로 알려졌다.



장애불편 체험해보니…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17일 오후 서울 드림랜드에서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기념, 장애체험 행사와 장애인장기자랑 및 연예인 공연 등 장애인큰잔치를 펼쳤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참석사들이 매표소에서 공연장 입구까지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체험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군불교진흥회 "사찰마다 군위문품 보냅시다"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가 3회째 벌이고 있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해에는 조계종 총무원 지원금 1천만원과 진흥회 이사들의 특별후원금, 사찰 및 불교단체의 후원금 등 2천5백만원으로 1만개의 위문품을 마련해 군법당에 보냈다.

위문품 1개에는 소책자 1권과 합장주 음료수 초코파이 등을 담아 2천5백원이 든다. 올해는 이사들이 낸 특별후원금 4백50만원이 전부다. 1천8백개 분량이다.

이하전 사무국장은 "올해도 보내주느냐는 군종병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얼버무릴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진흥회는 군종병들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어 2천여 사찰에 편지를 보내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02)749-5135

그렇지 않아도 군불자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불교계의 후원 부족이 감소의 원인이다. 1년에 한번 있는 초파일 위문품보내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면 '황금어장'이란 말은 구두선일 뿐이다.

〈정성운 기자〉

뉴스 & 뉴스

법사연합회 6월 창립

법사연합회가 6월 창립된다. 선진규 송춘희씨 등 재가법사 20여명은 17일 서울 안국동 동산교육회관에서 (가칭)한국불교법사연합회 발기인총회를 열고 6월25일경 창립대회를 거행키로 했다. 또 한정섭 김재일 이지행 이건호 김칠회 노혜광 허성구 신근식 박상갑 임기준씨를 창립준비 실무위원으로 선임했다.

화성 신흥사 전법도량 현판

조계종 전법위원회는 11일 화성신흥사에서 전법도량 현판식 및 순회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포교원장 성다스님, 고문 [illegible]주지스님, 전직스님, 신흥사주지 성일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조직위원회는 전법도량으로 지정된 신흥사에 전법지원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초파일 양심수석방 건의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는 15일 과천 제2 종합청사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을 만나 부처님오신날 양심수전원 석방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화 '성철' 시나리오 수정

성철문도회와 직계유족인 불필스님의 '영화제작 및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작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영화 '성철'이 제목을 바꿔 선(禪)사상 중심 내용으로 꾸며진다.

박철수감독은 "영화 '성철'은 성철스님을 모티브로한 한국불교의 선수행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시나리오를 수정하게 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작품은 영화적 가공인물을 설정해 역대 한국불교의 선(禪)사상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노인초청 효도잔치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는 부처님오신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28일, 5월 2,3일 3차에 걸쳐 남구지역 관내 거택보호대상 노인 및 이웃노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심청이 효도잔치를 연다. (053)476-6631

유적보존 봉사단 결성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문화유적보존 자원봉사단'이 최근 결성됐다.

연세대 사회교육원 은퇴준비교육과정에서 결성된 이 봉사단은 40대에서 80대까지 주축을 이루며 문화유적에 관한 학습과 답사 및 보존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불교언론인회 창립 장소변경 5월 1일 불교방송 3층 법당서

한국불교언론인회 창립법회(창립준비위원장 신광식 KBS연구위원)가 5월 1일 오후7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교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들의 축하 속에서 개최된다.

영탑사 금동삼존불 수덕사로 이전 '말썽'

신도·주민 "제자리로"

당진 영탑사 금동삼존불상(국보 제409호)이 8일 수덕사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신도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월30일 영탑사는 금동삼존불상의 도난사고를 우려, 수덕사 성보전시관으로 옮기기로 하고 보관장소 변경신고서를 당진군에 제출했다. 4월7일 충남도로부터 필요한 장소로 옮긴후 신고하라는 회신에 따라 8일 오후 2시 45분경 영탑사 주지와 수덕사 관계자는 85년부터 삼존불상을 보관해오던 면천파출소에서 수덕사로 옮겼다.

자비의 전화 "상담 줄고 있다"

작년 3천8백건…96년 비해 33% 감소

97년 한 해 동안 자비의전화(회장 정덕스님)에 걸려 온 상담전화는 96년도 5천4백79건 보다 33%(1천8백11건)나 적은 3천8백11건으로 나타났다.

황선정 자비의 전화 상담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97년도 자비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상담건수의 감소 이유를 △상담원의 활동 저하 △타 상담기관의 잇단 신설 등으로 파악했다. 황 연구원은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담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불교상담의 틀을 구축, 독특한 상담분야 개발 △다양한 상담요구에 부응하는 자료 개발 △상담원 워크숍 주최 등을 제안했다.

이번 상담통계에 따르면 상담유형별로는 부부문제(18.7%)와 이성문제(17.6%)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정문제(15.3%), 인생문제(10.1%), 종교문제(9.3%) 순으로 분석됐다. 개인의 정신·신체적인 문제나 단순한 정보를 묻으려 하는 것보다는 대인간의 문제나 종교 등 인생의 가치문제들이 많은 상담내용을 이루고 있다.

"북동포 생각하며 하루 굶자"

25일은 국제금식의 날 서울대회 91개단체 동참

25일은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세계 70여개 도시에서 행사가 열린다.

한끼 또는 하루 식사비용을 아껴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중국 일본 등 11개국 70개 도시에서 동시에 전개된다. 서울대회(공동대회장 능관 ·조계증 사회부장)는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간 동안 문화공연과 함께 다채롭게 진행된다.

서울대회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개 교단과 홍사단 YWCA 녹색연합 등 91개 단체가 참가해 하루를 굶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의 고통을 체험하고, 성금모금 활동을 펼친다. 또 북한 식량난 보고회 세계지도자들 메시지 낭독 실향민들의 회고담 등이 문화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군장병 5천1백명 수계 공군 성불사·육군 연무사

공군교육사령부 충국성불사(주지법사 박권영)는 11일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도문스님(대성사주지)이 계사로 참석, 교육생을 비롯한 1천1백명의 장병에게 수계했다.

논산 연무대 호국연무사(주지법사 경연수)도 19일 신교대 장병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군승단에 따르면 4월 한달간 계를 받은 장병은 1만여명이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 종단협 직할로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 이하 불추위)가 종단협 직할 기구로서 직제를 개편하고, 북동포돕기 지원사업은 물론 남북통일대비 정책 및 방안을 연구, 홍포하는데 전력하기로 하는 등 사업기조를 전환·확대했다.

불추위는 11일 제7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열고, 통일운동 기운확산작업, 연구사업, 조직·홍보사업, 북녘지원사업, 교육 및 인력양성사업 등에 대한 세부일정 및 과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불추위는 22일 '현시기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의 효과, 분단이 미쳐온 영향,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주제로 한 1차 통일준비 불교정책 워크샵을 시작으로 매월 워크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5월15일 불교지도자 통일포럼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 발대식을 갖고, 불추위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이어 포럼을 개최한다.

목탁소리

스님들의 선거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선거는 세간의 일이다.

그런데 요즘 출세간의 선거가 세간인의 이목을 솔깃하게 하고 있다. 10일 치러진 동화사의 후임주지 추천자 선출 선거에는 수십명의 기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그만큼 세간의 관심도 대단했다. '스님들의 선거는 어떤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스님들의 선거가 세간의 그것과 달리 청정하고 공명정대하다면 불교가 세속을 향해 '이것이 선거의 진면목'이라는 가르침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앞으로도 조계종에는 많은 선거가 남아있다. 8개에 해당하는 교구본사가 서로 후임주지를 정해야 하고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종회의장도 다시 선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총무원장 선거도 가을을 기다리고 있어 교계 안팎의 관심을 사고 있다. '선거의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조계종. 종단 내부에서는 동화사 선거를 계기로 '과연 선거를 해야하나'라는 회의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출세간 사회가 세간과 똑같은 방법의 선거를 치러내는 것이 결코 좋은 모양새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구본사 후임 주지 선출과 관련 대부분의 본사들은 산중총회를 통해 후임자를 추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치열한 경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였던 불국사도 문중간의 합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단지 선거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 아니라 출세간의 법대로 조용히 '자리'가 이양된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것이다. 출세간이 세간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생기는 잡음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회의원과 종회의장, 총무원장의 선출은 선거가 불가피하다. 아직 '선거없는 종단'을 만들 분위기는 형성되기 어렵다. 때문에 많은 불자들은 조용한 선거, 출세간 다운 선거를 주문하고 있다.

출세간의 선거가 세간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거를 앞둔 조계종 구성원 모두가 깊히 반조해야 할 화두다.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염불의 사상·역사· 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책!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말법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행하기 쉽고 그 공덕 또한 가장 수승한 수행법!

이 책은 다양한 염불의 종류와 이들이 생기된 근원, 발전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덕들에 대해 수많은 경전과 논사들의 주장을 토대로 고찰하고 있다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TEL:720-9372~3 FAX:723-0646

이태원 저/신국판 양장/726쪽/값 25,000원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우학 스님 장가 안가길 잘했네 ㅇ ㄴ ㄱ ㄹ ㅁ



1 2 각권 6,500원

흔들리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메마른 마음을 사랑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주옥같은 수필집.
마음을 밝혀 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국 출판계를 강타했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전 4 권 각권 6,000원

우학 스님!
불교가 이렇게 재미 있군요!
열번을 읽어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다가 옵니다.

우학 스님의 책
- 새로운 불교공부 —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풀다!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 —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上·下
- 불교 EQ 1 2 —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불교 문답서
- 불교 사경집 — 반야심경·천수경·금강경·조발심자경문·중도가 등 3종 수록

-도서출판 좋은인연-

◆◆ 좋은인연 신간 : 삼천 배 삼천부처님 삼천배 쉽게 하는 책 (가격 : 10,000원) ◆◆

도서출판 좋은인연 (영남불교대학 부속 출판사) 053)475-3707

현대불교 98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해룡사 미륵불 눈·입 새로 새겨 특이한 형상

■ 석불연구회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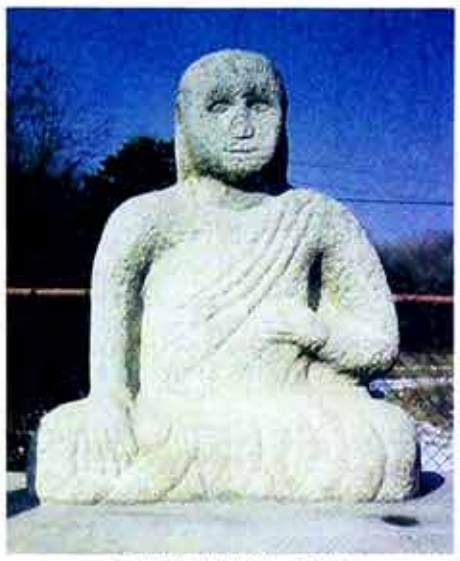
경기도 이천시 해룡사(주지 인공) 경내에 있는 미륵불은 상호와 형상이 특이하여 눈길을 끈다. 키(앉은높이) 90㎝, 폭 82㎝인 이 미륵불의 부조기법은 마애불형식으로 처리됐지만 수인이 정확치 못한 것으로 보아 비전문가들이 조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불상에서 기본적으로 보이는 육계와 삼도가 없고 우견편단만 갖추고 있다. 얼굴상호중 눈과 입 부분은 후대에 새로 새긴 흔적이 역력하다. 시대적으로 봐서도 돌재질 등 형식은 조선시대의 불상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발부분을 옷주름과 연꽃좌대로 가린 상현좌 형식은 삼국시대이후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기법이어서 혼란스럽다. 미륵불옆에는 높이 40㎝, 폭 20㎝의 용왕상이 있는데 개금이 벗겨진 상태. 용왕상의 재질은 미륵불과 같고 눈과 입은 그려진 채 코만 조각돼 있다. 용왕상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점은 미륵불도 원래는 크만 조각되고 눈과 입이 그려져 있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눈·입이 지워지면서 후대에 새로 조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다.

육계·삼도 없고
수인도 불명확
조선시대 조성 추정

이근후 석불연구회 회장은 "해룡사 미륵불의 조각은 정형이 아닌 이형이다"며 "시기는 조선시대 조성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사했다.

지역주민인 김병기씨(66세)는 "14세때쯤 당시 마을의 기도처였던 해룡사에 미륵불이 모셔지는 것을 보았다. 마을사람 여러명이 소달구지를 이용해 미륵불을 싣고왔다"고 회상했고, 해룡사 주지 인공스님은 "10년전 이곳 해룡사에 왔을 때는 야외에 있었다. 원래 해룡사 법당에 주불로 모셔졌던 것이 18년전 법당을 신축하며 야외로 옮겨졌다고 노스님께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상의 겉에 흙이 칠해져 있어 처음에는 석불인지도 몰랐다는 얘기를 노스님에게 들었다고 전한다.



◇해룡사 경내에 있는 미륵불.

현재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는 이천시 도리리 소돈리 고개에 이름모를 절터가 남아있는데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갓을 쓴 석불입상과 탑이 있다. 주춧돌이 널려있고 축산 미륵댕이라고 불리고 있어 사지라는 것이 확실한 만큼 군부대가 들어서는 공사중에 이곳에 있던 미륵불이 해룡사로 옮겨온 것이 아닌가 한다고 인공스님은 덧붙였다.

정리=김원우 기자

돌부처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동성재 미륵불

고증: 정영호 박사



동성재 미륵불(본지 165호 24면 참조)은 육계도 크고 상호도 원만한데다 어깨가 당당하다.

손에 약병이 들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법의가 양쪽 어깨에 걸쳐져 있는 통견과 육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여래불상이 확실하다. 수인은 통일을 표현하고 있으며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뭉개졌지만 전체적으로 불상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다. 하체가 약하게 처리된 것이 약간 흠이다.

"통일신라 여래불"

양산 미타암 불상 양식

관석갑은 한돌에 양각으로 해서 불상을 조각한 예가 양산 통도사 말사 미타암 동굴에도 모셔져 있는데 동성재 미륵불도 같은 형식이다. 이런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고려시대까지 유행됐는데, 신라시대 불상으로 봐도 손색이 없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②

이론만 밝던 불교신자 극심한 디스크 앓으며 또다른 불교세계 체험

불교연수원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법회를 열었다. 그것은 불교를 접할 수 있었던 또다른 기회였다. 법문은 대전에 있는 풀교 종립학교인 보문고등학교 이재복 교장선생님께서 맡아 하셨다. 이재복선생님은 지금의 동국대 전신인 혜화전문학교를 나오셨고 감사에도 계셨던 분으로 교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깊은 지식을 갖추셨고 또한 문단에서도 인정받는 시인이었다.

나는 법회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부처님 말씀은 법회선열식이란 말처럼 나의 인생을 밝고 환하게 해주었고 매사에 긍정적인 신념을 심어준 생애의 목표가 되었다.

교장선생님은 8절지 한장에 부처님 말씀을 등사해서 일일이 나눠주고 설명해주셨다. 불교설화와 부처님 본생담 등을 곁들여 교리를 이해시켜 주었고 서양의 철학과도 비교하여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다. 나는 부처님 말씀에 환희용약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안달이 났다. 그래서 자청하여 프린트를 맡기로 했다. 금요일에 교장선생님을 뵙고 원안을 받아 원지에 정성껏 쓴다음 근무하는 곳의 등사실에서 등사하여 일요일에는 인쇄된 용지를 안고 연수원에 갔다. 2년 동안 한주도 빠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부처님 말씀은 나의 생활을 환희로 바꾸었고 정견이 열리면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였다. 사성제, 팔정도, 12인연, 6바라밀, 〈아함경〉, 〈법화경〉, 〈화엄경〉을 배우고 읽고 외우면서 불교에 대한 확신이 섰다.



그림 · 이준석

불교는 연기의 법칙을 통해 자신을 직시할 수 있는 지혜의 종교이며 지혜가 넓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인간이 되어야 함을 알려 주었다. 자귀의 법귀의, 자등명 법등명에서 무릎을 칠 수 있는 자신을 얻었고,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 등의 가르침으로 탐욕의 무지가 어떤 것임도 알게 되었다. 배는 강을 건너는데 필요하다는 불교의 진리는 나에게 참 자유를 브여주었다. 〈유마경〉을 읽고는 대승불교의 진수에 감탄을 하였으니 일상사의 시비를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겨울산림 법회인 성도절 때는 일주일 시한부 가출(?)을 하여 절에 머물면서 자신의 문제에 깊이 파고 들기도 하였고 어느 때는 공양하고 잠자는 시간을 아끼면서 매일 관음정근 10만독도 하였으며 하루 네번 예불에 자신을 잊고 지내기도 하였다. 스스로 생각해보니 정생에도 이렇게 정근한 것이 아니었나 하며 미소도 지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타자수에서 고시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법회의식인 찬불가를 반주할 수 있는 보람 속에 지냈다.

그런 나에게 커다란 시련이 왔다.

1973년 봄. 나는 우연히 언덕에서 떨어졌고 그 후유증으로 발생한 허리 디스크로 앉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며 웃지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다. 그때 내 나이 스물아홉. 결혼도 마다하고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노부모님 앞에서 누워지내야 하는 기막힌 처지가 된 것이다. 휴직까지 하고 누워지내는 나에게 목사님께 시집간 이종언니가 위로차 찾아와 한다는 말이 "명숙아, 너 하느님 안 믿고 그런 미신 믿으니까 이렇게 된거야. 이 기회에 개종해"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니 부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믿고 귀만 종성한, 자식인 척하는 교만한 불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관음보살님의 가피력이니 부처님 위신력은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마른 풀같은 불교신도.

정형외과, 한방병원, 서울에서도 유명하다는 의료원을 전전하면서 치료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수술을 해도 차도가 없다는 진단이 나와 생에 의욕이 꺾인 상태에서 이종언니의 독선은 오히려 나의 의식을 깨우쳐 주었다.

조명숙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전화카드에 석굴암부처님

한국통신 국제용 2종 판매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부처님이 국제공중전화카드에 떴다. 한국통신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월드폰플러스카드(사진)에 석굴암부처님 전신상과 얼굴부분을 담은 2종류의 국제전화카드를 제작, 23일부터 시판한다. 일본 인도 태국 등 불교국가를 포함한 세계 50개국과 국제전화를 할 수 있고 그들 나라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월드폰플러스카드는 통화료가 다른나라 카드보다 70%나 저렴할 뿐만 아니라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방송 소식

이사에 정우스님 손현수씨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0일 불교방송회의실에서 '제32차 불교방송 이사회'를 개최하고 15일로 임기가 만료된 정재각이사의 연임과 정우스님(불교TV사장), 손현수 회장(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의 이사 선임을 결의했다.

불교방송이사장 도후스님을 비롯 13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3월30일 단행한 구조조정 상황보고와 불교방송 존립을 위한 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초파일특집 군법당 방영

불교부산방송(사장 류진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7일~5월2일 오후 4시10분부터 4시50분까지 '특집, 군법당에 자비의 손길'(담당PD 안재인)을 방송한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군포교의 중요성 및 부산, 경남지역 군법당 현황, 종단차원의 군포교 실정, 지원계획 등을 살펴본다.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월 600분 사용기준)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6,500원		
통화료(10초당)	평상(19원)	할인(15원)	심야(10원)

부처님 오신날
PCS 016「특별할인판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우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할인판매전을 500대 한정판매 합니다.

기간 '98년 4월 26일 ~ 5월 4일
대상 스님, 종무원, 재가신도
가격 5만원부터(가입비 별도)

* PCS 016가입시 현대불교신문의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가입하신 고객은 통화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배당되는 통화료 수익금을 풍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02)732-1522 FAX. 02)737-0697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2-1522)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백세마을, (사)감로심장회

소리가 보인다
PCS 016